



4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4호

(루게 534)



◆◆◆◆◆◆◆◆◆◆

차 례

◆◆◆◆◆◆◆◆◆◆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4
사향가	7
이 경축의 광장을 보십니까	8
재부	9
헌시	18
아버이	19
만경대는 제일경	21
날마다 첫아침에	22
김일성 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23
장령동지 군공메달	23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24
위대한 사랑의 집	31
나의 노래	37
축원의 봄	38
아버지와 딸	40
4월 25일 이날엔	41
크나큰 믿음, 끝없는 배려	42
력사는 말한다	51
새날	52
조선의 높이	53
그이는 조선의 영원한 상징	60
영광을 드리노라	61

경례를 받으시라!.....	62
너무 기뻐 하도 기뻐.....	62
첫 총서작품 《1932 년》	63
광장으로 가는 길에	66
영광의 단상을 우러러	68
명제해설	69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70
나를 불러주렴 너의 전우라고 (외 1 편).....	78
탄전의 봄	78
사랑하는 고향아	79
벼루이야기	80
진달래야 버들개지야.....	82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풍모에 대한 빛나는 형상	83
위대한 하나	90
목란꽃, 목란꽃은	93
봄명절날밤에.....	94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96

김일성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평양국제문화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존경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문화와 예술의 선봉적기수이며 지성인의 대표자들인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과 문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 자리를 같이하고 이처럼 유쾌하고 의의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의 이름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와 아세아, 아프리카작가협회 집행리사회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회합을 가지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작가들의 다양한 국제적회합은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앞에 나서는 과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며 진보적인 작가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함으로써 현대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진보적문학과 작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은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사람의 생활을 언어로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학입니다.

주체의 인간학인 문학은 인간생활의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입니다.

자주적인간의 생활을 반영한 진보적문학의 인식교양적의의는 매우 큽니다. 진보적문학은 인간생활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찬미하고 사회악과 불의를 고발하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아갈 길을 밝혀줌으로써 자유와 평화,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이바지합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름있는 작가들의 걸출한 작품은 사회의 귀중한 재보로서, 투쟁과 생활의 고무자로서 인민들에게 복무하며 그 감화력은 당대사회뿐아니라 먼 후세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문학은 인간생활의 교과서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합니다. 문학의 사명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작가들이 생활이 있고 투쟁이 있는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하며 인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의 화신이며 그것은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오늘의 제국주의나 다름이 없습니

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와 총칼을 휘둘러 세계인민들을 위협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신흥세력 나라들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는 한편 이른바 《원조》와 《협조》의 울가미를 씌워 발 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략탈하며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마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새사회건설과 새생활 창조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이 반제자주,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이 바라는 자주적인 새 사회, 평화로운 새 세계는 오직 인민들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있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핵전쟁의 위협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대륙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현대문학은 오늘의 이러한 시대상을 옹계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을 정의의 위업으로 고무하는 해불이 되어야 하며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는 철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현대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 자기의 시대적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온갖 불의와 사회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지성인으로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옹계 판단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진보와 자주, 평화를 위하여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어야 할것입니다. 작가들이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 때 그것은 압제자들의 죄사슬이나 총포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활동에서 마땅히 인민들의 요구와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과 그 대오의 앞장에 서있는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에게 침략과 전쟁을 미워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 대하여 날날이 폭로하고 준렬히 규탄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은 특히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력과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인민대중의 정의의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며 바로 당신들, 작가들은 민족문화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입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과 자주적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하는것입니다. 진보적작가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던 인민대중을 계몽하고 각성시켜 현대문명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며 자기 나라의 문학과 예술을 찬란히 꽃피우는 보람찬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할것입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에서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있습니다.

제국주의반동문화는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쪼먹는 유해로운 독소입니다. 진보적인 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양키식 《현대문화》와 《현대문명》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반동문화의 침습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가는 사회생활의 대변자이며 인간정신의 기사입니다. 작가들이 사회와 인민 앞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면 현실발전의 단순한 관조자가 될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활의 직접적체험자로, 정의의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되어야 합니다.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계의 이름있는 작가들은 모두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한 인민들의 진실한 벗이었으며 정의의 위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와하지 않은 견결한 투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맞이고있는 민족문화의 일대 전성기는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와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노력과 헌신적투쟁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공통된 리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단결하고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호상 접촉과 래왕을 활발히 하고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단결과 협조의 뉴대를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 작가, 예술인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뽀력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서 훌륭한 평양선언을 채택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과 문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이번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인민들의 반제평화위업과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평양국제문학토론회 참가자들이 나에게 따뜻하고 고무적인 감사편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시대의 선각자들인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작가들이 앞으로 창작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바라면서 세계여러 나라 진보적작가들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세아, 아프리카작가협회 집행리사회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모든 외국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사향가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이 경축의 광장을 보십니까

오영환

수령님,
이 경축의 광장을 보십니까
날밝기전부터 흘러든 사람들의 물결
꽃바다를 펼치고 설레입니다

수령님 뵈올 시각을 기다리며
خم모의 정이 넘실대고
감사의 정이 파도치는
김일성광장입니다

단상을 바라보며
사람마다 떨쳐입은 명절옷에도
수령님의 손길이 어려있고
가슴마다 칠령이는 훈장에도
수령님의 은정이 빛나고있습니다

로투사들이 더듬는 추억의 고장에도
수령님의 발길이 닿아있고
청년들이 들고나온 가장물에도
수령님의 구상이 어려어있습니다

누구는 반토굴집에서
두칸집, 세칸집으로
새집들이하던 나날을 그려보고
누구는 산골학교로부터 수도의 대학까지
꽃보라 뿌려지고뿌려지던
입학과 졸업의 나날을 펼쳐봅니다

고아는 부모를 여의고도
아버이슬하에 살아온 나날을 생각하고
로인은 가는 인생을 되불려주신
소생의 나날을 생각합니다

수령님, 수령님
복받은 세월을 광장에 다 퍼고
목청을 가다듬는 순간입니다
걱정을 누르고있는 순간입니다

터치면 하늘도 들어올릴
폭풍같은 환호를 품은 흐름이고
쏟으면 대지도 달아오른
쇠물같은 눈물을 안은 흐름입니다

아, 수령님 아니시면
우리 어찌, 진정 우리 어찌
해방의 만세소리 터칠수 있었으리까

전승의 축포아래 설수 있었으리까
전설의 천리마를 탈수 있었으리까

정녕 그렇습니다
노예의 고통도
가난의 설움도
무식의 수치감도
수령님께서 다 가져주셨습니다

이 행성에 선경이 있다면
우리 사는 주체의 조국이고
이 행성에 신선이 있다면
조선에 사는 우리입니다

옛말에도 없는 영웅인민을
수령님께서 이 나라에 키우셨습니다
《하느님》도 주지 못한 인민의 락원을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펼치셨습니다

그 무슨 말로 축하하오리까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수령님의 80평생은
인민의 한을 풀어준 역사이고
인민의 소원을 이뤄준 역사이온데...

이 광장의 환호소리보다
더 뜨거운 말이 있으리까
이 광장의 눈물보다
더 깊은 뜻이 있으리까

수령님이시여!
천만 인생 다 꽃피여난
이 광장을 바라보시며
피바다, 불바다 헤쳐오신
기나긴 세월의 그 로고를
오늘은 말끔히 다 푸시라!

이 세계에 많은 나라 있다 해도
천만 인생 다 꽃핀 나라
어디서 다시 찾아볼수 있으리까
오직 우리 조국뿐이오니
80평생 쌓이고쌓인 피로를
인민의 우렁찬 환호에 다 날리시고
인민의 절절한 축원에 다 씻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재부

1

눈이 내리고있었다. 소탈한 함박눈은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논밭이며 평퍼짐한 야산들에 바둑판무늬로 수놓아진 파원들, 그뒤로 연연히 물결쳐간 장대봉줄기에 소리없이 내려와 쌓이고 있었다.

승용차는 눈덮인, 호젓한 산촌길을 누비며 가볍게 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황해남도 일대에 대한 현지도도를 끝마치시고 지금 귀로에 오르신것이다. 폭신한 좌석등받이에 가볍게 몸을 맡기신 수령님께서서는 흐뭇한 심정으로 얼핏얼핏 스쳐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이윽히 내다 보고계셨다.

《눈이 많이 내리는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곁에 앉은 군인민위원장 오성민에게 조용히 말씀을 건네시었다.

《예, 새해에 잡혀 세번째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이런 날엔 사냥이 잘됩니다. 노루나 꿩같은 산짐승들이 먹을걸 찾아 마을로 무리지어 내려오 군합니다.》

《허허, 그것 참 불만하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오성민의 대답에 가볍게 웃으시었다.

《예, 제아무리 날구위는 짐승이라 해도 눈속에 발이 빠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천천히 사냥 총으로 겨냥하면 영낙없습니다.》

《그렇지만 함정이나 웅노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총을 쏘면 류탄에 과일나무들이 상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이의 눈길은 높고낮은 야산들에 한벌 꼭 덮인 어린 과일나무들을 놓치지 않고계셨다. 력사적인 북청회의를 전후로 새롭게 심은것들이었다.

《동무가 이 군에서 일한지 몇년이 되었더라?》

《8년째입니다.》

《음, 그동안 군이 많이 변했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오성민은 마음이 황송해졌다. 군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군안의 인민들이 하나같이 발동되어 일했기때문인것이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서는 떠나가기 아쉽다며 군경내를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있자고 자기를 이렇게 옆자리에 앉혀주시는것이였다.

오성민은 그이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린 안도감보다도 줄곧 조금한 심정이였다. 수령님께서 오전중으로 평양에 도착해야 잠시나마 피로를 풀고

엄성영

예견된 협의회를 지도하시리라는 생각때문이다. 어제도 밤늦도록 어로공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겨울철 물고기잡이정형을 료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느라고 몹시 분망하게 보내신 수령님이시였다.

어느새 처마에 차그마한 간판을 내건 상점과 병원, 오붓한 마을이 소리없이 뒤전으로 밀려나고있었다.

《가만, 여기가 장대마을이 아니요?》

수령님께서 문득 오성민에게 물으셨다.

《예, 장대과수분장지구입니다.》

《그럼 이곳에 그 동무가 살고있겠구만! 과일고장이 부럽다던 그 동무 말이요.》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듯 눈길을 좁히시었다. 오성민이 인차 그 말씀의 뜻을 알아차렸다.

《박덕삼동무말입니까?》

《웁소 그 동무말이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만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야산마다 규모있게 꾸려진 과원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보시려는듯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않으시더니 자못 궁금한 어조로 다시금 물으셨다.

《그 동무가 지금도 일을 잘하오?》

《과수분장을 책임지고 일하더랬는데...》

오성민은 그이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 올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얼마전에 장대과수분장장 사업을 맡고있는 박덕삼의 해임문제가 제기되어왔던것이다.

《왜 무슨 일이 있었소?》

《예, 과수원관리를 잘못한 책임추궁을 받고 지금 자기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수원관리를 잘못하다니?...》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놀라는 기색이시였다.

《그래 본인은 잘못을 인정하오?》

《예, 몹시 고민하고있다고 합니다.》

《고민?》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오성민을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다시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파원에 눈길을 주시었다. 몹시 섬섬한 눈빛이시였다.

오성민은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생각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견잡을수 없었다.

《모를 일이요! ... 그 동무가 어떻게...》

차안에는 납덩이같은 침묵이 흘렀다. 승용차가 나지막한 등성이를 넘어 벼랑바위굽을 돌아섰을

때였다.

별안간 바른컨 산언덕에서 여러명 사내아이들의 활기에 넘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물매가 급한 산경사지를 따라 서로 밀치고 닥치며 눈치치기를 하고있었다. 앞을 다투어 미끄러져내려와서는 좋아라 손뼉을 치며 깔깔거렸다. 그런가했더니 까만 토끼털모자를 쓴 한아이가 산중턱에서 급기야 몸의 균형을 잃고 데굴데굴 굴기 시작했다. 어느새 아이도, 아이의 머리에서 벗어난 토끼털모자도 큰길가에 던져졌다. 산언덕에서는 아이들의 호들갑스런 폭소가 터졌다.

《원, 저런... 운전수동무, 차를 좀 세우오.》

수령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는 길로 굴러내려온 까만 토끼털모자를 집어드시었다. 그러시고는 눈사람이 되어 땡해서있는 소년한테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참 애들두! 장난이 그렇게두 심하다구야...)

오성민은 수령님의 바쁘신 길을 지체시키는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청원했다.

《어디 상한데는 없느냐?》

수령님께서서는 소년의 잔등이며 바지가랭이에 묻은 덩지눈을 툭툭 털어주시었다. 소년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듯 길가에 서있는 승용차며 자기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서계시는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소년의 두눈이 금시 새별처럼 빛났다. 산언덕쪽에서도 환성이 터져올랐다. 수령님을 알아본 아이들이 눈우에 덩굴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달려내려왔다.

《저런, 저런... 이렇게들두 헤덤빈다구야!》

수령님께서서는 애들이 상할세라 손을 내저으며 다가가시었다. 애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차렷자세로 소년단인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너무도 뜻밖에 수령님을 만나뵈게 된 영광과 기쁨으로 하여 그이의 팔소매며 옷자락에 마구 매달려 강충강충 뛰어올랐다. 방글방글 웃음핀 얼굴들은 해바라기처럼 그이를 우러르며 줌처럼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눈오는 날에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느냐?》

그이께서는 품에 안긴 까만 토끼털모자의 임자에게 물으셨다.

《우린 지금 방학입니다. 방학을 하면서 좋은일하기운동을 합니다.》

《좋은일하기운동을 한다?...》

《네.》

고무공처럼 풍풍 뛰어오르던 아이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듯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키가 작은탓에 잔뜩 목을 뒤로 젖히고 아까부터 그이의 모습만 지켜보던 스키모를 쓴 소년이 지치기를 하던 저런 낭떠러지에 내굴린 말장목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이께서는 돌뿌리가 너슬너슬 솟아오른 절벽

밑에 곤두박히고 덧놓이기도 한 말장목들에 눈길이 미치시었다. 그런뒤에 오성민에게로 묻는듯한 시선을 보내시었다. 오성민도 영문을 알수 없었다.

(학교에서 혹시 땡나무가?...)

그가 머리를 젓고있는 사이 수령님께서서는 말장목들이 있는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말장목들은 참나무들인데 모두가 한끝이 뽕넝쿨에 매여져있었다. 말장목들이 모두 말라버린것을보니 눈사태 아니면 바람에 부러지거나 넘어진것들 같다. 어떤 말장목들은 밑둥 한끝이 지치러졌거나 꺾질이 벗겨졌다. 어런것들이 원대에서 그것을 꺾어내느라고 무척 싱갱이질 한 모양이다.

《그래 이 나무들을 가져다 어디에 쓰려고 하니?》

수령님께서서는 소년들에게 물으시었다.

《사과나무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벌쳐주려고 그러니다.》

토끼털모자를 쓴 소년의 대답이다.

《사과나무에?》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오성민은 마음이 긴장되였다. 듣고보니 이미전에 장대과수분장실태자료를 료해하는 과정에 자신도 알고있는 문제였다.

《네, 바다바람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더러 넘어 집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총알처럼 야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눈오는 날에 벌침대감을 구해오는구나.》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안색이 달라지시었다. 드디어 오성민은 온몸이 굳어졌다. 보면 본것대로, 들으면 들은것대로 외우는 아이들때문에 시간이 바쁘신 그이께 별치 않은 일로 공연히 걱정을 끼쳐드리는데만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너희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넌 이름이 뭐냐?》

수령님께서서는 토끼털모자를 쓴 소년에게 물으시었다.

《박용국입니다.》

《박용국이라, 그래 아버지는 뭘하시냐?》

웬일인지 그가 인차 대답을 못한다. 스키모를 쓴 소년이 대신 한걸음앞으로 나섰다.

《과수분장장을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뜻밖이신듯 가볍게 놀라는 기색이시었다.

《그럼 네가 박덕삼동무의 아들이란 말이냐?》

《네.》

《음, 너희들이 정말 기특하다.》

그이께서는 용국의 잔등을 두드려주며 오성민에게로 몸을 돌리시었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이해가 바로 내가 몇년전

에 만나보았던 박덕삼동무의 아들이요. 다른고장에 가서 사과를 실어다 먹인다면 그 박덕삼동무 말이요!》

《예.》

오성민도 그제야 생각이 미친듯 그 소년의 얼굴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허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몇해전 박덕삼을 처음 만나던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2

도당회의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도안의 농업부문 열성자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오후에도 계속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전 토론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류의하시여 앞으로는 로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이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촌경리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과수와 축산도 옹게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를 계속 토론에 붙이시었다. 이미전, 도안에 분포된 과일나무의 종류들과 품종, 년생별 면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하시는 과정에 일부 지역들에서는 딸기나 수그리 같은 정도의 과수류밖에 재배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에 주의가 미치셨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협의회참가자들의 명단을 훑어보시다가 그중 과수면적이 적은 농장앞에서 시선을 멈추시었다.

《장대농장에서 누가 왔소?》

오성민은 앉은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대농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고있는 군의 바다가마을이었다.

《예, 박덕삼이 왔습니다.》

한줄건너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미가 수북하고 얼굴색이 검실검실한 그는 오십에 가까운 중년이였다. 어깨가 쭉 퍼지고 가슴이 담벽같은 그의 몸에서는 어느모로 보나 땅냄새가 폭 뻐, 근실한 농군의 체취가 확 풍겼다.

《동무네는 지금 어떤 과일나무들을 가꾸고있소?》

수령님의 물으심에 박덕삼이 대답을 못했다. 불통불통 마디진 손으로 애들처럼 책상모서리만 만지작거렸다. 오성민은 대답올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리해가 되었다. 장대마을의 과수래야 기껏 산기슭습지대에 널린 몇뼤기의 딸기밭이 고작이었던것이다.

오성민은 그러한 과수실태를 수령님께 박덕삼을 대신하여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그러니 장대마을사람들은 과일철이 되여도 첫물을 맛보기 힘들것구만!》

《예.》

《어른들은 그런대로 참는다쳐도 애들이야 어떻게 달래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으시었다. 오성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 역시 지금껏 골머리를 앓던 문제였다. 자라나는 애들이 때없이 사과를 먹구와할 때도 속수무책으로 굴때은 자책감이 컸다.

《수령님, 걱정을 놓으십시오. 아이들에게도 과일을 먹입니다. 얼마전에 있는 학교운동회때에도 자동차로 사과를 듬뿍 실어다 먹였습니다.》

이번에는 박덕삼이 오성민을 대신하여 말씀을 렴었다. 그이께 더는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굴뚝같이 치민 모양이다.

《그러니 좋아했겠소?》

《예, 무척 좋아들 그랬습니다.》

《그것 보오!》

수령님께서서는 뜻밖에도 그의 대답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마치 박덕삼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튕겨나오리라는것을 미리 예견하고계신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시고나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덕삼동무, 그렇다면 내 한가지 묻겠소. 먼 후날 집에 아이들이 자라 우리고장엔 사과나무가 왜 없는가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주겠습니까?》

덕삼이 대답대신 벌겍게 얼굴만 달아올랐다.

《후대들에게 지금처럼 사과를 실어다 먹이는 방법을 물려주겠습니까?》

《수령님, 제고장은 사과나무를 심을만한 땅도 별반 없는데다 사과나무가 잘 안됩니다.》

박덕삼은 아무런 고려없이 쉽게 대답했다. 오성민은 아연해진 눈길로 박덕삼을 지켜보았다. 무엄하게도 자기혼자의 생각을 수령님께 함부로 내비치는게 썩 마음내키지 않았던것이다. 회의장은 삼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허허 ... 사과나무가 잘 안된다? ...》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긴장된 회의장분위기를 가볍게 녹차히시며 먼저 침묵을 깨뜨리시었다.

《예, 장대마을은 제가 태를 묻은고장입니다. 사과나무를 키우고싶어도 땅이 발라 그저 마음뿐입니다.》

덕삼이 안타깝던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았다. 남들처럼 사과나무를 심고싶어도 과수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데다 농경지가 발라 선뜻 용단을 내리지못하던 일, 다박술과 잡관목투성이의 산이 많아 사람 못살 고장이라고 나무라며 과일이 나는 고장이 부러워 은근히 남몰래 넘보던 일...

그이께서는 덕삼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덕삼동무, 장대마을의 산들에 다박술말구 또 무슨 나무가 자람니까?》

《가독나무도 있고 살매나무도 있습니다.》

《물푸레나무도 있겠소?》

《예, 잘 자랍니다.》

《그렇다면 신심을 가지고 해보시오. 가독나무가 있고 물푸레나무가 자라는곳에 과일나무가 안되는법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과일을 먹는것을 큰 숙망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집주위에 과일나무를 몇그루씩 심기는 했지만 자주 쫓겨다니다니 제대로 먹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패무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입에 큰 대통이나 물고 정사나 짓고 기생놀이나 하면서 제 하나의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만 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숙망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현실로 되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마디마디에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된 드물지않는 하나의 굳은 신념이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승엄한 기분으로 그이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넣었다.

《그런데 방금 덕삼동무의 말을 듣고봐도 그래 지금 일부 동무들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래 산이 많은 고장이라고 저마다 타발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정색한 표정을 띠시고 물으시였다. 장내는 바늘귀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듯 조용하였다. 그이께서는 긴장된 장내의 분위기를 돌려세우려는듯 다시 어조를 바꾸어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과일나무를 심을만한 산이 많습시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산을 다 일구어 파수원을 만든다면 거기에서만도 우리는 큰재부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귀중한 재부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전국의 야산들을 과일동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큰 회의도 하자고 합니다. 난 미국놈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오늘을 생각하고 과일나무모를 이미 기르도록 했습시다.》

순간 오성민은 안타깝던 가슴이 활 열리고 눈앞이 탁 되었다. 박덕삼이 참지 못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수령님, 우리 장대마을에서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야산을 일구어 파수원을 만들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배짱이 맞습니다. 난 덕삼동무가 꼭 그렇게 나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몹시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오성민에게 눈길을 보내시였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장대마을부터 먼저 나무모를 보내줍시다.》

《알았습니다.》

오성민이 차렷자세로 대답올렸다.

...

몇년전에 있는 일을 회억하시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박용국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장대마을 박덕삼동무를 만나보고 갑시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그 동무를 꼭 만나봐야겠소!》

잠시후 승용차는 오던길을 되돌아서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3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박덕삼을 찾아가는 오성민의 마음은 사뭇 송구스럽고 착잡하였다.

(수령님께서 왜 굳이 그를 만나려고 하실까? 박덕삼은 무슨 낯으로 수령님 앞에 나서겠는가? 더구나 이번 길이야 좀 바쁘신 길인가!)

머리속에 거품내기로 떠오르는 생각은 홀날리는 눈송이처럼 갈피를 잡을수 없이 오락가락하며 의혹만 자아냈다.

《오성민동무, 박덕삼동무를 더러 만나봤습니까?》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수령님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예, 몇번 만났더랬습시다. 성실하고 책임적인 동무이긴 하지만 사업에서 타산보다 주관이 앞서기때문에 왕왕 물의를 일으키고 분장의 로력과 재산에도 적잖은 손실을 끼쳤습시다.》

오성민은 조심히 말끝을 맺었다. 그는 박덕삼의 해임문제가 일정에 오른 지금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사람들의 뒤시비질이 터무니없는 빈소리가 아니라는 사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결핍하면 주관적용망을 앞세우는 그가 장차 또 무슨 재구를 칠지 알수 없었기때문이었던 것이다. 물론 당분간이겠지만 오히려 그런이 덕삼이를 위해서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망설이고있는중이였다.

《그러니 직접 만나봤단 말이지요?...》

그이의 음성은 썩 낮으시였다. 오성민은 빠른 눈길로 그이의 얼굴모습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깊으신, 무거운 안색이시였다.

오성민은 속으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박덕삼이 야속했다.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가 일을 그르치지 않았던들 수령님의 마음이 저리도 무거울수 있으랴, 급한 길을 이렇게 돌려세우기까지했으랴, 한편 그런 덕삼이를 평소에 잘 일깨워주지 못한 자신이 은근히 가책되기도 했다.

어느덧 승용차는 눈덮인 실개천을 옆에 낀, 아담한 단층문화주택앞에서 조용히 멎어섰다. 동구길에서 분장적인 휴식일이란것을 알아낸 오성민이 수령님을 모시고 덕삼이네 집까지 온것이다!

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천천히 마당가로 들어서시였다. 뜰오래는 꽤 넓었다. 두둑한 앞뜰은 마늘같은것을 심어놓고 그우에 북데기를 썬워놓았는가 했더니 눈범벅이 된 덩불속에서 삐죽얼굴을 내민것은 꼬트머리가 밧그레한 나무모들

이었다. 적지 않은 면적의 《나무모발》이다. 바람을 가리느라고 설단을 둘러친 울바자옆에도 굴뚝모퉁이에도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배나무들이 줄서서 서있었다.

《허허 집오래가 온통 과일나무로군!》

수령님께서는 어디 뻗뻗한데라곤 없는 뜰오래를 이윽히 둘러보시며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오성민은 그이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자 송구스럽게 여겨지던 자신의 마음도 한결 풀려지는 것 같았다.

《예, 정원과수를 심고 가꾸는데는 덕삼동무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것 같소. 동네의 모든 집들이 이렇게 정원과수속에 묻히면 얼마나 좋겠소!》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박덕삼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마당가에서 울리는 귀익은 음성에 대뜸 그이를 알아본 모양이다.

《수령님!...》

덕삼은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채 퇴마루의 디딤돌을 내려섰다.

《박덕삼동무, 오래간만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마주 다가가시여 웅이 박힌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어느새 박덕삼의 눈귀가 축축해졌다. 몇해전에 잠깐 만나주신 자기를 지금껏 잊지 않으시고 몸소 찾아주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수령님, 방이 루추하지만...》

박덕삼이 그이를 방으로 안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미소하시며 오성민에게 말씀하셨다.

《주인이 권하는데 우리 잠깐 들렀다 갑시다.》

집안은 밝고 정결했다. 대우를 낸 장판바닥은 거울알처럼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다. 반쯤 터쳐놓은 장지문사이로 옷방에 놓인 화분들이 드러났다. 화분에는 꽃포기대신 나무모가 심어져있었다.

《이건 사과나무모가 아니요?》

수령님께서는 자못 의혹이 실린 눈길로 그것들을 살펴보셨다.

《예, 설탕바람에도 견딜수 있는 나무모를 얻자고 이미전에 접붙이기를 해본것들입니다.》

《덕삼동무가 말입니까?》

수령님께서는 옷방이 좁다하게 놓인 화분들을 세삼스럽게 둘러보신 다음 오성민이한테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오성민은 말없이 얼굴만 붉혔다. 박덕삼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뒤로는 그에 대해 미처 관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드문히 덕삼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를 만나 다시 힘도 주고 생활형편도 알아보리라 속

으로만 욕벌러왔을뿐 일이 바쁜 핑계로 그럭저럭 오늘까지 미루었었다.

수령님께서는 오성민에게서 창문가에 놓인 얇은뱅이책상으로 시선을 옮겨가시었다. 책상우에는 여러장의 종이가 모양없이 널려있었다. 방금 전까지 마주앉아 일한 흔적이 력력했다.

《오늘이야 분장휴식일인데 폭 설겜 그림니다. 혹시 너무 무리하는게 아닙니까? 전보다 몸이 축간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직 고뽈 한번 앓지 앓고 지냅니다.》

《허허 그렇다면 좋습니다. 참 종전에 내가 길가에서 용국이를 만나봤습니다.》

《예?!》

박덕삼이 금시 놀라는 기색이였다. 집에서 막둥이로 응석을 쓰며 자랐으니 수령님 앞에서 무엄하게 굴었을것만 같아 저으기 걱정되면서도 집안의 큰 경사로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막냉이라고 제가 버릇없이 키우다나니 응석이 심합니다.》

《허허 아닙니다. 애가 워낙 툄툄한데다가 사내답게 생겼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오성민을 돌아보며 가볍게 웃으시다가 책상옆에 놓인 한장의 그림을 집어드시였다. 크레용화였다. 사과나무들이 하늘높이 키를 솟구고 가지마다에 호박같은 사과알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림으로는 사과상자를 가득 실은 자동차까지 달리고있다.

《용국이가 그랬습니까?》

《예.》

수령님께서는 그림에 다시 눈길을 주시였다. 비록 원근법이 무시되고 색조화가 잘되진 못했어도 그림에는 나라의 재부를 귀하게 여길줄 알고 그것을 가꾸고 키우려는 소박한 기원이, 뜨거운 숨결이 깃들어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용국이의 그림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왜서인지 그 그림에서 어제날 박덕삼의 모습을 보는듯싶고 그럴수록 그가 과수원관리를 잘못한다는게 어쩐지 잘 믿어지지 않으셨다.

수령님께서는 동안이 지나서야 손에 쥐신 그림을 천천히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덕삼이에게 물으셨다.

《지금 뭘하겠습니까?》

《분장의 영농계획을 다시 검토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의 모습앞에서 오성민은 한결 마음이 풀리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자기 고민과 번뇌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덕삼이를 그이께서 만나보시게 될가봐 줄곧 가슴을 죄여온 오성민이

였다.

《어디 좀 봅시다.》

수령님께서 책상앞으로 바투 다가앉으시여 영농계획서의 갈피들을 한장한장 번져나가시였다. 덕삼이 송구스럽게 앉아있었다. 잘 맞지도 않는 로력타산이며 쓰고 지우고 다시 쓴 사과나무번침 대소요량이 제판에도 믿음이 적었던 모양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채 여물퀴지지 못한 그 수자속에서도 분장살림을 두고 안타까와하는 그의 진정을 읽을수 있었다. 그 진정이 뜨겁게 느껴질수록 어딘가 그의 소행이 석연치 않게 여겨졌다.

《덕삼동무, 내 한가지 묻겠소.》

수령님께서서는 갑자기 정색한 표정을 띠시고 박덕삼을 바라보셨다. 순간 오성민은 온몸이 긴장해졌다. 수령님께서 문제의 그 바람코숭이호원에 대해 물으실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박덕삼이 일을 그르치도록 방심한 자신의 일본새를 두고 못내 섭섭해하실것 같았다.

《동무가 분장장을 하면서 과수원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게 사실입니까?》

몹시 엄한 물으심이었다. 오성민은 대답없는 덕삼의 얼굴을 살폈다. 어지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동안이 지나서야 자신을 수습한 그가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다는 대답을 올렸다.

《벌써 힘에 부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만 수령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더 깊숙이 머리를 숙이는 그를 의아스럽게 지켜보셨다.

《수령님, 제가 욕심만 앞세우던 나머지 술한 사과나무를 죽였습니다.》

덕삼이 스스로 장대봉의 바람코숭이에 심은 사과나무들이 바람피해를 본 사실을 말씀올렸다.

승기를 부리는 바다바람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땅속깊이 뿌리를 내리기 저어하고 설사 뿌리를 내렸다 해도 제대로 자라오르지 못하던 일, 그통에 적잖은 사과나무들을 죽이고 나중엔 사람들의 말밥에까지 올랐던 일...

《수령님께서선 과원을 꾸려 후대들에게 재부로 물려주라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 나무들을 죽인걸 생각하면... 수령님, 전 그 어떤 책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덕삼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고있었다.

오성민은 그런 박덕삼을 차마 마주보기가 딱했다. 바람코숭이만은 고려하자는 주위사람들의 의견을 진작 받아들였다면 수령님께 이런 잔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잠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오성민은 자책감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수령님, 제 책임이 더 큼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은망덕하고... 수령님의 뜻

을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분장을 책임지고 계속 일할수 있겠습니까.》

《덕삼동무, 일하느라면 파오를 범할수도 있지 뭘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삼동무가 어쩌면 그럴수 있습니까? 어디 말해보시오. 그게 동무의 진정입니까? 진심인가 말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몹시 격한 심정이시였다. 말씀은 엄하게 하시지만 피로운 마음은 종시 달랠길이 없으신듯 덕삼에게서 안타까운 눈길을 떼지 못하고계셨다.

《나는 그래도 이 장대마을을 지날 때면 덕삼동무생각을 먼저 했는데 동무는...》

《수령님!...》

마침내 덕삼은 그이앞에서 머리를 푹 떨구고 말았다. 가볍게 그의 어깨가 오르내리고 조용한 방안에 흐느낌소리가 한동안 흘렀다.

《그만하시오. 동무가 책벌받을 각오가 돼있으면서도 이렇게 분장일을 두고 걱정하니 내 마음이 놓입니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덕삼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자책으로 피로와하는 그의 마음을 가볍게 녹였으며 따뜻한 말로 풀어주시였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어떻습니까? 나는 사과나무가 땅우에서만 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오성민은 어망중에 대답했다. 사실 그는 덕삼이를 만나서도 수령님께서 손땀을 놓고있을 그를 알게 되면 어쩌랴싶어 은근히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니 그 말씀의 뜻도 새겨볼 경황이 없이 쉽게 대답해 버리고만것이다.

《그런데 사과나무들에 이렇게 많은 받침대를 꼭세워야 합니까. 다른 방도는 없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영농계획서에 눈길을 주시며 물으시였다. 박덕삼이 급히 머리를 들었으나 인차대답을 못했다. 어제밤에도 사과나무를 살려낼 생각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였다. 바람코숭이호원을, 파도소리 높은 바다가를 돌아보며 안타깝게 방도를 모색해온 그의 눈귀로는 잔주름이 실그물처럼 얹혀있었다.

《수령님, 아직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못찾았던 말이지요?》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뇌이시며 덕삼을 바라보시였다. 만족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의 얼굴에는 마음속 피로움이 그대로 내비치고있었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우리 시간이 바빠도 덕삼동무의 발자국이 찍힌 과원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고개를 숙인 오성민이쪽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오성민은 의아함을 숨기지 못한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우에서는 은백색 눈가루가 마구 흩날리며 해빛에 반짝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구길을 벗어나시자 제창장대봉기슭의 자드락길로 접어드시었다. 아직 땀이나 노루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솟눈길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었다.

오성민은 수령님을 따라나선 경황없는 가운데서도 박덕삼에 대한 야속한 생각을 지울수 없었다. 지금껏 바람코숭이호원을 놓고 그가 굳이 뿔을 세우지 않았던들 이렇게 눈덮인 과원에 수령님을 모시게 되지는 않았을것이였다.

오성민은 안타까운 생각으로 그이께 눈길이라도 내드리려고 술가지를 꺾어들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원래 눈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오래동안 싸우다나니 눈길을 걷는데는 리력이 텅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성민을 가볍게 막아나서시며 눈속에 묻혀 두리몽실해진 자드락길의 기복도 쉽게 알아보시고 앞장에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가시였다. 그렇게 자그마한 산등성이에 오르시자 그이께서는 잠시 멈춰서시여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뉘엿한 산경사지를 따라 바둑판무늬로 수놓아진 과일나무들이 바다가까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졌다.

《과수원이 참 굉장합니다. 사과나무들이 사람에게 비유하면 모두 청소년시절을 맞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맞받아오는 풍광도 싱그럽게 맞으시며 열려진 바다의 수평선 멀리까지 시선을 보내시였다.

《예, 그때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덕삼동무랑 장대마을사람들이 떨쳐나 심은것들입니다.》

오성민은 자주 숨이 격격 막혔다. 바다쪽에서 시작된 하늬바람이 산허리에 와부딪치면서 눈보라를 일으킨것이다. 비자루같이 허영계 내불리던 입김은 눈에 뜨이기 바쁘게 형체를 감춰버렸다.

《이 동무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기에는 배나무가 있고 이쪽으로는 사과나무가 쪽 뽕달아있으니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인젠 동무들이 큰 횡재를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해안까지 아득히 뻗어간 과원마다에 주렁질 과업을 그려보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였다.

오성민은 가슴이 몽클했다. 뉘덕에 이렇게 과일동산이 꾸러졌길래 오히려 그 수고를 마을사람들속에서 헤아려보신단 말인가! 열없이 서있던 그는 기쁨에 넘치신 그이의 결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말쑤올렸다.

《수령님, 인젠 여기 장대마을에 산이 많아 못

살고장이라던 사람도 과일고장이 부러워 별방으로가겠다는 사람도 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쁩니다. 동무들이 제힘을 믿고 이렇게 큰 재부를 마련해놓았으니 인젠 그럴만도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과원을 한눈에 담으신채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 장대를 종턱까지 오르시자 덕삼이가 해안을 향해 흑처럼 툭 뻗여진 곳을 가리켰다.

《여기가 바람코숭이호원입니다.》

그가 채 말끝도 맺지 못했는데 바다쪽에서 불어온 세찬 바람이 산기슭을 짊으면서 갑자기 뽕안눈가루를 말아올렸다. 그리고는 앙상한 사과나무가지에 매달려 뽕뽕 울부짖었다.

그이께서는 한그루의 사과나무앞으로 다가가시여 아직도 가지에 남아있는 눈을 가볍게 흔들어터시였다. 그러시고는 밀둥으로부터 가지끝까지 쪽 더듬어 살피시였다. 하늘을 향해 쪽쪽 키를 솟구어야 할 어린 사과나무는 벌침대에 의지하여 간신히 제몸을 지탱하고있었다. 한번 얼핏 봐도 원대가 휘고 가지들이 제대로 뻗지 못했다는게 험동하게 알렸다.

《어린 나무인데 바람에 몸이 시달렸구만! 전엔 여기에 무엇이 섰겠습니까?》

《다박술밭이였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랬을겁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성민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시며 수궁하시고나서 덕삼이에게 물으시였다.

《봄철에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니까?》

《예, 바람질이 여간 세차지 않습니다.》

《그럼 꽃수정에도 지장이 크겠구만.》

《...》

덕삼이 대답을 못했다.

《아직 나무가 작은데도 이모양인데 장차 열매가 달릴 때면 어디 성한 과일을 제대로 따내겠습니까?》

《수령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덕삼은 과일나무를 심겠다는 욕심만 앞세우던 나머지 바다바람이 세찬 이곳까지 과원을 꾸려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릴줄은 미처 몰랐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이 동무들이 정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침대나 세워가지구 사과나무가 끝까지 견딜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성민의 의향을 물으시였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웁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덕삼동무의 욕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

순간 오성민은 가볍게 놀랐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어떻게 리해해야 좋을지 잘 가늠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바람코숭이호원으로 놓고 말

하면 사실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었다. 버리자니 공들여 키운 품이 아깝고 가꾸자니 바람피해가 무서웠다. 그렇다고 더 이상 주저할수가 없어 오는 봄부터는 이 사과나무들을 잠풍한 다른곳으로 옮겨심을 생각이였다. 그런데 현지를 밟아보신 수령님께서 덕삼의 욕심을 높이 평가하고계시지 않는가.

《좀 섭섭한게 있다면 아직도 장대마을사람들의 욕심이 어딘가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덕삼동무, 저건 기습은 왜 그냥 놀립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무중 바람코숭이호원이 끝나는 경계선을 가리키시며 물으셨다. 다박술이 들성들성 널린, 벌겋게 흙이 드러난 척박한 땅이였다.

《저런곳에 살구나무를 심으면 일찍 먹을수 있는 딸기나 늦게 먹는 사과철사이에 살구를 끼여 먹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대마을사람들이 사철 신선한 과일을 먹을수 있습니다.》

《수령님!...》

박덕삼의 주름잡힌 눈귀에 이슬이 피여올랐다.

《지금 당장은 바람피해를 막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군인민위원장동무, 뭘 좀 생각해본게 없습니까?》

오성민은 대답을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대답없는 오성민에게서 파도사나운 바다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시였다.

《나는 저 바다가에 바람막이숲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다.》

《예?...》

오성민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금시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말씀대로 하면 공들여 키운 사과나무들이 모두 제구실은 할수 있겠지만 한두키로메터도 아닌 그 넓은 바다가에 무슨 수로 바람막이숲을 세운단 말인가. 가끔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될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해본 일이였다.

《수령님, 저희들도 더러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코숭이를 위해서라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도 엄청난것입니다.》

《그래 그제 아깝단 말입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시였다. 그리고는 자못 의아쩍으신 눈빛으로 오성민을 바라보셨다.

《예, 암만 타산해봐야 참새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격 한가지입니다.》

《대포로 새를 잡는격이라... 그럴듯한 소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해야 옳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오성민과 박덕삼에게 똑같은 물음을 제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도 그 물음을 받으신듯 그자리에서 몇걸음 옮겨 거닐으시다 가볍게 멈추시고 멈추셨다가는 다시 거닐으시였다.

문득 그이께서 오성민에게 얼굴을 돌리시였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이 바람코숭이호원도 조국 땅의 한 부분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걸 생각해봤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것 같지만 앞으로 수백, 수천년을 내려가면서 장대지구의 이런 바람코숭이들에서 쏟아질 과일량을 타산해왔습니까?》

그런데도 이 코숭이호원이 참새 한가지겠습니까, 아마 고래맛잡이나 같을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고래라면 포를 쏘만도 하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순간 오성민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무심히 한 말 한마디에도 그이께서는 얼마나 사려깊은 명철한 분석과 확고한 과학적담보가 안배된 대답을 주시는것인가.

오성민은 그이앞에서 너무도 불손하게, 경망하게 물었다는 느낌이 들며 마음을 죄었다.

《만약 이 바람코숭이를 불모의 땅이라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지금으로부터 수십, 수백년이 격세된 먼후날 우리의 후세들이 오늘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남들이 기차타고 다닐 때 갓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던 조상들을 원망하듯 만들겠습니까? 우린 제 당대나 잘먹고 잘살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후대들을 위한 일입니다.》

스스로 머리가 숙어지게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오늘뿐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조국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는 얼마나 웅심깊은 도량과 예지, 은정깊은 사랑이 깃들어있는 것인가. 그런 요구에서 볼 때 과연 이 바람코숭이가 참새한가지겠는가.

오성민은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어찌하여 가슴에 다 새기지 못했는지, 어찌하여 후대앞에, 민족의 력사앞에 그리도 린색하고 웅졸한 생각을 품었는지 자기로서도 의문스러웠다.

수령님께서서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그의 얼굴을 지켜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흔히 사람들이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본의아니게 사물을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바람코숭이도 그자체만 놓고볼때는 무의미할수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 인민의 념원, 지향이 깃들어있다는것을 고려할때 지금처럼 쉽게 속단하기는 이를것입니다.》

오성민은 가슴이 띵떵했다. 소스라치듯 자기 생각에서 깨어났다. 지금껏 바람코숭이호일 그자체만을 놓고 고립무원하게, 동떨어진것으로 경원시해온 자신의 처사야말로 얼마나 협소하고 근시안적인가. 진작 그런 시점에서 벗어났더라면 이 바람코숭이도 고래맛잡이로 봤을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와보기를 참 잘했습니다. 덕삼동무는 어벌이 크게도 바람코숭이에까지 사과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우리가 미처 잘 도와주지 못

했습니다. 비록 사과나무 몇그루는 손해봤지만 향토를 가꾸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동무의 수고가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애국가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이윽도록 박덕삼을 바라보시었다. 덕삼은 순간에 받아안은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믿음으로 하여 종시 머리를 외로 돌리고있었다.

오성민은 눈곱이 달아올랐다. 수령님께서 지금 덕삼이를 얼마나 높이 내세워주시는가! 자신은 오히려 그런 덕삼이를 두고 수령님께 걱정만 끼쳐드린다고 얼마나 청원해왔는가.

그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막급한 후회로 하여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때문에 한 인간의 운명이 어떤 곡절을 겪을번했는가. 용국이와 같은 새 세대들의 순박한 지향이 나래도 퍼기전에 꺾일번하지 않았는가!

《놀고먹는 이 바람코숭이를 두고 말하면 장대마을에서 옥에 티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허지만 그 티마저 가슴에 걸려 가꾸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나는 덕삼동무의 마음을 높이 삽니다. 채부란게 별다른것이겠습니까. 제 고향을 가꾸고 제 나라를 빛내이려는 그 마음이 채부중의 채부가 아니겠습니까!》

순간 오성민은 눈보라의 울부짖음도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도 느끼지 못했다.

《내 언젠가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땅이 넓은 남의 나라를 넘보거나 부러워하지 않으며 금수강산 내 나라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우린 사과나무가 바람코숭이에서 크기전에 먼저 덕삼동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란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오직 그런 립장, 그런 관점을 견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장차 이 땅우에 더 큰일을 해놓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세상에 더없이 큰 채부입니다.》

《수령님!》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오성민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렸다. 자신은 지금껏 무엇을 채부로만 생각해왔는가. 파원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직접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속 진정을 왜 그렇게도 소홀하게 대해왔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쁘신 길도 뒤로 미루시고 박덕삼을 찾아주신 로정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졌다. 그이께서 박덕삼을 만나보시고 왜 마음을 놓는다고 하셨는지, 바람코숭이호원을 돌아보시고 왜 박덕삼의 욕심을 높이 평가하셨는지 비로소 석연하게 이해되었다.

오성민은 뿜어오르는 가슴속 걱정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만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수령님께 서는 톱날처럼 들쭉날쭉한 산봉우리들이며 가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를 주름잡아 굽어보고계시었다. 그이의 안광에서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셨다.

《동무들, 저 바다가를 따라 언덕을 쌓고 바람막이숲을 세웁시다.》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눈가루를 휘말아올리는 바다가쪽에 손을 높이 들어 가리키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군인민위원장동무, 쌓아올린 언덕에는 잘 자라는 아카시아나 백양나무를 심읍시다. 물론 아름답찬일이지만 동무가 인젠 그 예비를 어디에서 찾아야한다는것을 알고있으리라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성민은 기운차게 대답올렸다.

《바람막이숲이 우거질 때면 이 사과나무에서도 한창 열매가 달릴겁니다. 그때 가서 동무들은 뺨가지들을 숨아다 지금처럼 나무부침대가 아니라 열매가지받침대로 쓰시오.》

《수령님 고맙습니다!》

덕삼이 목이 메여 그이를 우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투자락을 날리시며 바람막이숲에 안긴 래일의 파원을 굽어보시는듯 산발을 따라 쪽 시선을 옮겨가시었다. 해빛은 마냥 파원에 넘치고있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 파도소리높던 바다가에 세계 굴지의 과일생산기지 100리청춘과원이 일떠섰다.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오성민은 오늘도 즐겨이 파원을 찾아오군한다.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현실은 어언 30여년의 세월을 소급한 과거를 증명했고 또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고있다. 길차게 자란 파원의 년륜에서 그는 자신을 더듬어 인생을 총화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하면서 당의 구상따라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두고 수십, 수백년이 흘러간 먼후날 후세들이 오늘의 사람들을 어떻게 추억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군한다.

헌시

박팔양

열네살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압록강가에서 다지신 맹세

그 맹세 지켜
인류의 력사가 일찌기 모르는
수십년 세월의 피에 젖은 고난을
끝끝내 이겨내시고
조국을 안고오신
위대하신 수령님이시여

눈보라 휘몰아치는 산과 들
주름잡아 달리시던 그 험난한 세월에
그 어떤 원쑤 그 어떤 고난이
앞을 막을수 있었으리까

오직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낮과 밤 귀중도 하옵니다
당을 무으시고 정권을 세우시며
인민무력을 창건하신
만대토록 길이 빛날 그 위훈

보통강에서 첫삽도 뜨시고
침식을 잊으시며 눈비를 맞으시며
조국의 방방곡곡 찾으셨나이다
아 위대하신 어버이이시여

태평양 건너 온 미제가
민족을 도살하려 피거품 물 때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손수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시였기에
승리의 합성 높이 울려했나이다

일제를 혼썰내시던 예지로
수많은 련합무력 쳐부시여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을 구원하신 수령님!

동서양 만국을 놀래운 기적
승전후 다만 몇년 세월

옛 전설의 거인처럼 우뚝 일떠선
천리마 조선의 찬란한 건설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
누리에 빛나는 주체조국의 영광은
수천년만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이 비쳐주신 해살입니다

조국의 한끝 온성땅 왕재산에서도
수령님 동상과 봉화탑 우러러 뵈옵는
우리 인민의 마음 승엄도 하옵니다
두만강 물결조차
조국진군의 휘황한 력사 깃든
영광의 산을 감돌며 설레며 흐릅니다

태양은 언제나 동방에서 오르옵거니
만백성을 온갖 예측에서 구원하시는
동방조선의 주체의 밝은 해살이
수령님 영상으로 눈부시오매
압제의 온갖 귀신들이
어둠을 찾아 숨어들며 사라지면서
죽음의 마지막소리 지릅니다

인류가 태고적부터 바라며 꿈꾸던
지상천국을 현실로 마련해가시며
공산주의락원 지구에 설계하시니
유구한 인류력사 금문자로 빛내이십니다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모든것을
그대로 체현하고계시여
영명하게 인민을 이끌어주시는
김정일 동지를 모신 끝없는 영광의 환호성소리
온 누리의 하늘땅을 뒤흔듭니다

세계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이
그리고 수령님 품에서 새삶의 길을 걸어온
저의 심장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궁토록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며
만세 만만세를 높이 부르옵니다
(이시는 1981년 9월에 창작된 작품이다)

어버이

강인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자기 수령을 어버이로 부르는것은 우리 인민만이 즐겨부르는 존칭이며 생활체험속에서 습관된 호칭이다.

어버이! 한 식솔이래야 열명, 한 가문이래야 수십명을 더 넘지 못하는 세간살이에서 어버이라 하면 가문의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느라고 참말 수고가 많다. 그래서 같은 피줄을 가진 한가정속에서도 때로는 얼굴 붉히는 일이 없지 않으며 때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곤한다.

그러할진대 이 나라 수천만 식솔들과 가정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의 어버이수령님의 수고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랴!

이 땅에 생의 뿌리를 내리고 삶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그리며 티없이 맑은 목소리로 《어버이!》, 《어버이수령님!》이라고 부르고 우러러 따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그이시야말로 온 나라의 천만자식을 안아키우느라 갖은 풍상고초를 겪어오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시다. 그이시야말로 인류의 영원한 삶의 태양이시며 정신적인력의 중심이시며 인생좌표의 기둥이신것이다.

1

우리의 어버이 **김일성** 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을 마련하신 위대한 가장이시다.

세상에는 위인들의 한생에 대한 무수한 평가와 찬탄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어버이수령님처럼 사상이 위대하시고 령도가 위대하신 참위인은 아직없다.

물론 자본론의 저술로 명성을 떨친 위인도 있고 실천적으로 사회주의 첫 국가를 세운 수령도 있어 령사는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인류 령사는 한나라안에서의 혁명의 개척기와 전성기를 다 펼치며 그 승리의 필연성을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한 수령은 모르고있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 그에 맞장구를 치던자들이 쓰디쓴 실

패와 진통을 겪고있는 현시점에서 세계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탁월한 령도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세기의 언덕우에 거연히 일떠세우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 동지의 불멸할 세계사적공적에 삼가 경의를 표하고있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어둡던 밤하늘에 솟아오른 찬란한 새벽, 그 새벽 우러르며 깃발한 강토에 동은 트리라 굳게 확신한 우리 인민! 남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제힘을 믿고 제 손으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심원한 철리를 누리에 밝은 빛으로 뿌리시며 《ㄷ. ㄷ》의 가치를 높이 드신 한별동지! 휘날리는 그 가치를 따라서 령사의 기슭을 떠나온 우리 혁명!

주체의 닳을 올리고 자주시대의 대양을 향해 도도히 난바다를 헤치기 시작한 령사의 그 순간은 깃눌리우고 수난에 찬 겨레의 가슴속에 재생의 불빛, 광명과 희망의 해빛을 안겨준 인생의 봄우뢰였고 주체혁명의 장중한 서곡이었다.

《...그때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한별동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쳤습니다. 비록 한별동지보다 거의나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도 비범하고 예지롭고 담대한 한별동지께 완전히 매혹되었었지요. 그것은 이미 20대이전의 젊디젊은 나이에 주체적인 전위조직을 내오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히신 한별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에서 우러나온 숭고한 사상감정이었던것입니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사 황귀헌동지가 새 세대 청년들과의 상봉모임에서 한 말이다.

참으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령사를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에는 위대한 사상이 있어야 했다. 바로 그 위대한 사상은 인민속에서 태어나시여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칠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의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불멸의 사상이었다.

혁명투쟁에는 위대한 지도사상과 함께 위대한 령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전인미답의 항로를 밝혀준 진리의 등대가 있다 해도 그 목적지까지는 사나운 풍랑과 폭풍, 암초가 예상외로 앞길을 가로막을수 있다.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헤치고 맞받아나가며 가장 빠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투쟁의 방향타-향도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우리의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을 창시하시고 그 승리를 위해 필승불패의 빛나는 정도로 우리 인민과 혁명을 즐기치게 이끌어오시었다. 하여 짓눌렸던 이 강산에 해방의 새 봄을 안아오시었다.

해방된 조선은 과연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돈있는 사람은 돈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새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 바로 이와 같은 독창적이면서도 탁월한 정도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의 휘황찬 길을 밝혀주시었다.

누구이든 높이높이 올라선 오늘의 사회주의 언덕우에서 지나온 혁명과 건설의 역사를 더듬어보라. 그러면 심장으로 느끼리라.

비범한 예지와 전범으로 한세대에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쳐물리치고 영웅조선의 존엄을 빛내이신 강철의 령장, 자력갱생의 봉화를 손수 추켜드시고 강선의 흰눈덮인 구내길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시며 천리마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그 손길, 성스러운 투쟁의 년대와 년대마다에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여 세기적인 전변과 기적을 조국땅우에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

정녕 백전백승의 당을 이끄시고 백절불굴의 인민을 이끄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오늘처럼 지구우에 빛나기까지에는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가 있어야 했다. 아, 위대한 아버지의 로고어린 한평생이 있어야 했다.

2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동지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민의 자주성을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삶의 은인이시다.

경사로운 4월의 봄명절을 맞는 사회주의강산을 한번 굽어보라.

수도의 거리거리에 궤도전차의 경쾌한 동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온 나라, 온 세상이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는듯, 행복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축원의 노래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왜 이토록 뜨거움에 젖어들게 하는것인가.

생신날 하루마저 쉬지 않으시고 친히 농장의 밭고랑에 밭자욱 옮겨가시던 아버지수령님! 그날의 자욱자욱은 참으로 인민의 아버지만이 찍으실수있는 사랑과 은정의 자욱이었거니 물어보자 조국이며, 사회주의 강산이여! 너의 어느 끝짜기, 어느 구내길에 아버지의 자욱이 깃들지 않은곳 있느냐!

때문에 이국의 들가에 핀 한떨기 꽃을 봐도 내 나라의 꽃보다 곱지 못하고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의 샘처럼 달지 못한것이다.

지난해 9월이었다. 한 해외동포 녀류작가는 시

내근로자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었다.

눈에 띄이는 붉은색치마저고리를 입고 술술 우거진 유원지에서 명절맞이무대에도 스스로 나선 그는 조선민요 몇곡을 숨씨있게 넘겼다. 관중들은 재청에 또 재청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먼곳에서 온 손님인데 혼자서 계속 무대를 차지하면 되겠는가 하고 하면서 한 일군을 지명하였다.

그리고는 《나는 오늘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모시고 여기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니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 무슨 걱정을 터뜨리기엔 작가의 풍부한 어휘로서도 부족한 까닭이었을가...

점심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의가 어린 음식을 동석한 일군들과 작가들에게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솔직히 전 공화국남반부에 친척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번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그곳에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7천만 민족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 계시는 평양을 가보기전에는 조국땅 그 어디든 가보고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단코 평양으로 온것이예요.》

너무도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오늘아침 호텔에서 안내원에게 자기가 **김일성** 주석님의 초상휘장을 모실수 없는가고 물었더니 글썽 그 소원이 쉽게도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사실 처음 평양에 도착하여 며칠동안은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것이였다.

체류의 한주일이 지나고 두주일이 지나면서 그는 새삼스러운것, 그러면서 또 너무도 당연한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이 자기의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과 존칭의 의미였다.

《방송을 들어도 신문을 봐도 거리에 나가 아이들을 만나고 공원에서 로인들을 만나도 그렇고... 모두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수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체조선인민이 마음속 진심으로부터의 흠모와 경의와 존경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조선인민만이 부를수 있는 수령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이며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의와 충정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왜 사회주의조선이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큰소리를 치며 것처럼 신념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고있는가를 심장으로 느끼었다는것, 평양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의 뜻을 수령과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쳤다는 의미로 수월히 리해할수 있었다고 흥분

에 넘쳐 말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지난날 천대받고 버림받던 수난의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주신 운명의 어버이이신것이다.

세계지도우에서 조선이라는 그 이름이 빛조차 없었던 암흑시대에 먼 나라 인디아의 시인 타고르가 아시아에 황금시대기 도래하면 조선은 등불이 되리라고 노래한것은 마치 력사의 그 어떤 예언인듯도싶다. 대기 도래하면 조선은 등불이 되리라고 노래한것은 마치 력사의 그 어떤 예언인듯도싶다.

몇해전 우리 나라에 왔던 마다가스까르 창작가 랄라이나리브 노엘 하르베이는 어버이수령님 탄생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헌시를 썼다.

...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마디마디
자주의 귀중한 가르치심 되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나니
우리 그 말씀에 귀기울입니다

언제나 인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그마한것까지 다 풀어주시며
온갖 심혈 바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
헤아릴길 없이 부드럽고 따사로운
그이의 손길 잡아본 영광 끝없습니다

끝없이 다정하고 인자하신 그이의 목소리

들으면 감격에 눈시울 뜨거워지고
온갖 시름 가뭇없이 사라지기에
백번천번 듣고 또 듣고싶습니다

그처럼 숭고하신 풍모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처럼 위대하신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모두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만년 장수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을 어버이로, 삶의 보호자로 높이 흠모하며 우러르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막을수 없는 시대의 찬가이다. 하기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위대한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과 긍지 끝이 없는것이다.

아, 10대에 만경대의 수수한 사립문을 나서시여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시고 전화의 불비를 헤치시여 조선이란 그 이름 온 누리에 떨치신 만고의 영웅이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그 어떤 정세의 격변에도 어지러운 광풍에도 끄떡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높이높이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여!

력사의 경의를 받으시라, 만민의 다함없는 만수축원의 인사를 받으시라!

태양의 빛발이 끝이 없듯이, 우주의 세계가 영원하듯이, 존귀하고 위대한 그 이름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리라.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여!...

만경대는 제일경

한호

아름다운 꽃들은 여기 다 피고
진귀한 나무들은 여기 다 있네
일만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내 걸음 절로 멈춰서네

초록색 잔디 주단을 편
마당가에 나무들은 절묘함을 뽐내고
기슭에 다투어 핀 꽃들은
고향집의 향취를 한껏 돋구네

날아에는 온갖 새들은
귀청이 간지럽도록 은방울을 굴리고
마당가로 흘러드는 사방들은
끝없는 꽃물결 꽃물결...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보아도

숭고한 애국의 뜻 어려오고
사립문 나서 언덕길을 걸어오
수령님 나라 찾을 굳은 마음 다지시던
그날의 맹세가 울려오는
만경대 만경대

여기서 울리는 새소리 물소리는
내 조국의 명승의 노래가 되고
여기에 수놓은 꽃과 숲은
내 조국을 빛내일 마음이 되거니

꽃과 숲만 아름다워 명승 절경이라
금수강산 내 조국의 일만경치가
여기서 꽃피나 만경대는 제일경!
나라 받들 그 마음도 여기서 꽃피나
이 세상 제일경!

날마다 첫아침에

김재원

날마다 아침이면
첫창문을 열며
순정의 이 마음
달려가는 그곳-

아버이수령님 계실
노을 붉은 그 창가
지난해에도
우리 수령님 오르신
조국의 북변 철산봉의 그 높이
걸으신 만풍년의 대지
다녀오신 친선단결의 만리길
더듬는 이 마음

오로지 인민의 만복이 주령질
그 풍요한 사회주의동산을 위해
온갖 풍상 다 헤치시며
그렇게 자욱자욱 인민을 위해 새겨오신
위대하고도 거룩한 한평생이여

이 아침도 우리 수령님
감회도 깊이 생각하시리
만경대의 그 찬란한 무지개빛발을
백두산의 그 준엄한 눈바람소리며
사회주의 그 생소한 초행길만리를

자신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라 하시며
광복의 봄을 안아오신 이 땅에
통일의 새아침 불러오시려
바쳐오시는 아버지수령님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고비고비 다난한 혁명의 천만리길에
지내신 그 많은 밤과 밤들

그밤들에 사색하고 사색하신
우리 수령님의 그 높고 깊으신 세계-

온갖 사나운 광풍 다 맞받아
언제나 우리 수령님 옷자락 날리시며
진두에서 헤쳐오신 력사의 길이 있어
소나무와도 같이 청청한
오늘의 우리의 사회주의가 있고
그 아름다운 화원속에 만발하는
우리의 화목한 대가정이 있나니

해와 별 찬란한 이 땅
꽃도 물도 향기로운 내 집에서
누리는 행복에 마음은 뜨거워
날마다 첫 아침이면
더더욱 간절해지는
뜨거운 축원의 한마음

웁고싶어 탄생일을 맞으시는
이 아침
우리 수령님 영상
더더욱 웁고싶어

간절해라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삼가 첫인사를 드리며 새날을 맞는
인민의 이 마음

손에 손잡고
7천만이 한마음 되여
만수축원의 노래 부르나니
이 땅에 밝아오는 날과 날은
만수축원의 꽃바구니 삼가 드리는
충성과 효성 속에 해가 솟아라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알렉시 님보나

그이는 조선인민의 은인
해방의 새아침을 안아오시고
인민을 이끄시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
하셨나니
인류는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노라

그이는 동방에서 솟아오른 태양
인민들 끌고루 잘살도록
간고한 투쟁을 벌려오신 수령
그이의 불면불휴의 그 로고속에
인민은 행복을 누리거니
인류는 그이의 만수무강 축원하노라

그이는 민주의 수호자

빨력불가담운동의 옹호자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
우러러 다함없는 정 안고
김일성 주석께 칭송의 노래 드리여라

부룬디인민은 감사를 드리노라
자주적인 부룬디의 건설을 도와주신
김일성 주석께 친근한 조선인민에게

부룬디와 조선
친선과 리해, 협조와 우의는 영원하리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필자는 부룬디 러누보신문사 기자임)

가사

장령동지 군공메달

김선지

장령동지 머리우에 흰서리 내렸어도
병사시절 군공메달 잊지 못하네
전선길을 찾아오신 장군님앞에
병사시절 달고셨던 첫 메달이라네
아 장령동지 높은 훈장 많아도
병사시절 군공메달 잊지 못하네

위훈 많은 추억속에 자랑 많아도
장령동지 군공메달 잊지 못하네
전승의 날 사랑하는 고향의 처녀

남모르게 만져본 첫 기쁨이라네
아 장령동지 높은 훈장 많아도
병사시절 군공메달 잊지 못하네

가슴우에 군공메달 바라볼 때면
마음속엔 젊음이 내려떨치네
입대하여 처음 받은 군공메달은
궁지높은 병사시절 첫 위훈이라네
아 장령동지 높은 훈장 많아도
병사시절 군공메달 잊지 못하네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장형준

민족최대의 명절이며 인류공동의 대경사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며 우리 인민과 작가, 예술인들은 세기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근 70성상, 그 장구한 혁명력사는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신 영광스러운 력사인 동시에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꽃피워오신 빛나는 력사이다.

혁명의 첫기부터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간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적문학예술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문학예술을 인류문학예술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분야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그 내용과 폭에 있어서 참으로 풍부하고 위대하다.

주체적문예사상, 혁명적문예전통, 주체적창작력량, 혁명적인 지도체계, 주체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발전, 이것은 그 풍부성과 위대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인류문학예술의 력사는 수천년을 헤아리고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그 어느 때, 어느 나라에도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와 같이 당대에 위대한 문예사상과 혁명적문예전통을 창시하고 강력한 창작력량과 지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나라에서처럼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킨 그런 위인, 그런 령도자는 없다.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그이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여온것 조선인민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더없는 영광과 행복이다.

1.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창시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던 시기는 인류가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를 맞이하는 려명기였다.

바야흐로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가 동터오고있었으나 사람들은 아직 주체의 운동에서 일어

나고있는 새로운 시대적흐름과 새 시대의 려명을 똑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력사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이 위대한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므로써 인류력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인류력사의 새 시대는 문학예술앞에 새로운 력사적과제를 제기하였다. 그 기본과업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주체시대의 근본요구에 맞게 자주성의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것이였다.

주체시대가 제기하는 이 새로운 력사적과제는 선행시대의 력사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기성문예사상으로써는 풀수 없었다.

그러므로 새 시대는 문학예술앞에 나선 새로운 력사적과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문예사상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주체시대 문학예술건설앞에 나선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문학예술건설시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므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해방후 더욱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시대 문학예술건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문예사상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그것이 세계관적기초와 기본원리,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선행문예사상과 완전히 다름뿐만아니라 그 력사적제한성을 철저히 극복한 새 시대의 문학예술건설지도사상이라는데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그 세계관적기초에서 유물변증법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선행문예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문예사상이다. 그것은 사람위주의 철학인 주체사상을 자기의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의 모든 원리와 명제들은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문제로부터 사실주의창작방법에 관한 문

제에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하시었다.

유물변증법에 기초한 선행한 문예사상은 문학예술을 토대에 상응한 사회주의식형태의 하나라고 함으로써 문학예술에 대한 관념론적이며 신비적인 견해에 종지부를 찍고 처음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명을 주었으며 그리하여 문학예술은 현실을 형상적으로 반영한것이라는 과학적리해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학예술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완벽하게 주어진것은 아니다. 문학예술의 본질은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현실을 형상적으로 반영한것이라고 보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보다 깊이있게 밝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문학을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사람의 생활을 언어로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학이라고 규정하시었다. 이것은 문학을 현실의 단순한 반영물로 보는 견해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문학의 본질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준 주체적인 문예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의 기능에 대한 견해에서도 그 인식적기능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한 선행고전가들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 사상교양적기능을 더 중시하시여 문학예술을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라고 하시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문학예술에 대한 견해뿐아니라 사실주의에 대해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었다.

세부의 진실성외에 전형적환경에서의 전형적 성격의 재현, 이것은 사실주의를 정식화한 선행문예리론의 기본명제이다. 이 명제는 사실주의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는데 이바지한 의의있는 명제이다. 그러나 이 명제는 사실주의에 대한 리해에서 일정한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성격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성격을 환경에 맞게 창조할것을 강조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성격과 환경은 떼수 없는 련관관계에 있는것만큼 전형적성격의 창조에서 전형적환경을 묘사하는것은 응당하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에서 환경이 인간보다 중요할수는 없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뿐만아니라 환경을 변혁시키고 세계를 개조하는 주체이다. 그렇기때문에 환경묘사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타당치않다.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는 주체적문예사상은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묘사에서 환경보다 인간을 위주로 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격과 환경의 전형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형적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며 형상이 전형성을 띠

자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밝혀줌으로써 사실주의에 대한 주체적인 리론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예사상과 일정한 계승성을 가지고있으나 그와 전혀 다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제기하는 문제들에 새로운 해답을 준 독창적인 문예사상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세계관적기초에서뿐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지도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입니다.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과 문학예술작품창작의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통찰하시여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을 명백히 천명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주체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 사상성과 예술성, 결합의 원칙,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발전, 혁명적대작창작, 문학예술의 대중화 등 주체의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리론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독창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선행 문예사상에서 거의나 공백으로 남아있던 문제가 새롭게 개척되어 지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력사상 처음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그 구성과 내용의 완벽성으로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현단계의 문학예술의 면모와 그 건설원칙과 창작방도는 물론 앞날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면모와 그 건설원칙과 창작방도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성된 공산주의문예리론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과 그 위력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위력은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력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상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그 빛나는 사상으로 우리 문학예술을 활짝 꽃피우시고 세계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문예사상과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신 가장 위대하고

특출한 공적이 있다.

2.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의 창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이 마련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주체적인 역사적뿌리가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이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먼저 나서는 문제는 혁명적문예전통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문예전통을 창시하는 역사적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빛나게 수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경도하시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속에서 혁명적문예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류레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더욱 귀중하고 위대하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대군을 반대하여 20성상의 장구한 기간 피어린 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면서 혁명의 최고령도자께서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발전시키시고 몸소 불후의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신것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오직 주체의 혁명적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 비범한 예지와 남다른 창조적천품, 불타는 열정과 비상한 탐구심을 지니신 혁명과 창조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이다. 여기에는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 항일혁명문학예술의 고귀한 창조적업적과 풍부한 경험, 항일유격대식창작기풍과 혁명적군중문예활동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적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백과전서적인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때는 물론 오늘과 래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는 유일하게 정당한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된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찬란한 성과, 그 불멸의 업적에서 가장 빛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다. 이와 함

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 혁명적인민들이 창작한 혁명적작품들도 그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조선의 노래》,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성황당》,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에 의하여 창작된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같은 혁명적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우리 문학예술의 원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문학예술작품을 혁명적으로 창작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그에 고무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집체적지혜를 모아 전투적으로 문예활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창작기풍과 군중적문예활동방법은 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할 혁명적창작기풍과 공산주의적문예활동방법이다.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은 그 내용의 위대성과 풍부성, 그 작용의 보편성과 항구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작가, 예술인들이 대를 이어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만년초석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귀중히 여기고 함께 따라배워야 할 공동의 재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혁명적문예전통의 창시로 주체적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음으로써 우리 나라와 세계의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이 있었기에 해방후 우리 문학예술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문화적침투와 수정주의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문학예술건설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발전되었기에 주체의 문학예술이 오늘과 같이 찬란히 개화발전되어 온 세상에 그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이 가지는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 그 불멸의 문예사적의의가 있다.

3.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문예사상과 항일혁명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새로 건설하여야 할 우리 문학예술의 성격과 임무, 그 건설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체적민족문학예술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그 전성기를 맞이하여 계속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로부터 《주체문학예술의 조국》, 《20세기 사회주의문예 부흥의 발상지》, 《세계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의 나라》로 높이 찬양되고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 민족적인 모든것이 말살당할번하였던 우리 나라가 반세기도 못되는 사이에 그처럼 빨리 발전하여 주체문학예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빛나게 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뿌리뽑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문학예술이 우리의 혁명위업에 더욱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이며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도 바로 인민대중이다. 오늘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응당 자기 나라 인민의 요구와 민족적감정에 맞게 창조되고 자기 나나 인민에게 복무하는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로 되어야 한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민족문학예술의 자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에 의하여 나라의 절반땅에서 외래문화가 다시금 판을 치고있는 사정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의 역사적특수성을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주체확립문제를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문학예술이 자주시대의 요구와 조선혁명의 리익, 우리 인민의 지향과 민족적감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창조되고 발전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

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 우리 문학예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로 찬란히 발전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옳바로 구현한 주체의 문학예술로 활짝 꽃피나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에서 주체성의 원칙과 함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 사상성과 예술성 결합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한 예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창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반영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기본담보이다.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문학예술에 인간과 생활을 가장 정확히 가장 혁명적으로 형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정책적건지에서 문학예술이 나아갈 발전방향과 주제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시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작품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발전에 대한 방향적지도를 주시였을뿐아니라 작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미학적지도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문학예술작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정책적대를 바로 세워주시였으며 미학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계시는가 하는것은 최근년간에 있어서도 계속 해마다 부피 두터운 장중편소설들까지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사실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지도에 의하여 엄중한 사상미학적과오를 범한 작품이 제때에 시정되어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기도 하고 세월의 갈피속에 잊어졌거나 세상에 파묻힐 번했던 작품들이 시대의 걸작으로 내세워지기도

하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어떤 인간, 어떤 문제, 어떤 생활을 형상하는데 창작적주목을 돌려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문학예술작품을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게 하는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지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으로 재현하여 사람들을 미학정서적으로 교양하는 문학예술의 특성과 그 인식교양적기능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시어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언제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 결과 우리 문학예술은 사상성을 무시하고 예술성만을 내세우는 예술시상주의적경향에는 물론 예술성을 무시하고 사상성만을 중시하는 사회학적편향에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다같이 보장된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로 건전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이 좌우경적편향을 전혀 범하지 않고 주체의 한길로 곳곳이 전진하여 《현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예술》로 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 위대성은 또한 지도대상, 그 령도의 폭이 비상이 넓은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문학예술은 각이한 시대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개성적인 인간성격과 다양한 생활을 반영하고 그 종류와 형태, 형상 수단과 수법 역시 다양한것만큼 그 창작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기때문에 문학예술창작의 담당자들인 작가, 예술인들은 어느 한 종류나 형태의 전문가로 되고있는것이다.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많은 종류와 형태의 창작적범수로는 될수 없다. 그러기에 그 많은 종류와 형태의 작품창작사업을 사상미학적으로 옹바로 지도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문학예술에 대한 남다른 천품과 깊은 조예를 가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의 한두 분야가 아니라 그 모든 분야의 창작사업을 사상미학적으로 정확히 지도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다방면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미술,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종류, 모든 형태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문학예술과 함께 군중문학예술이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문학사업의 경험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어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심으로써 문학예술창조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문학예술이 전인민적으로 개화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로부터 《예술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크나큰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4. 강력한 주제적창작력량의 형성

해방후 새로운 민족문학예술건설앞에 선차적으로 나선 문제는 주제적창작력량을 마련하는것이었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는 작가, 예술인들이 얼마 없었다. 그나마 그들의 대부분은 유산계급출신으로서 일제와 착취계급에게 이러저러하게 복무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새로운 작가, 예술인들을 어떻게 길러내며 그들의 대렬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주제적민족문학예술건설과 그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식민지사회 인테리들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헤아리시어 인테리들을 노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당의 중요구성성분으로 규정하시고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어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민족문학예술건설사업에 적극 인입하고 근로인민들속에서 새로운 작가, 예술인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며 그들을 모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밝히주시었다.

이 방침은 작가, 예술인 대렬을 급속히 확대 강화하고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뭉치게 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을 활짝 꽃피울수 있게 한 탁월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 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먼저 오랜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에 큰힘을 넣으시었다.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우리 당앞에는 오랜 작가, 예술인들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로 되고있었다. 그것은 당시 반당종파분자들과 일부 편협한 일꾼들이 오랜 작가, 예술인들의 출신과 과거를 문제삼아 그들에게 함부로 《친일파》, 《부르조아작가, 예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무턱대고 배척하며 민족문학예술건설대오에서 떼어 내려고 획책하였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좌경적이며 종파적인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엄격히 비판하시고 그들을 모두 찾아내도록 하시었으며 건국초기의 그 복잡다단한 가운데서도 해방전에 프로레타리아문학을 한 리기영과 같은 선진적작가는 물론 김사랑, 최명익과 같은 유산계급출신의 작가, 예술인들까지 친히 한사람한사람 만나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새조선의 진로와 작가, 예술인들의 임무를 밝혀주시며 그들을 주체적민족문학예술건설로선관철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력한 창작력량을 꾸리기 위하여 오랜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시는 한편 새로운 작가,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배려를 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중적문화활동을 적극 벌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신인작가, 예술인들이 자라나도록 하시는데 동시에 예술부문 대학들과 예술전문학교들을 창설하시여 정규적인 교육체계를 통하여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 후보들을 많이 키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 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1946년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전신인 북조선예술총련맹을 창립하시고 여기에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굳게 결속시키시었으며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예술적자질이 높은 주체형의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창작에 전심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창작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돌보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조기천, 리찬을 비롯한 작가, 예술인들이 불순분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공책으로부터 보호되어 기쁨비작작품들을 빛나게 창작할수 있었고 송영, 박세영을 비롯한 많은 작가, 예술인들이 3. 8선을 넘어 북반부로 찾아오고 천세봉에 이어 석운기와 같이 해방후 창작의 길에 들어선 신진작가, 예술인들이 주체문학예술의 당당한 중견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또한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조국해방전쟁시기 많은 작가, 예술인들이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용약 종군하고 일시적후퇴의 그 준엄한 환경에서도 멀리 남해바다가에서부터 험준한 산밭을 타고 최고사령부를 찾아왔으며 장승한, 현경준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조국을 사수할수 있었다. 그 믿음, 그 사랑은 반당반혁명종파도당들이 악랄하게 책동하고 현대수정주의바람이 휘몰아칠 때에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추호의 동요없이 우리 당의 령장에 확고히 서있을수 있게 하였으며 오늘은 그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 문예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견결한 관철자로서의 영예를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에 자기들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작가, 예술인들을 은혜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영광스러운 로정과 그 자욱자욱은 위대한 믿음과 사랑의 서사시로 엮여져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한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호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재능을 키워주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도록 형상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며 우리모두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곧바로 인도해주시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으로 당을 충실히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해나가는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보람은 없다.

5. 당적령도의 강화,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의 확립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당의 사상을 구현하고 당의 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당의 령도없이 성파적으로 건설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 혁명적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을 깊이 헤아리시고 당창건 첫날부터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 부문에서도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해야 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이다. 당이 문학예술 사업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하려면 정확한 문예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창작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옹호 조직지도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키고 그들이 깨끗한 당적량심과 불타는 창작적열정으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도록 잘 지도방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들에서 당의 문예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정치위원회들에서 루차 문학예술문제를 상정시키고 당의 문예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과업들을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로 하여금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창작에 달라붙도록 하시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적지도가 보장되는 지도체계를 똑바로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문화예술부, 문예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3위1체의 지도체계를 독창적으로 세워주시였다.

이 새로운 문학예술지도체계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와 정책적지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부의 행정조직자적기능과 문예총의 교양자적기능을 다같이 높이게 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교양과 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적문학예술지도체계이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 국가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직능과 그들의 호상관계가 명확해지고 그들이 자기의 직능에 따라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된 결과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교양과 현실체험, 조직생활과 기량훈련 등이 힘있게 추진되어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문예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게 되였다.

또한 그 결과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와 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내고 우리 내부에

서 발로되는 자그마한 불건전한 요소에 대해서도 사상투쟁을 통하여 제때에 극복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곳곳이 걸어나가며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빛나는 창작적성과들 이룩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 승리적으로 건설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생명선이다.

이 생명선을 놓치고 문학예술을 《자유화》하면 일부 나라들에서와 같이 날라리바람이 마구 밀려들고 부르조아반동문학예술이 되살아날뿐 아니라 종당에는 사회주의위업이 좌절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를 더욱더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확고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에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문학예술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말하여주는 자랑찬 사실로 된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한데 이어 4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가슴가슴은 오늘과 같이 우리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주시고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차넘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모두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주체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전진할 불같은 맹세와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앞날은 보다 양양하고 휘황찬란할것이다.

위대한 사랑의 집

오영재

인민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영광의 년대기들
수령님 걸어오신 길을 더듬어보면
떠오르누나
뜨거운 이 가슴에
후더워지는 내 눈앞에

살을 어이는 눈보라와
불붙는 전호가
재가루 날리는 공장구내의 돌의자며
쏟아지는 폭우속에 흔들리던 쪽배

한밤중에 넘으신
높은 령은 얼마
서격이는 살얼음을 헤치시며
건느신 강은 얼마
수수한 농가집에서
농민들과 배개를 나란히 하시고
지새신 밤은 또한 얼마이던가

더듬어갈수록
이 가슴에 넘치도록
떠오르는 하많은 생각
그 생각속에서
어느해인가
그이께서 숙소로 정하시여 지내신
서해바다가의 작은 천막집이
나를 붙잡고
끝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누나
이 작은 가슴에 새기기엔
그 사연 너무도 뜨거워
내 붓을 들게 하누나

1

서해바다 물결이
하얀 모래사장을 씻어내리는
어느 이름없는 도래곶이
해풍에 아지 흰 소나무들을 머리에 이고
물위에 질은 그림자를 던져주고있는
나지막한 언덕우에
한 해안포구분대가 자리잡고있어라

가렬했던 전쟁의 날엔
서해바다 깊이 기여든 원쑤의 해적선에
멸적의 포란을 날려보내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위훈많은 해안포들
또다시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원쑤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전투정치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던
1959년의 어느 레사롭던 여름날

뜻밖에 닥쳐온
크나큰 환희와 감격으로
병영과 포진지마다엔
환호의 선풍이 일었거니
서해안의 이 지구를 현지도하러 오신
아버이수령님
이 이름없는 구분대를 먼저 찾으셨어라

마디마디 걱정을 담아 올리는
지휘관의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며
지휘관을 앞세우시고
주의깊이 병영을 돌아보시여라

재더미를 헤치고
주추돌을 다져놓던
전후복구의 어려운 날도 헤쳐넘어
이제는 나라가 허리를 펴고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비약의 나래를 펼친 그 시절이건만

최대한의 중산과 절약의 구호높이
모든것을 아껴야 했기에
만족스럽게 꾸려놓지 못한 병영
그것이 송구하여
지휘관은 발걸음을 머뭇거리는데

사는 그대로를 보고싶다고
너그러이 그 마음을 녹찾혀주시며
다정히 등을 떠미시여
옮겨가시는 발걸음

병실에 들어서시여서는
방안이 비좁지 않는가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하나 물으시며
멀리 부모슬하를 떠나있는 전사들을
친혈육이 되어 잘 보살펴주라고
거듭 타이르시여라

드나드는 출입문 하나를 놓고도

몸소 그 문을 여닫아보시며
문에서 소리가 나면
밤중에 근무성원들이 드나들 때
병사들이 단잠에서 깨여날수 있다고
그리도 세심히 마음 쓰시는 어버이수령님

영광의 날이여라
행복의 날이여라
비좁은 교통호를 걸으시며
몸소 포진지까지 찾아주시였을 때
병사들의 감격은 얼마나 컸던가

아직도 숨털이 채 가셔지지 않은
애끓은 포수를 불러
고향과 나이도 물어주시고
그들의 사격훈련동작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동무들의 민첩한 동작들을 보니
신심이 생긴다
뜨겁게 치하해주시고

만약 원쑤놈들이
저 바다우에 또다시 기여든다면
단방에 요정내여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이라고
포병들을 고무해주시는 수령님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
이런 때가
그이에겐 가장 즐거우신 시간
언제까지나 떠나고싶지 않으신듯
좀체로 돌리지 못하시는 그 걸음이시건만

전사들은 알고있었다
나라의 크고작은 그 모든 일을
한몸에 안고계시는 수령님
언제나 그이는 바쁘시고
언제까지나 전사들과 함께 계실수 없으심을

서운하여
서운하여
벌겋게 눈시울이 젖어드는
병사들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며
그이는 말씀하시여라

《나도 동무들의 걸을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 지구 농촌들과 공장들을 돌아보는 그동안
밤마다 여기에 와
동무들곁에서 지내겠습니다》

순간
터지는 환호성 환호성

그 말씀이 너무나 꿈만같이 반가워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발을 구르며 어쩔줄 모르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시는 그 걸음이여서
얼굴마다 기대와 행복을 가득 담고
올리는 그 환호성에
즐거운 답례를 보내시며
그이는 천천히 차를 달려
병영을 나서시여라

2

안개 걷히자
제자리에 있던 모든것들이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듯
홍분의 안개가 걷히자
병사들의 생각도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들이 살고있는 병실들을
새삼스럽게 더듬어보게 되었어라

누구먼저 선듯 입을 열진 못했건만
병사들의 가슴마다
하나의 근심이 자리잡기 시작했거니
너무도 소박한 이 병영
그 어느 방에 그이를
잠시나마 모실수 있을것인가

집을 새로 짓는다 해도
저녁까진 세울수도 없는 일
설사 세운다 한들
서투른 전사들의 그 숨씨로는
이미 지어놓은 병실보다
더 나을수도 없는것

지휘관은 결심했어라
한개 소대의 병실을 내여
우리가 할수 있는것
성의를 다해 꾸리자
그밖에 또 무슨 방도가 있을것인가

하여 작업분공이 주어졌다
외벽에 회가루를 바르는 조
방안을 깨끗이 도배하는 조
누구는 침대를
누구는 침구를
그 누구는 책상과 의자를

이렇게 저녁녘까지
병사들의 숨씨로 꾸려진 방안
그 바깥속에서도
누가 생각해냈는가

꽃병에 소담히 꽃힌
한뫼음의 붉은 해당화

하나 그 무엇을 가져다놓은들
병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 송구한 감정을 삭일수 있을것인가
그 마음을 안은채
병사들은 기다렸어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실 그 시각을

여름날의 긴 해도 지고
어둠은 서서히 밀려오는데
병사들은 지켜보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돌아오실 동쪽길을

시간은 퍼그나 흘렀건만
나타날줄 모르는 승용차의 불빛
별들이 여물어가는 밤하늘밑에서
병사들의 생각은 깊어졌거니

전쟁의 날엔 포연속을 걸으시며
전후의 그날엔 채더미를 헤치시며
그이 언제 한번
밤 일찍 쉬신적 계셨던가

우리 당에 도전해나선
반혁명의 온갖 준동을 물리치시던 그 나날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크셨으며
천리마대고조의 발구름높이
주체의 한길로 신념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이끄시며
단 하루 이날까지
그이 편하신 날이 계셨던가

서해지구의 그 모든 사업을
보살펴주시고 바로잡아주시느라
이 하루 걸으신 길은 얼마이시며
쌍이신 피로는 얼마나 크실것인가

생각을 더듬을수록
뜨겁게 젖어오는 그들의 눈에
드디어 비쳐왔어라
저 멀리 동쪽길로 달려오는
전조등의 불빛

가슴과 가슴마다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채우며
마주오고있는
반가운 그 불빛
태양의 빛발인양
온 공간을 가득 채우며
차는 마당으로 들어서고
차문이 열리며

내려서시는 수령님

그이께 지휘관은
삼가 말씀을 올렸어라
소박하지만
우리 전사들의 손으로 꾸린 침실에서
이밤을 쉬여주시기를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지휘관이 가리키는 그곳
병사들의 지성이 깃든 그 침실을
그이께선 정깊으신 눈길로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계시었어라

낮사이 몰라보게
그 모습을 새로 한 집
유난히 밝게 빛나고있는
침실의 창문

그이는 생각깊이
몇발자욱 걸음을 옮겨가시더니
지휘관을 향해 물으시여라
《거기에 있던 동무들은
이밤 어디서 쉽니까》

지휘관은 대답올려라
직일포근무도 서고
다른 소대 병실들에
남는 자리가 많아
그들에겐 아무런 불편이 없음을

이 하루 쌓이신 그 피로
안팎에 력력하시건만
전사들의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보시며
그 모든 피로가 다 풀리시는듯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며
지휘관을 조용히 타이르시여라

《그러면 안됩니다
어떻게 나 한사람이
한개 소대의 잠자리를 차지하고
편한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내 잠자리는 걱정 말고
어서 저 병실에서 전사들이 쉬게 하시오.》

《수령님!》
그만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병사들
허나 마음속으로는 웨치고있었거니

(저희들의 이 진정을 받아주십시오
수령님께서 하루밤이라도 편히 쉬실수만 있다면

몇백몇천밤을 뜬눈으로 새운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위해 이 침실을 마다하신다면
수령님은 이밤을 어디서 쉬시렵니까)

너무도 흥분과 감격에 벅차
이 시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다만 정문을 지키는 보조병만이
흐르는 눈물속에 지켜보고있었거니
병영밖 모래밭인 작은 공지에
그이께서 이밤을 쉬실
한채의 작은 천막이 일어서고있었다

3
엄격한 규정의 요구대로
정해진 시간에
전사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건만
잠들수 없는 구분대의 지휘관
정문보초가 나란히 서서
수령님의 천막을 지켜서있어라

밤은 깊어가건만
이밤을 그대로 지새우시려나
꺼질줄 모르는 천막의 불빛
하많은 일감을 안고오신 수령님
풀어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
전후의 어려운 형편은
그이께 한순간의 휴식인들 드릴수 있었던가

시간이 흐를수록
후더워만지는 지휘관의 가슴
천막의 불빛이 꺼지고
그이께서 자리에 드시는것을
기다리고 또 바라는 그 마음인데

한사람 두사람
자기결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병사들이 다가오고있어라

자리에 누웠건만
병사들인들 어찌
지휘관과 그 심정 다를수 있으랴
그 누구도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며
아버이 그 사랑에 눈물이 북받쳐
조용히 모포깃만 적시던 그들
하나 둘 자리에서 일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온 구분대가
지휘관의 결으로 모여들었어라

수령님의 귀중하신 사색을 깨칠가봐

그이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또다시 병사들을 두고 마음쓰실가봐
저으기 당황해진 지휘관
귀속말과 눈짓으로
그들을 나무라며 등을 떠미는데

그 누구 하나
그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라라
결코 이 병사들을
또다시 잠들게 할수 없음을
지휘관은 깨달았거니
아버이를 병영밖 천막에 모시고
그 어찌 편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으랴

하여 온 구분대가 호위병이 되어
수령님의 천막을 지켜섰어라
자나깨나 그리던 수령님
그이를 이렇듯 가까이 모신
꿈만 같은 이 시각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건만
가슴은 얼마나 행복에 끝없이 설레었던가

4

만약 그 누가
그 어떤 전후사연도 알지 못한채
무심히 이 병영앞을 지나며
이 작은 천막을 보게 된다면
제나름의 추측을 할수 있으리

누구는 생각하리
근무성원들의 휴식장소일게라고
또 누구는 생각하리
전술훈련을 나온 린접구분대의
야영천막일수도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을것인가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며
인민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그이께서
서해기슭
어느 이름없는 작은 해안포구분대
그것도 병영의 울타리밖에 자신의 숙소를
이렇듯 소박하게 정하고계실줄을

항일의 그날
단 한장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대원들에게 덮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전사들을 아껴주시는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 다 모르듯
어찌 사람들이 알수 있을것인가
이 한겹의 얇은 천막이
그이의 숙소로 되고있다는것을

여기서 머칠을 머무르시며
 그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시여
 이 지구 현지지도의 나날을 보내신 수령님
 언제나 밤늦어 돌아오시여
 이 천막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는
 새벽도 이른새벽에
 소문없이 떠나가시었어라

그러시다도
 여느때와는 달리
 일찌기 초저녁에 오셨을 땐
 얼마나 즐거운 명절이었던가
 허물없이 전사들과 마주하시여
 고향에서 온 편지도 보아주시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며
 전사들의 가슴에 길이 새겨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수령님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앞당기시여
 전사들이 보고싶어
 일부러 이런 시간을 내주신
 그 은정 그 사랑에
 전사들 얼마나 목이 메었던가

그러던 어느날
 지휘관은 그이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거니
 새벽노을에 물든
 저 하늘끝에서
 잠을 깬 갈매기의 울음을 타고 불어오는
 한줄기 신선한 바다바람에
 가벼이 옷자락을 날리시며
 그이께서는 천막가에 서계시었어라

지휘관이 올리는 아침인사를
 정다운 눈길로 받으신 수령님
 한곳을 가리키시며 물으시여라
 《여기서 무슨 작업을 벌리고있습니까》

그곳엔
 쌓여있는 목재와 기와장들
 방수포로 덮어놓은 세멘트포대
 반듯이 닦아놓은 집터와
 박아놓은 주춧돌들
 《수령님, 집을 짓고있습니다》

무슨 집을 갑자기 여기에 짓는가고
 거듭 물으시는 그이께
 지휘관은 솔직한 심정을 담아 대답올렸어라
 《지금 전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병영안 편한 자리에서 자고
 수령님을 병영밖 천막에 모시다니
 그것이 어찌 전사의 태도이고

자식들의 도리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비도 오고
 바람도 세차지겠는데
 저희들이 더는
 수령님을 이런 천막에 모실수 없습니다》

참을길 없어 울먹이며 아뢰는
 지휘관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생각에 잠기신듯
 한동안 말쑤이 없으시던 수령님

《동무들의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산에서 유격투쟁을 할 때부터
 천막생활에 습관돼서 그런지
 지금도 천막이 더 좋습니다

동무들은 내 심정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병실을 내주고
 또 이렇게 집까지 지어주는것이
 결코 나를 위한것으로 되지 못합니다
 이런 집을 지을 자재가 있다면
 동무들의 병실을 더 짓거나
 군관들이 사택 하나라도 더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짝 메여와
 불현듯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
 가까스로 가슴을 진정하고
 다시 올리는 말씀

《수령님! 이것은
 제가 시킨것도 아니고
 전사들스스로가 펼쳐나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제가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설복할수 있겠습니까》

그이께서 너그러이 웃으시며
 난감하여 어쩔줄 모르는
 지휘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가까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시여라
 《그것은 최고사령관이 준 명령이라고
 전사들에게 전달하시오》

그이는 천천히 승용차에 오르시고
 또 하루의 사업을 위해 떠나가시는
 현지지도의 길-
 부동의 자세로 굳어진채

거수경례를 올리고있는 지휘관에게
승엄한 자세로
총을 받들어 서있는 보초병들,
사랑스러운 병사들에게
해빛같은 미소로 손저어 인사를 보내시며
떠나가시는 수령님

아, 모진 풍상속에서
한평생을 다 바쳐가시며
우리 인민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권리를 주시고
가장 값높은 존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주신
우리 수령님

하늘땅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그모두를 꽃피워주신
우리 수령님
하건만 인민을 위해서라면
인민에게 조금이나마 폐를 끼치는 일이라면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것을 사양해오신 그이

항일의 날에는
인민에게 부담이 될가봐
설명절도 산에서 쇠시고
해방의 그날에도
마을사람들의 단잠을 깨울가봐
차를 멀리 세우시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가신 수령님

인민이 퍼드리는
아늑한 잠자리를 마다하시며
소란한 역구내의 숙영차에
스스로 자리를 정하시고
불밝은 마을을 옆에 두시고도
한이삭의 강냉이로
길량식을 삼으신 우리 아버지

그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낌없이
그 모든것을 다 바치고싶은
우리 인민의 심정인데

한 해안초소의 병사들에게
작은 불편이라도 끼치는것이
그리고 마음에 걸리시여
항일의 그 나날과 다름없이
자신의 귀하신 그 몸을
비바람에 퇴색하고

초연내 스며배인
한겹의 천막아래 오늘도 두시는
그런분이
그런분이
아, 우리 수령님

그 위대한 품속에서
이 땅의 새날은 열리고
번영하는 조국을 지켜
무적의 용맹을 떨쳐가는
병사들의 하루는 시작되고있어라

×

잊을수 없는 감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근 서른해
그날의 지휘관도 병사들도 다 바뀌고
지금은 새 세대 군인들이
병영과 포진지를 지키고있어라

그날의 그 천막자리엔
하나의 소박한 자리표식이
감동의 눈물없이 새길수 없는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있어라

몇평방에 불과한
병영밖의 천막자리
그자리를 보고싶어
오늘도 온 나라 인민들과 군인들이
여기에 모여드나니

천리방선의 초병들도
동해안의 해병들도
하늘나는 비행사들도
이앞에 경건히 서서
어찌하여 그리도 깊은 생각에 잠기는것인가

이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30년대 항일의 그날엔
일제를 때려부셨고
50년 전쟁의 포화를 뚫고
미제를 타승하지 않았던가

이 사랑이 있어
《수령님 위하여 복무함!》
충성의 이 구호 높이 부르며
오늘도 병사들은 일당백 그 기세로
멸적의 투지를 버르고있거니

이 사랑이 있어
전쟁의 불을 들고
미제원썹들인 또다시 덤벼든다면
오만해진 놈들의 코대를 다시 꺾고

불패의 사회주의 내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리라

아, 세상엔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 크기와 화려함을 두고
제 모습을 자랑하고있는것인가
허나 그 어떤 집도
이 집터우에 서있던
그 천막집과 비길수 없나니

비록 몇평방에 불과한

작은 천막이지만
군인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를
사랑으로 한품에 안고있는 집

하여 우리의 눈앞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집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며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며
오늘도 거연히 솟아있는것이여라
여기 서해바다 물결이 설레이는
이름없는 도래굽이에

나의 노래

문동식

붓글을 고루며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엮어가노라면
산천은 청신함으로, 숲은 고요함으로
사색의 맑은 호수 펼쳐줍니다

아버이수령님이시여
이런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노래에 앞서 먼저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이의 위대한 사랑을

수수만리 광야에 지동치던 눈보라를
붉은기로 녹이시며 헤쳐오신 길
설령을 넘으시던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서 피어난 이 봄날입니다

백만대적의 포위속에서도
필승의 구상만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의 깊디깊은 사색의 심연속에
깃을 편 오늘의 이 락원입니다

피멍든 민족의 가슴을 짓몽개며
살륙에 이를 살던 제국주의야수들을
혁명의 장검으로 가서내신분
수령님 안아오신 저 눈부신 해빛입니다

나날이 만복을 누려갈수록

저의 가슴속에선 더 높이 울립니다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눈보라소리
얼음이 서걱이던 그 발자국소리...

수령님 안겨주신 이 사랑은
저의 노래의 씨앗이 되고
저의 서정의 자양이 되여
사색의 푸른 날개 펼쳐주나니

아버이수령님이시여
감사를 드리웁니다
충성을 맹세하웁니다
저의 서투른 붓글을 고루어
저의 작은 목청을 다하여

동트는 이른새벽 깊은 자정에도
노래불러도 다함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고마움만이
이 가슴속에 물결처럼 차넘쳐오니

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여
한생을 다 기울여
시로 쓰고 또 써도 끝맺을길 없는
저의 노래의 영원한 시작은
인민의 새 세계를 이 땅우에 세워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그 사랑이웁니다

축원의 봄

리종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4월의 명절아침 우리 가정에서 만든 충성의 꽃바구니를 아버지수령님동상앞에 드리고저 온 식구가 서두르며 나섰을 때는 동녘하늘이 희붉히 밝아올 때였다.

밤새 꽃바구니를 엮어들고 밝아오는 새날을 마중하여나섰는데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길은 벌써 사람들의 물결속에 묻혀버린듯싶었다. 정말 어딜보나 명절옷차림으로 떨쳐나선 사람천지였다.

《에그, 우리가 늦었구나. 이를 어찌니?》

팔갑을 눈앞에 바라보는 어머니였지만 젊은이들못지 않게 성미가 불같아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여보슈, 길 좀 내주시우. 꽃바구니 좀 나갑시다.》

어머니는 앞선 사람들에게 빨리 걸으라고 소리도 치고 사정도 했다. 허나 누구하나 길을 내주려하지 않았다.

하기야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행복한 새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 축원의 마음이 꽃으로 피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길을 양보한단말인가.

《어머니, 서두르지 마세요. 다 만수대언덕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길을 내주겠어요?》

《으응? 그렇지. 우리만 가는게 아니지. 내가 로망을 했나부다. 하하...》

어머니는 늙은이답지 않게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두릿두릿 주위를 돌아보는것이였다. 그제야 어머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머리흰 과학자풍의 사람과 훈장을 가슴가득 단 인민군장령과 빨간 령장의 인민군전사, 청년대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부색도 언어도 차림새도 전혀 다른 외국사람들의 손에 손마다 정히 들려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다 띠여본듯이 두눈이 커지였다. 그러는 주름살깊은 어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펴 도는것이였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러 온단 말이지. 저 외국사람들도... 그렇지, 그래. 우리 수령님께서 이런 축원을 응당 받으셔야지, 받으셔야 하고말고... 한생 휴식을 모르신분인데 오늘만은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며 하루 푹 쉬시었으면...》

누가 들으라기보다 자신의 진정을 쏟는듯한 어머니의 그 말은 나의 가슴을 쿵 울리며 뜨겁게 들러왔다.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시여 백두의 눈바람을 다 맞으시고 전쟁의 불비속을 헤쳐오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 그 어느 하루라도 편히 쉬신적이 있었던가.

문득 취재길에 로투사동지에게서 들은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올랐다.

1953년 7월 28일.

수도의 광장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떠나갈듯했다. 조선천지가 승리자의 환희와 긍지에 넘쳐있었다.

적기의 편대들이 어지럽게 썰던 하늘에 등불을 모르던 거리와 산천을 밝히며 축포가 날아올랐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축포의 은은한 소리를 들으시며, 그 휘황찬란한 빛발속에 영광에 넘치는 축배잔을 받으시고 부디 쌓이고쌓인 로고를 풀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폐허를 뚫고일어설 조국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고 전쟁승리를 경축하는 축포를 그 길에서 바라보시였다.

이날 낮 군중대회의 주석단에서 내리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부러진 전선대와 헝클어진 전선줄들, 디디면 아직 뜨거울것만 같은 기와장과 벽돌장들 ... 채더미에 덮인 거리를 바라보시다가 강남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강남! 그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하여 몸소 전쟁의 포화속을 헤치고 현지에 나가시여 강남요업공장터전을 잡아주신곳이다. 수행한 일군은 저녁에 경축연회도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쉬셔야 하지 않는가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저으시며 어서 강남으로 가자고 하시였다.

이날 강남요업공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동강변에 저녁노을이 불타도록 현지지

도를 하시다가 꺾 늦어서야 평양으로 들어오시었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방금 철교부근을 지났을때 수도의 밤하늘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축포가 터져올랐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의 구원자이시며 세계 평화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경축연회의 높은 연단에서가 아니라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밤하늘에 퍼지는 꽃보라에 담긴 만민의 축하를 받으시었다. 달리는 승용차의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비쳐오는 기쁨에 넘친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참 좋은 밤이라고 기운이 막 솟는 밤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

생각할수록 눈시울 뜨거워지는 이야기였다.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분이시기에 그이를 따르는 한마음 더욱더 절절해지는것 아니라.

달아오르는 마음 안고 수령님 동상앞으로 다가서는데 만수대언덕으로는 꽃바구니들이 연방 꼬리를 물고올라 그 넓은 언덕우에 화려한 꽃바다가 펼쳐졌다. 각양각색의 그 꽃바구니들중에는 늦은 봄에 피어나는 철쭉꽃이 철을 당겨 하나의 큰 꽃바구니를 이룬것이 있는가 하면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바라는 일념에서 키운 알알이 붉게 익은 복숭아와 감이 탐스럽게 달린 대형화분도 있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법이다.

우리 가정이 날과 날을 세여가며 꽃을 가꾸었듯이 저 사람들도 꽃나무결에서 꽃잎이 시들세라 피어나는 꽃이 수정이 잘되고 주먹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여와 오늘의 이 꽃바다를 펼친것 아니라.

아름다운 화원의 바다우에 서있노라니 불현듯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하셨다는 뜻깊은 말씀이 가슴을 울리며 안겨오는것이였다.

참으로 묘한것은 꽃들이 4월 15일에 만발하였다가 점차 지기 시작하여 5. 1절에 가서는 완전히 지는것이라고, 수령님께서 이런 꽃계절에 만민의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시였다고 하여 세상사람들은 4월 15일은 하늘이 낸 날이라고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

피어나는 한송이의 꽃을 보시여도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시여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결부시켜 생각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런분이시기에 인류력사 수천년에 처음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명실공히 조선의 뜻깊은 명절로 기념하도록 하시였고 그 숭고한 뜻을 새긴 인민

이어서 이처럼 축원의 꽃바다를 펼치는것 아닌가.

축원의 그 마음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위도와 경도를 넘어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화가 피어나게 했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김일성**거리와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김일성**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 동방조선에 솟은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향기를 풍기는것이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화려하고 이채롭게 펼쳐진 우리 나라의 독특한 풍경, 이 때혹적인 경치에 취한 한 외국인은 벽차오르는 흥분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즉흥시를 격조높이 읊는 것이였다.

위대하신 **김일성**주석

그이는 하늘이 낸 날에

탄생하시여서

하늘도 알아보는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닿는

인민의 충성이여서

꽃들도 한날한시에

하나같이 활짝 피였구나

인류의 명절 4월 15일에

...

두팔을 높이 들며 웨치는 그의 흥분된 즉흥시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듯하였다.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웨치는 그 외국인의 모습을 눈여겨보다가 저 사람이 뭐라 하는가고 물었다. 내가 그가 읊은 시내용을 알려주자 어머니는 느슨히 미소를 띠우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 나라의 봄은 수령님 모시는 인민의 마음이 받들어올리는 축원의 봄이다. 축원의 봄이야.》

주위에 섰던 사람들이 어머니의 그 말을 긍정이나 하듯이 모두 박수를 쳤다.

축원의 봄!

흙모의 마음들이 자연보다 먼저 봄을 부르고 꽃을 피워 아름다운 화원을 펼치는 조선의 영원한 봄.

나는 만리창공을 가리키시며 거연히 솟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뜨겁게 뇌이고 또 뇌이였다.

《아버이수령님!

만년장수하시기를 바라는 인민의 마음, 하늘에 닿는 인민의 축원속에 부디 천세만세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버지와 딸

류동호

1

그저 수수한
외태머리치녀였습니다
30여년전
수령님앞에 섰던
산촌마을 상점의 판매원치녀는

《우리 가정수첩》의 주인
인민을 위하는 그 정성 너무도 기록해
우리 수령님 그리도 만족해하실 때
치녀의 가슴속에 해살처럼 비쳐든것
친아버지만 같으신 수령님의 미소였습니다

이 동무가 영웅감이라고
인민을 위해 수고하는
이런 동무들을 당에 받아야 한다면
수령님 몸소 입당보증을 서주실 때
당원중에 또렷이 새겨진 그 존함은
진정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세간난 집난이의 집에 찾아오시듯
도에 오실적마다 들리시여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눈시울 적시며 가슴속에 새겨안은것은
수령님 것처럼 위하시는
《나의 매대》를 꽃피워갈 맹세였습니다

훌륭한 어버이에겐
잘나고 못난 자식 따로 없듯이
하루도 몇달도 아니고
수십년을 하루같이 이어진 사랑
사랑은 충성을 낳았습니다
사랑은 효녀를 키웠습니다

2

사랑의 생일상앞에서
귀중한 은수저 두손으로 받쳐들고
딸은 뜨거운 눈물속에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감자 다섯말에 팔렸던
민머느리 가련한 인생을
따뜻이 안아 영웅으로 키워주신것만도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다니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정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보라치는 고개를 넘고넘던 그 밤길에도
사나운 신적천의 여울목을 건널 때도
걸음걸음 마음속에 함께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만을 생각했습니다
거름통 등에 지고 새벽길 걸을 때도
우등불 켜들고 개간지에 씨앗을 물을 때도
부르르고 터갈린 손
애틀이 어루만져주시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던 아버지

해마다 안아온 고지풍년에
비단이불, 양복천...
집집마다 기쁨속에 안겨줄 때도
인민이 좋아하는 새 상품이
매대마다 가득가득 쌓여갈 때도
마음속기쁨을 먼저 아뢰이던 아버지

세월은 흘러흘러 수십년
강산은 몇번을 번했어도
변함없이 더 뜨거워진것은
수령님과 산촌의 한 녀인
혈육처럼 오고간 사랑과 의리였습니다

3

우리 촌실이
우리 아버지
너무도 다정한 부름이
너무나도 레사롭게 울립니다
정녕 너무나도 가슴속에 뜨겁습니다

수령님과 딸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앞에
산촌마을의 한 평범한 인간이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게 어울립니까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그 심중을
누구보다 뜨겁게 가슴에 새겨안고
인민의 참된 행복으로
자기를 다 바쳐가는 복무자였기에
촌실이는 수령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특하다고

네가 정말 영웅이라고
장한 딸의 팔을 다정히 끼시고
온 세상이 다 보고 부러워하는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수령님

딸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전천종합상점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 춘실이와 함께 일하는 동무들은
다 혁신자라 하시며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인민은 모두 정춘실이가 되고싶었습니다

정춘실이는 인민의 총복이고 충신이라고
이런 일군이 200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몇번이고 다시 수령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나라의 아들딸들 모두가
정춘실이가 되고싶어하는 그 소원 헤아리시여
《정춘실운동》을 발기하시었습니다

수령님과 정춘실
아버지와 딸
천만이 그결에 자신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것이
부자간의 정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는
혈육의 뜨거운 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만지는
수령님의 사랑이고 인민의 진정입니다

아, 우리 수령님
수령님은 진정
우리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인민은 모두
수령님의 친아들딸입니다

4 월 25 일 이날엔

방만필

하많은 일감들
뒤로 미루시면서도
4월 25일, 이날엔
수령님께서 꼭 오시네

천만자식 다 귀하건만
그래도 총잡은 자식이 대견해
찾고찾으시는 어버이처럼
기다리신듯 이날엔
기쁨속에 찾아오시네

오시여서는
달려와 안기며 얼굴을 묻는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톡살배긴 손도 하나하나 잡아보시며
그새 키도 컸다고 기뻐하시네

소박한 식사도 함께 하시며
자랑많은 병사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창조로 들끓는 온 나라 소식이며
인민들 마음도 전해주시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시네

오실 때에는 동트는 새벽이었던만

별빛내린 그 한밤도 지새우시려는듯
전사의 편지도 보아주시고
노래도 들어주시며
밤가는줄도 잊으시네

정녕 꽃들이 만발한 봄날에
해빛안고 기쁨안고
수령님 오신 날은
초소에도 명절
온 나라에도 명절

나라의 큰 대문을 지켜선
병사들을 못잊으시여
수령님 걷고걸으신
그 같은 몇만리이며
맞으신 눈비는 그 얼마이라

오, 우리 수령님
안도의 그날부터 지나긴 세월속에
4월 25일 이날엔
온 나라 인민들을 초소에 부르시여
조국의 사랑속에 병사들을 축복하시네
이날만은 병사들을 꼭 찾아오시네

크나큰 믿음, 끝없는 배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인 리찬에게 돌려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리맥

1946년 4월!

광복된 조국에 찾아온 첫봄은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끝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거리와 마을, 산과 들 그 어디에나 봄과 함께 새 삶이 약동하고있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이 맞은 첫봄은 진정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과 더불어 새 생활의 환희와 행복을 끝없이 꽃피워주고 있었으며 건국열에 불타는 우리 인민의 투지를 더욱 고무해주고있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의 기세는 실로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이렇듯 우리 인민의 양양된 혁명적열의에 질겁한 혁명의 원수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거세찬 전진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과 해방직후 여기저기에서 머리를 쳐들고 나온 이색분자들은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원수놈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혁명력량을 분열약화시킴으로써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파탄시켜보려고 분별없이 날뛰었다.

당시 시인 리찬이 일하고있던 함경남도에서는 사정이 더욱 험악하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작간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고 경원시되고있었으며 이러한 해독행위의 후파로 말미암아 혁명력량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저해를 가져오고있었던것이다.

이리하여 조국이 광복되던 날 독립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던 함경남도안의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인테리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차 사기를 잃고 동요하게 되었다.

현실은 사태를 팽창하게 판단하고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바로 그 력사적인 시기에 이렇듯 긴절하고 중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옳게 풀어나가신분은 오로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름없는 한 시인에 지나지 않았던 리찬동무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무렵 시인 리찬동무는 도안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있었다.

종파분자들은 그의 《과거 경력》을 운운하면서 해산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던 그를 리유없이 해임시켰으며 신문기자로 옮겨왔은후에도 집요하게 뒤를 캐고다니며 박해하고 쫓아다녔던 것이다. 좌경분자들의 편협한 행위로 인하여 시인은 차츰 자기 전도에 대한 위구심을 품게 되었으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6년 4월 어느날이었다.

리찬동무는 이날도 신문사의 자기 방에서 번민으로 하루해를 보내고있었다.

하나 시인은 그 시각 자기의 운명에 어떠한 광명이 비쳐오는지를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그렇듯 모태기던 그에게 세상에 다시없는 영광과 행복이 차례질줄을 그 누가 알수 있었으랴!

리찬동무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에 참가하라는 초청장을 받았던것이다. 실로 그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이였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행복이었다.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리찬동무는 목이 메여올라 아무 말도 찾을수가 없었다.

그는 서둘러 신문사를 나섰다.

리찬동무가 연회장애 들어섰을 때는 벌써 도안의 각 정당, 사회단체 일군들과 기업가, 상인, 종교인, 인테리들이 빼곡이 들어서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모여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한없는 감격과 기쁨이 어리어 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안의 각 정당, 사회단체 무소속일군협의회를 여시고 반당종파분자들의 모해를 받아 절망과 우울 속에서 날을 보내던 수많은 애국적민주인사들과 민족적력심을 가진 기업가, 상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대표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보람찬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뜨거운

포용력에 감동된 함경남도안의 각계각층 대표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를 환영하는 연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회장에서 그들과 함께 장군님께서 나오실 문 쪽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있는 리찬동무의 심정은 몹시도 설레었다.

(내가 정말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뵈게 된단말인가?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는 연회에 참석하게 되다니!...)

그는 꿈만 같은 현실이어서 잘 믿어지지 않았고 한분한초가 너무 더딘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장내는 《만세!》의 환호성으로 떠나갈듯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연회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손을 높이들어 답례를 보내시었다.

새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비낀듯 빛을 뿌리시는 눈길로 장내를 돌아보시는 그이, 신념과 열정에 넘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순간 리찬동무는 가슴이 세차게 뚫어번졌다.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마침내 강도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숙원을 이룩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젊으신 안광을 우러르는 순간 솟구치는 걱정을 견잡을수 없었다.

젊은 시인의 가슴은 크낙한 감격으로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이윽하여 연회가 시작되었다.

연회참가자들은 버림받아오던 자기들을 따사로온 한품에 안아주시고 새 생활의 참된 길우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회참가자들에게 다음과같이 교시하시었다.

여러분,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모두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마디마디가 그대로 한없는 믿음이었고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 믿음과 사랑은 모인 사람들의 가슴속에 응이로 박혔던 우울과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렸고 죽어도 잃지 않는 영원한 삶의 자양분으로 심장깊이 아로새겨졌다.

귀밀머리 흰 기업가들과 종교인들도, 청년인테리들과 상인들도 모두다 감격의 흐느낌을 터뜨렸다. 얼굴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그 순간 리찬동무의 머리우에 번개치듯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문도 기별도 없이 오시였지만 그리운 장군님께서 오신것을 민중이 어찌모르랴.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은 이 나라에 망국의 비문이 서리였던 지난날에도 새 조국 건설의 오늘에도 찬란한 해발로 삼천리 온 강토를 밝게 비쳐주 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아!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다!)

격동하는 연회장의 고조된 분위기속에서 생각이 여기에 이른 시인 리찬동무는 용암처럼 분출하는 심장의 웨침을 더는 누를길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놀라움과 의문이 함께 영킨 못시선이 일시에 그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께 머리숙여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나서 심장의 웨침 그대로 즉흥시를 읊기 시작했다.

장군이 오시는것을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적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 만으로도 족하신듯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한다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턴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장군의 따사로온 초양은 이미
령세한 눈발우에 드리우고
이제야 중천에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치솟군다

장내는 공감과 환희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시인은 자신을 외람되다고 돌이켜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가지만은 굳게 믿고있었으니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읊고있는 즉흥시가 저 혼자의 심장속에서만 울려나오는것이 아니라라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진정 하나로 고동치는 온 겨레의 념원이었고 시대가 부르는 송가였다.

시인은 그것을 믿고 느끼며 양양된 감정 그대로 불을 토하듯 높이 뿜었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 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즉흥시 랑송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김일성 장군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갈채가 폭풍처럼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연회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며 리찬동무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뜨거운 눈물을 쏟은 것은 시인뿐이 아니었다.

연회참가자들이 감격의 흐느낌속에 목메여 부르는 《만세!》의 환호는 절정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모두 자리에 앉자고 거듭 권하시었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부르는 《만세!》의 환호와 박수갈채는 더욱 높아만 갔다.

얼마나 그리고그리던 장군님의 품이었던가! 그 얼마나 은혜로운 장군님의 손길이신가!

나라 없던 지난날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서울과 일본 도교 그리고 압록강연안과 남북삼천리를 방황하면서 일제의 철창속에서도 목메여 불렀던 그리운 장군님,

해방후 종파놀들의 모해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애오라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그리며 울분을 묵삭여온 시인이었다.

그러던 시인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곁에 불러주시고 뜨겁게 안아주시며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시인은 진정 한없이 은혜로운 장군님의 품에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재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목이 메었다.

나는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격정에 넘쳐 울며 웃던 시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때 리찬동무는 내 손을 으스스하게 잡아흔들면서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모두의 태양이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시인 리찬동무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삶의 첫걸음을 땔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푸신 믿음과 사랑은 시인의 심장속에 새로운 창작적열정을 불려일으켰고 바다라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북돋아주었다.

용솟음치는 신심과 굴할줄 모르는 투지를 가지고 창작에 정진하던 리찬동무는 또다시 크나큰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6년 5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시인 리찬동무를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 각 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 불러주시었을뿐아니라 분에 넘치게도 그를 대회의 연단에까지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민주주의 적민족문화건설에 관한 로선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그이의 자애로운 손길에 이끌리어 토론까지 하게된 리찬동무는 이 세상의 모든 영예와 행복을 혼자서만 받아안은듯싶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하는 전기간 실로 한가슴에 다 안을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나 그의 한가슴을 견잡을수 없이 격동시킨 보다 감격적인 소식이 그날 저녁 러관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전해졌다.

대회에서 받은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은 가슴을 안고 리찬동무는 평양의 야경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이윽도록 서있었다.

바로 그때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는 한 일군이 리찬동무를 찾아 러관으로 달려왔다. 그 일군은 리찬동무를 만나기 바쁘게 저르기 흥분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대회에서 한 리찬동무의 토론을 처음부터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리찬동무는 자기의 토론에서 식민지 인테리의 쓰라림을 안고 거처를 세파에 시달려오던 작가, 예술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믿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말했으며 영명하신 장군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새 조선 건설에 미력한 힘이나마 다 바쳐 일할 굳은 결의를 다졌었다. 그런데 그의 토론은 자주 동강이 났고 때로는 말끝을 제대로 매듭짓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없이 자애로우신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의 더듬는 말마디와 젖은 말소리에서 그의 진정을 헤아려보시였으며 리찬동무가 토론을 끝마쳤을 때에는 제일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동무의 토론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회주석단에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토론을 잘했습니다.

리찬동무는 전번에 우리가 함흥에 갔을 때에도 자작시를 아주 열정적으로 읊었습니다. 함흥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차린 연회는 저 동무의 시랑송으로 하여 더욱 인상이 깊습니다.

그 시가 좋다고 김책동무가 나에게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동무가 해방전에도 시를 많이 썼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었다는것이였다.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글로써 건국사업에 복무하는 투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투적인 시와 노래는 새 민주조선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줄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찬동무와 같은 시인들과 문학예술인들을 우리 당과 인민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동무가 어데서 일하고있는가고 물으신 다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긴 교시를 하시였다.

...리찬동무를 함흥에 내려보내지 말고 평양에서 일하게 합시다... 저 동무가 인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시를 많이 써내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가족들도 인차 데려오도록 합시다.

리찬동무는 함흥보다 여기 평양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친아버이의 뜨거운 은정이 담긴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해들으며 리찬동무는 사랑에 겨워 행복에 겨워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울었다.

그날밤 시간은 새날을 알리며 흘러갔으나 시인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자기앞에 넓게 열린 새 삶의 길을 내다보며 드높이 고동치는 심장속에 오로지 장군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살며 일할 신념을 깊이깊이 아로새겼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리찬동무는 그후 평양에서 갖 조직된 북조선 예술총련맹 서기장의 중책을 맡고 일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름없는 한 시인에 지나지 않았던 리찬동무에게 것처럼 크나큰 신임을 베푸신 다음에도 그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1945년 6월초의 어느날이였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보통강개수공사 현장에서 리찬동무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힘과 용기가 솟구치게 하는 사랑과 고무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이날 점심때였다.

한낮의 실참마저 뒤로 미루시고 또다시 보통강개수공사현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사장에 뛰어들어 한창 일하고있는 리찬동무를 알아보시고 그를 반갑게 만나주시였다.

뜻밖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또다시 뵈게 된 리

찬동무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제대로 인사도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흠물은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는데였다.

...좋은 일이요.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호흡해야 그들의 심정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훌륭한 작품을 쓸수 있소.

소편대공연도 잘한다는데 더 많이 조직합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시인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군중의 심정을 알수 있고 그래야 훌륭한 작품도 쓸수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시인의 심장속에서 태동하던 장엄한 창작세계, 가슴부풀게 하던 시상을 양양된 시적감흥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심으로 승엄하게 안겨왔다.

그렇다! 작가는 군중과 같이 호흡해야 하며 그들의 불같은 심정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방된 조선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인민의 의지와 념원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새 조선의 진두에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이며 그이에 대한 열화같은 다함없는 감사, 영원히 변치 않을 충성의 한마음이다.

대대로 숙원하던 땅의 주인이 된 기쁨을 못이겨 분여받은 땅에 불을 비비던 함주벌의 농민도, 즉흥시를 읊던 그밤에 장군님은 만민의 심장속에 계시는 해님이시라고 눈물에 젖어 웨치던 로목사도, 여기 보통강반에 바다도 막을 충천한 기세로 애국의 제방을 높이높이 쌓아올리는 민주수도의 시민들도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타번지는 하나의 념원,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그렇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을 담아 글을 쓰리라!

이 땅에 태어난 새 세상과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노래를 부르리라!)

뇌리에 우뚝치는 이 상념을 안고 시인 리찬동무는 그날부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갔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장군님에대한 인민들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작품에 담을수 있을것인가.

흥분과 열정속에서 시상을 무르익히며 쓰기를 그 몇번, 하지만 사색을 깊이하면 할수록 태양과 같이 영원할 위대한 장군님의 노래는 가없이 푸른 저 하늘에도 다 담지 못할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시인은 창작적모태감속에서 탐구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책동지가 시인을 찾았다. 그

는 안타까운 모태김숙에 날을 보내는 리찬동무에게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고 무척 기뻐하는 그를 고무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책동지는 시인과 한주일동안이나 침식을 같이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하여 걱정에 넘쳐 이야기해주었으며 우리의 장군님처럼 위대한 영웅, 절세의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 순간 리찬동무는 그렇게도 찾고 밤을 지새우며 모태기던 시상이 번쩍하고 떠오르는것을 느꼈다.

만고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혁명의 대오를 이끄시고 장백산줄기마다 압록강 굽이마다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조국으로 조국으로 진군해나가는 장엄한 화폭이 시인의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지는것이였다.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인의 창작사업전반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항일혁명의 그나날에 품에서 떼놓으시지 않던 혁명가요집을 그에게 주시였다. 그리고는 다심한 손길로 시인의 창작적경지를 높이 이끌어주시였다.

이는 시인의 창작에서 무한한 힘과 열정을 날게했다.

리찬동무는 드디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경모와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활화산처럼 뿜어올리며 붓을 달렸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시상은 끝없이 하늘에 날고 노래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흘렀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는 영광의 노래, 충성의 노래, 온 세상 사람들이 희망에 넘쳐 높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영원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사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후 이 가사는 명곡으로 완성되였다.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시창회

가 열리게 되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선물을 타고 해방된 조국산천에 울려퍼지는 위대한 태양의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

시창회참가자들은 더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혁명송가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보급하는것을 서두르지 말라고 겸허하게 이르시였다.

한없이 겸허하시고 고결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송가창작이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된 첫시기부터 그것을 마다하시여 김책동지에게 간곡히 교시하시였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송가의 창작이 완성되였다는것도 시창회가 준비되고있다는것도 미리 보고를 올릴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날의 시창회는 장군님께서 다른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시고 나오시는길에 잠시 들리시자고 말씀올리어 다행히도 그이를 모시게 된것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 삼가 올리는 한편의 송가마저 그처럼 굳이 사양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고개가 숙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 나라 인민에게 력사에 없는 행복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고 이 나라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앞에 어찌 한두곡의 노래를 바쳐 만족할 우리 인민이겠는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조국과 인민앞에 이룩하신 위대한 공헌은 천만편의 노래로 부르고 칭송해도 모자라건만 그이께서는 이토록 자신을 두고 너무도 겸허하신것이다.

이날 시인의 가슴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로 하여 끝없이 설레였다.

이름없던 청년시인, 반당종파분자들의 박해를 받아 창작적열정마저 식어가던 리찬동무, 그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혁명시인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그이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과 사랑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열정이 되어 만민이 우러러부르는 태양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창작할수 있었던것이다.

진정 그 크나큰 믿음, 끝없는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식어가던 시인의 심장은 화산처럼 끓고 창작의 나래는 창공으로 솟구치며 주옥같은 시작품들을 련이어 창작해낼수 있었다.

송시 **《더욱 굳게 뭉치리 그이의 두리에》**와 **《홀려라 보통강, 새 력사의 한복판을》**을 비롯하여 시집 **《화원》**과 **《승리의 기록》** 등 수많은 시집에 수록된 시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나날이 룡성번영하는 조국,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어 길이 빛날 시대에 대한 찬가였으며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부르는 우렁찬 노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시인 리찬동무에게 친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며 그의 창작에서 일찌기 없었던 전성기를 마련하여주시었을뿐아니라 그의 사업과 생활의 걸음걸음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1946년 8월 중순경이라고 기억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리찬동무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작가, 예술인 대렬을 꾸리는 데서 나타나고 있던 편향을 날날이 지적해주시면서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편협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셨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또다시 그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문학예술창조사업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면서 혁명적인 가요들을 창작할 데 대한 과업도 주시었으며 한 시인이 창작중에 있던 서사시의 초고도 함께 듣고 의논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사상적대를 바로세우고 형상을 높일 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며 시인의 창작적 안목을 키워주기도 하시었다.

한 전사의 성장을 위하여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진정 끝이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직 준비가 어린 그를 크게 믿으시고 중앙기관 부책임자 직책을 맡겨주시었을뿐아니라 그의 견문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1916년 8월 초순, 우리 나라에서 사절단을 외국에 파견하게 되었는데 많지 않은 그 성원들 가운데에는 작가, 예술인대표로 시인 리찬동무가 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국을 방문하는 사절단의 전체 성원들을 친히 접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절단성원들에게 우리는 지금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남이 해놓은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옷차림에서부터 언행에 이르기까지 대외활동에서 지켜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면서 사절단성원들이 레철바르면서도 축잡하지 않도록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갔지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시인과 사절단성원모두를 오찬에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식탁에 앉은 리찬동무의

마음은 해돋이를 맞이하는 바다처럼 마냥 설레이었다.

돌이켜보면 그이를 모신 연회에 처음 참가하던 때가 어제같은데 그사이 자기의 운명에는 얼마나 놀라운 전변이 이루어진 것인가! 믿어지지 않는 그 전변과 성장의 걸음마다엔 해빛같은 아버이장군님의 손길이 미치여있었다.

리찬동무가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삼키고 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잔에 철철 사랑을 부어주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시었다.

서양사람들의 술은 입에 불이기는 좋지만 주정이 높아서 갑자기 취할 수 있으니 연회같은데 참가하면 주의하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아, 그 은정, 그 믿음! 육친의 정이면 이보다 더 살뜰할 수 있으며 스승의 보살핌이면 이보다 더 극진할 수 있으랴!

시인 리찬동무는 이렇듯 뜨겁고 극진한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그이의 혁명전사로 인민적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닐 수 있었으며 새 조국 건설의 앞장에 선 일군으로 자기의 초소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리찬동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조선혁명의 전위대오에 들어서면서 심장속에 굳은 맹세를 다지었다.

-한생을 변함없이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그는 불타는 심장속에 신념으로 간직된 이 맹세를 한시도 잊은적 없었으며 그것을 생활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시인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은 년륜이 새겨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1947년 5월 초였다.

리찬동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표창의 첫 수상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실로 꿈같은 일이었다. 행복한 그 시각에 시인은 아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참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인 자신도 그 표창에 깃든 은정깊은 사랑을 다는 알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북조선 인민위원회 문화선전국의 책임일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야 시인은 그 영광과 행복이 어떻게 자신에게 차례지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라의 첫 표창장명단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었다. 표창장명단에는 단 여섯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많지 않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려가시다가 리찬동무의 이름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리찬동무는 우리 인민정권이 주는 첫 표창을 받을만합니다.

그 동무는 건국사업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친 진보적인 인테리이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함흥에서도 리찬동무는 일을 잘했고 또 평양에 올라온 다음에는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과 인민정권 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그 동무는 보통강개수공사때 작가, 예술인 소편대를 조직하여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선전사업과 위안공연사업도 잘하였습니다.

좋은 작품을 창작하여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우리 당이 내세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앞장에서 몸바쳐 투쟁한 리찬동무에게 첫 표창을 주자는 동무들의 제의에 나도 동의합니다.

시인 리찬동무는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한량 없는 사랑속에서 살며 일하였다. 은혜로운 그 빛받은 창작열의에 불타는 시인의 심장에 슬기와 열정을 샘솟게 하여주었으며 뜻하지 않게 덮쳐온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대기던 가슴에 소생의 봄빛을 비쳐주기도 하였다.

그것은 1947년 11월초에 있는 일이었다.

리찬동무에게는 천만뜻밖의 시련이 닥쳐왔다.

1947년 10월 31 한 출판물에는 《시인 리찬의 시를 평함》이라는 제목을 단 장문의 평론이 실렸다. 무엇을 우려했는지 가명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 논평의 필자는 리찬동무가 해방직후에 창작발표한 몇편의 시작품들에서 개별적인 시어들을 꼬집어내어 제 나름으로 시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민주제도와 당을 모독한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반동》들의 목소리와 같은것이라고 마구 중상하고있었다.

문단에서는 론의가 분분했다. 화살은 리찬동무의 미학관을 따져묻는데로 육박해들어갔다.

그 당시 우리 작가, 예술인 대렬은 복잡하였다. 그속에는 우연분자들도 끼여들었으며 정체를 가리운 불순이색분자들도 잠입해있었다. 이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 당 문예정책을 헐뜯으며 우리 대렬의 단결을 파괴하고 리찬동무와 같은 문학예술인부대의 핵심들을 깎아내리는것을 감행해나섰던것이다.

아직 리찬동무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진상을 모르고있었다.

시인은 마음찡기는 진통, 참기 어려운 번뇌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문화선전국의 한 일군으로부터 리찬동무의 시를 평한 평론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리찬동무가 창작발표한 일부 시편들이 문제시되어 그가 《반동》으로까지 몰리우며 압력을 받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이윽도록 깊은 생

각에 잠겨계시다가 단호히 말씀하시었다.

리찬동무는 반동작가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공산주의까지 변함없이 갈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반동이라면 해방될 때 그 리고 함흥에서 좌경분자들이 모해하였을 때 다른 길로 갔을것입니다.

리찬동무는 우리 당의 작가이며 애국적인 인테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확신에 넘쳐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면서 그 평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해명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인민정권의 첫 표창을 받은 동무가 오늘은 피이하게도 반동작가처럼 공격을 받고있다고 하시면서 저으기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론을 하는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고 건설적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론이 작가와 작품을 깎고 시비하는 수단으로 될것이 아니라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고 우리의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뿐만아니라 쓸데 없는 공담과 시비만 하는 평론, 남을 시기질투하는 경향은 우리의 문학예술발전에 리롭지 못하며 작가, 예술인 대렬의 단결에도 장애를 주는것이라고 엄격하게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한 평범한 작가에 지나지 않는 리찬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깊이 보살펴주시며 그가 걷는 길위에 가로놓였던 난관도 몸소 헤쳐주시였던것이다.

시인 리찬동무는 바로 이렇듯 그 깊이와 뜨거움을 헤아릴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시인의 영예와 생의 보람을 누릴수 있었다.

하기에 그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으로 싸워나갈수 있었으며 조국이 시련을 겪던 준엄한 나날에도 오로지 수령님만을 따르는 한마음으로 준엄한 천리길을 걸을수 있었던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때 문화선전성에서 일하던 리찬동무는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강선의 로동계급을 고무하기 위한 중앙과견강사로 그곳에 나가있었다. 그런데 그가 임무를 마치고 평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후퇴하여간 뒤였다.

이리하여 리찬동무는 뒤늦게 후퇴하게 되었다.

순천부터는 산발을 타야만 했다. 그는 걸음마다 뒤따르는 위험과 밀려드는 피로를 이겨내며 걷고 또 걸었다. 그의 발은 얼마 못가서 물질투성이가되었다.

험한 산길에 굴러떨어진적이 몇번이였고 아슬아슬하게 넘긴 위기도 몇번인지 몰랐다.

하지만 리찬동무는 오직 그 길만을 즐기치게 걸었다.

물론 그 길은 충성의 일념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투쟁의 길이였다.

그러한 준엄했던 그해 겨울에 어느 누가 이런 곤난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국을 살피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한없는 신임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1950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동무가 최고사령부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장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당을 따라, 정부를 따라 고생을 무릅쓰고 리찬동무가 왔습니다. 난관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온 리찬동무야말로 애국적인 작가이며 우리 당의 우수한 당원입니다.

나는 리찬동무가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리찬동무와 같은 작가, 예술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며 아껴야 합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믿음이신가, 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 사랑이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리찬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리찬동무는 위탈을 가지고있는데 건강을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미국놈과 싸워이기자면 사람들을 아껴야 한다고 일군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시고 전후복구건설의 그 바쁘신 나날 황철에서 현실체험을 하고있었다는것을 아시고는 그의 안색을 살피시며 몸이 더 축간것 같다고 걱정하시며 위병에는 삼방약수가 좋으니 그곳에 가서 폭 쉬며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고치기전에는 돌아 오지 말라고 육친의 정으로 돌봐주시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인 리찬동무에게 베풀어주신 신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다만 한가지 1962년 1월중순에 있었던 감격적인 이야기만을 더 전하려 한다.

이날 시인 리찬동무는 또다시 한가슴에 반아안기엔 너무도 크고 벅찬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작가, 예술인들을 친히 불러주시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리찬동무는 사무실에 없었기때문에 그 소식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군들모두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달려왔는데 이 시각에 리찬동무는 당을수 없었다. 일군들은 리찬동무가 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리다 못해 시간이 되었음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따듯이 맞아주시었다.

그런데 한사람한사람 손잡아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왜 리찬동무가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사무실에 없었던 관계로 전달이 늦어졌다는 보고를 들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러면 리찬동무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두들 제자리에 앉으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순간 방안에는 감격의 높은 파도가 굽이쳤다.

경건한 정적이 깃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렇듯 귀중한 시간이 한초한 초 흐르고있었다. 그이를 우러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행복감을 더욱 뜨겁게 느끼며 소리없는 눈물을 삼키고있었다.

리찬동무가 들어선것은 그로부터 30분이 지난후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바빠 들어서는 리찬동무를 보시고 무척 반가와하시며 《리찬동무가 왔구만!》라고 하시며 그간 건강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주체적문학 예술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었다.

리찬동무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는 영광과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평범한 시인을 기다려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깊고깊은 사랑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나서기에 앞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리찬동무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창가를 우러르며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아, 경애하는 수령님은 위대한 인간이시다! 우리의 태양이시다!)

시인은 두볼을 뜨겁게 적시며 마음속으로 높이 웨쳤다.

세월은 흘러 리찬동무가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웠던 영광의 그날부터 스물다섯해가 지나간 1970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창건사적관을 돌아보시면서 25년전에 함흥에서 청년시인 리찬동무를 만났던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던 그 나날에 은하수의 못벌처럼 박혀있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때 리찬동무가 시를 읊었다고, 김책동무가 그 시를 좋아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날 사리원에서 이 가슴뜨거운 소식을 전달받은 리찬동무는 아득히 흘러간 그날로부터 환갑이

지난 오늘까지 오히려 깊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대하여 목이 메여 눈곱을 적시었다.

실로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은 기슭을 모르는 우주같이 무한대하며 끝을 모르는 하늘같이 한량없는것이다.

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더듬을 때마다 시인이 세상을 떠난후에 그와 그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은정을 생각하며 후회워지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다.

1974년 1월 5일 시인 리찬동무는 65살을 일기로 자기 생애를 마쳤다. 그날은 새해에 들어서면서 첫번째로 있는 토요일학습날이었다.

당시 황해북도예술선전대 작가로 사업하던 리찬동무는 환갑은 넘었어도 학습에서는 언제나 모범이었다.

그런데 이날 그는 학습에 참가할수 없었다.

이즈음 그는 오랜 병환으로 제물 하나 가늘만한 기력도 없었다.

리찬동무는 당조직에 이 사정을 보고했다.

하지만 시인은 자리에 누워있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비쳐주시는 사랑의 빛발이 그를 일으켜세웠다.

리찬동무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새해신년사를 연구발취해나갔다.

그러던 그가 손에 펜을 쥐고 의자에 앉아 학습하던 그 모습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그날따라 시인은 동무들이 보고싶다고 하면서 밤이 깊어도 그날에 취급한 학습강사의 제강을 빌려가지고 꼭 와달라고 동무들에게 부탁했었다.

밤이 깊어 동무들이 왔을 때 시인은 깊은 사색에 잠긴듯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충성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던 시인 리찬동무는 이렇게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총화하며 우리결을 떠나갔다.

위대한 스승이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님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으로 새기며...

그로부터 며칠 지난 1974년 1월 8일 저녁, 아직 슬픔이 가셔지지 않은 시인의 유가족을 찾아 문예총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이 왔다.

그 일군은 리찬동무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그들을 찾아보라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리찬동무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하신 다음과 같은 교시를 전달하는것이였다.

<왜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민주조선>과 <평양신문>에 문예총의 명의로 부고를 내시오. 재능있는 작가를 아깝게 잃었습니다. 리찬동무는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당을 위해 충실한 동무였습니다...>

이어 그 일군은 정히 포장한 상자를 유가족들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와 당중앙에서 시인 리찬동무의 령전에 보내준 제물이 들어있는 조의품이였다.

마디마디에 뜨거운 사랑을 담아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은정이 어린 조의품을 받아안으며 리찬동무의 막내딸이 오열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6남매는 북받치는 걱정애 울고 또 울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읜 가슴쓰린 설움이 고인 눈물이 아니였다.

그것은 6남매가 받아안은 가장 숭고한 사랑과 행복의 눈물이였으며 목메인 그들의 흐느낌은 죽어서도 잃지 않는 생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올리는 감사의 눈물이며 베풀어주신 은혜로움과 고마움을 온 세상에 이야기하는 심장의 메아리였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린 시인 리찬동무가 우리결을 떠난지도 어언 십여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죽어서도 잃지 않는 생을 안고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대오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못별들이 영원히 빛을 뿌리듯이 가장 위대하고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있어 시인과 더불어 우리 인민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것처럼 빛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력사는 말한다

김만영

떠가던 구름도
걸음멈춰 굽어보고
향긋한 송화가루도
소리없이 흩날리어라

봄
봄
따스한 그 봄날에
우리 수령님 친히 찾으신곳은-

경치좋은 명산도 아니고
그 어느 이름난 건축물도 아닌
아득한 태고적에 써놓은
고구려 시조왕의 위엄스런 룡

아무 말씀없이
다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구름너머 저 멀리에 이룩한 시선을 주심은
세월의 두터운 장막을 헤치고
슬기론 백성들이 힘을 합쳐
고구려를 세우던 그때를 그려보시는가

불타는 애국심과 송죽같은 절개로
오랑캐들을 쳐물리치며
동방에 빛을 뿌리던
강대한 고구려의 모습 그려보시는가

자기 머리로 선택하고
자기 손으로 세우고
자기 힘으로 지키고
자기 재능으로
동방에 그 자랑 펼친 고구려

그것이 너무 소중하시여
그것이 너무 자랑에 넘치시여

그 넓으신 품에
천년고구려를 안으실제
력사여, 너는 얼마나 감격에 흐느꼈던가

우리 고구려사람들은
참으로 재능이 있었다고
금은화무늬와 련꽃무늬로
단청도 손색없이 하여
왕릉을 잘 보존하자 하실 때
룡산이여 너는 얼마나 기쁨에 설레었던가

아, 우리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세월의 락엽속에 묻히고
세월의 비바람속에 퇴색해가던
작은 유적과 유물 하나라도
제 모양 제 색깔을 다시 갖추고
이 땅에 생겨나는것 아니더냐

그 기쁨 그 감격이
때없이 가슴에 북받쳐올라
후더워진 눈길을 들어
다시한번 룡산을 바라보니

그러자 그 어디선가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
기원전 태고를 거슬러거슬러
분명히 들려오는
선언과도 같은 력사의 말

-부러워하라 세계여
자기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고
자기 인민을 가장 긍지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운명을 맡긴
우리 력사는 앞으로
얼마나 무궁토록 빛날것인가!

새날

-강반석어머님의 동상앞에서-

박창화

방금 먼길을 다녀오신듯
다시 먼길을 떠나가실듯
어깨에 목도리를 걸게 드리우신채
어머님 안고 내시는 《새날》신문!

그 신문 마음속에 경건히 펼쳐드니
상긋한 등사잉크내 물씬 풍겨오고
어머님의 치마폭을 기폭처럼 날리던
세찬 눈보라소리도 뽁뽁 들려오고...

아버님의 조국광복대업을 이어가시는
아드님의 혁명의지 무겁게 담긴 신문
어머님은 《새날》신문을
짜늘한 가슴들에 신념의 불씨로 안겨주셨거늘

쫓아오르는 아침해살처럼
어둠속에 숨져가던 오두막들에
동터오는 광복의 새날을 펼쳐주시며
험난한 밤길인들 얼마나 걸으셨으랴

눈사태에 령길이 묻혔을 때에도
병약한 몸에 기운이 진하실 때에도
하루도 멈추지 않으신 그 걸음
순간도 늦추지 않으신 그 걸음!

진정, 한결음이 늦어지면
광복의 새날이 만리로 늦어지는것 같고
잠시 발걸음을 주춤하면
아드님을 따르는 천만발걸음이 멎어서는것 같아

어머님은 《새날》을 품에 안으시고
달리는 마음에 채찍을 얹으셨고
만경대의 화창한 봄날에 잇닿은
희망의 길을 다우쳐 걸으셨나니

방금 먼길을 다녀오신듯
다시 먼길을 떠나가실듯
유서깊은 칠골생가
꽃향기 넘치는 마당가에 계시는 강반석어머님!

누리에 해와 별 찬란한 오늘에도
《새날》신문을 소중히 품고계시여라
혁명의 러명을 불러오던 그때처럼
사람들 가슴에 뜻깊은 신문을 안겨주시여라

은혜로운 사랑속에 삶이 만발하는
오늘의 새날이 목숨보다 귀중함을 깨우쳐주시며
광복의 새날안고 혈로를 헤쳐온 자옥들을
행복한 자옥들앞에 깊이 새겨주시며!

조선의 높이

리명균

1

시당책임비서 최형률은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을 나와 청사뒤 가까운 산기슭에 있는 사택으로 걸어갔다.

하얀 백합꽃송이들이 서늘하게 피어나고있는 울타리안으로 들어서니 현관문이 열리며 위생복 차림의 안해가 나왔다.

《당신이 어떻게 집에 있소?》

시병원의사로서 늘 바쁘다고 우는 소리를 해오는 안해에게 형률은 무뎡뎡이 물었다.

《담당구역검진을 나왔다가 들렸어요. 상은 아래방에 차려놓았으니 잡수세요.》

안해는 서두르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안계시오?》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줄 아세요? 늘 나다니시는걸요.》

《어데로?》

《안가시는데 없답니다. 소년단원들의 모임에도 초대되어가지고 인민반 누에치는데도 가시고...》

《갑갑하니까 그러시는군.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야 하우.》

《돌봐드리다니요. 어머니가 오히려 돌봐주시는걸요. 집안일은 더 말할것 없고 인민반, 동사업에 이르기까지... 벌써 <투사할머니>로 온 구역안에 알려졌답니다.》

형률은 미소를 지었다.

《지칠줄 모르는 성미시거든...》

어머니는 올해에 꼭 칠순이다.

얼마전까지 평양에서 한 중앙기관을 책임지고 사업하였다. 고질인 신경통이 도져 부득이 직무를 내놓고 아들의 집에 내려오셨는데 아직 한달도 채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존재는 집안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있다는것을 형률은 감각하고있었다.

무엇보다도 온 식구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활기를 띠고 부지런해졌다. 어머니가 모든 일에서 앞장에 서시기때문이었다. 마당을 거두고 꽃밭에 물을 주는 일까지도.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먼저 의논을 하였다.

최형률자신 집에 들어오면 시당책임비서가 아니라 아홉살소년으로 되돌아가는듯한 감회를 느끼곤한다. 하기야 어머니앞에서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 아니겠는가. 형률은 그러한 기분이 즐겁기도 하였다.

그가 어머니를 만난것은 바로 아홉살나던 45년도 가을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빨간별달린 군모에 군복을 입고 허리에 권총을 찬 유격대녀대원의 모습으로 조국에 돌아오시는데 아직 젊음이 한창 넘치시는 나이였다.

《이 아이가 서금동무의 아들이란말ियो?》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갔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무척 대견해하시며 배짱뽕이를 입은 형률을 품에 꼭 안아주시었다.

《최진동무랑 함께 유격대에 입대할 때 돌이 못된걸 떨구어두고 왔다던 그 아이지? 보고싶어 어떻게 견디었소?》

젊은 어머니의 얼굴에 흥조가 어리던것을 형률은 지금도 기억한다.

장군님께서서는 형률의 두어깨를 잡으시고 정겨운 시선으로 이윽히 여겨보시더니 문득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었다.

《그녀석이 눈썹과 코마루가 꼭 최진동무 그대로군. 판에 박았단말ियो. 최진동무가 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장군님의 어조에는 감출수 없는 아픔이 어려있었다.

피로움을 누르지 못하시며 잠시 침중한 기색으로 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이윽고 다시 밝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너의 아버지는 이름난 중대장이였다. 너의 어머니도 숨쉴있는 사수였고... 공부를 잘해라. 아버지가 비워놓고 간 자리에 네가 서야지...》

그때 어머니는 아직 서른살이 채 안된 나이였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는 일흔고비에 들어서시었다.

《잘 모셔야겠는데 도무지 쉬실줄을 모르니...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잘 이르우.》

형률이 안해에게 당부하였다.

《명심하고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제 말을 들으셔야죠.》

《그래도 머느리가 말을 해줘야지 누가 말을 해주겠소. 어머니에게도 이제는 그런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때요. 년세가 년세니까.》

어머니는 형률이 점심을 끝내고 사무실로 다시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에야 마당으로 들어오시었는데 한쪽 어깨에 다래끼를 멘것이 꼭 농촌할머

니의 외모였다.

몸도 전에는 허우대가 큰편이었는데 저르기 체소해지신듯싶었고 머리에 하얗게 앉은 서리가 새삼스럽게 눈을 자극했다. 걸음새에서도 퍼그나 쇠약이 느껴진다. 그러나 잔주름이 많은 후더분한 인상을 주는 얼굴에는 변함없는 자애와 너그러움 그리고 침착함이 어려있다. 수수한 회색저고리에 흰색치마를 길게 입으셨는데 아무런 유표한 점도 없었고 얼마전까지 한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이였다고 짐작할만한 구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 시선에는 엄격하고 근엄한 표정이 어리군한다는것을 형률은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못마땅함을 느끼셨을적이였다. 그러한 시선앞에서는 누구나 엄숙해지지 않을수 없으며 겁을 먹지 않을수가 없다.

인자하기만 한 할머니에게 그런 강한 눈빛이 있다는것을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것은 전문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애였는데 형률에게 몰래 속삭이였다.

《아버지, 할머니의 눈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일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막 무서워요. 처음에 전 할머니가 어떻게 왜놈들과 총을 쏘며 싸웠을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격대명사수인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할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방문앞에 다가오시자 지친듯 마루에 걸터앉으며 어깨에 메었던 다래끼를 벗어놓았다. 다래끼안에는 윤기나는 연두빛 뽕잎이 한가득히 담겨있다.

형률은 미닫이를 열고 마루에 나서며 물었다.

《뽕을 따러 가셨습니까? 왜 그런 일일까지 나서십니까? 점심도 제때에 안드시고...》

《이걸 뭐 일이라게 있느냐. 바람도 쏘일겸 오금을 좀 놀리자고 그러는거지. 누에를 치는 인민반아낙네들이 뽕이 딸려 찢찢대더구나.》

어머니는 시선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어째선지 안색도 흐리고 그 눈빛이 어둡다고 형률은 생각하였다.

《어디 편들 있습니까?》

《아니다, 편치 않긴...》

《무리하시는것 같습니다. 어서 점심식사를 하십시오. 아래방에 상이 차려져있습니다.》

《넌 먹었느냐?》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좀 올라가자. 물어볼 일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글쎄 방에 좀 들어가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일어서더니 아들을 앞세우고 서재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아들의 서재에 들어오시는 일은 드물었다. 손자애들에게도 아버지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엄금했다. 아들의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할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들의 서재에 들어온 어머니는 먼저 소파에 앉더니 서있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거기 앉아라.》

아들이 앉자 어머니는 찬찬한 시선으로 그의 안색을 살펴보면서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슨 일로 또 먼길을 오셨느냐. 바로 어제 오셨다가셨는데?》

뜻밖의 물음에 형률은 어리둥절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시다니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의아해하였다.

《그럼 넌 오늘 그분께서 오신걸 모르느냐?!》

《모릅니다. 금시 처음 들읍니다...》

《네가 모르다니? 시당책임비서라는 사람이 그분께서 오신것을 모른단말이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빛은 더 어두워지는듯하였다.

《넌 모른단말이지? 이상한 일이구나...》

어머니는 생각에 잠기시며 되이시더니 한숨을 짓고나서 말을 이었다.

《내가 늦은 아침때 샘골 뽕나무밭에 갔더랬는데... 까만 승용차가 한대 큰길로 달려오지 않겠니.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샘터구비에 이르자 갑자기 멈춰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 일군과 함께 내리시더라.》

《저기 샘이 있는것 같은데 물을 좀 마시고 갑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였다.

모시고 내린 일군이 만류하였다.

《여기에 계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나는 뽕나무밭속에 있었고 또 거리가 조금 동안이 떠서 잘 보이지는 않았다만 말소리는 푹푹히 들려왔다.

<그럴 필요가 없소. 내가 가서 떠먹지. 저기 쪽박도 있구만. >

그분은 성큼성큼 걸어서 샘터에 가시더니 손수 쪽박으로 물을 떠 달게 드시더라.

<무슨 물을 그리 드십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물이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모시고 가던 일군이 걱정하자 그분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아니요. 우리 나라 샘물은 어디나 다 좋소... 어, 시원하군! 속이 비었을 땐 맹물도 요기가 된단 말이요. >

그러자 모시고 가던 일군이 송구스러워하며 말끔을리였다.

<아침식사를 하시고 떠나실걸 그랬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걱정 마오. 한끼쯤 건느는게 뭐 그리 큰일이 되어 그러오... 자, 또 가봅시다.>

나는 나서서 인사를 드리려 하다가 주춤했다. 어디 몹시 급한 일로 가시는게 분명한데 주책머리없게 나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다시 차에 오르셨고 차는 이어 떠났지만 나는 차가 산굽이를 지나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도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이 아파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는 분명 조반도 드시지 않은채 급히 가시는길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분께서 끼니도 건느시고 저리도 급한 걸음을 하시는지 생각할수록 나는 아픈 마음을 누를수 없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이 뒤숭숭해 지더라...》

형률은 낮빛이 달라지며 대답을 못하고 급히 일어나 탁자우에 놓여있는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집어들어 조직부의 한 일군을 찾았다.

《그사이 무슨 전화가 온게 없소?》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다는 연락은 못받았소?》

《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습니까?》

《급히 알아보시오. 제철소에 전화를 걸어보시오.》

샘터구비 앞길로 가셨으면 로정으로 보아 십상제철소로 가셨을수 있었다. 그 방향에는 달리 큰 기업소나 주민지구가 없었다. 제철소가 있고 그 다음은 바다였다. 그러나 제철소에는 왜 가셨겠는가? 그곳은 방금 어제 그분께서 다녀가신곳이었으며 최형률자신 내내 그이를 모시고 수행하였다.

다른곳에 가셨을가? 다른곳에라면 어디겠는가?

최형률이 잠시 생각을 종잡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있는데 어머니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나서 말씀을 이으시는것이였다.

《자동차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 나는 샘터에 가서 그분께서 물을 드신 쪽박을 보며 한동안 앉아있었는데... 불현듯 산에서 싸울 때 일이 생각나더라.》

어머니는 눈귀를 쏘프리며 창밖 멀리로 시선을 보내시였는데 잔주름이 어린 고즈넉한 얼굴에 그윽한 회억의 감회가 물결쳤다.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때였다. 며칠째 굶으며 눈속을 행군하다가 잠시 휴식하려고 대오가 멈춰섰을적인데 나는 장군님께서 얼음을 까 자시는걸 보게 되였다. 바위서덜에 고드름처럼 붙은 얼음을 싸창손잡이로 깨뜨려 자시더라. 나는 우

연히 그 가까이에 가게 되었는데 나를 보시자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어 시원하군!> 하시지 않겠니. 오죽 시장하시면 얼음조각을 까 자시라고 나는 가슴이 저리는것을 느끼였다. 그때 나는 배낭속에 담은 강냉이를 한웅큼 간수하고있었는데 그걸 꺼내드리면서 <사령관동지, 이걸 좀 드십시오> 하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허허 웃으시며 <너대원들은 언제봐도 안주머니가 있거든> 하고 그 강냉이를 대견스레 바라보시였다. 그러나 잡숫지는 않고 나에게 이르시였다. <잘 간수해두오. 쓰러지는 동무가 있을수 있는데 그런 동무에게 줍시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장군님께서는 그 강냉이를 한알도 드시지 않았고 손수 내 배낭속에 다시 넣어주시였다.

그건 50년전 일이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오늘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 시원하군!> 하시면서 길가의 샘물로 시장기를 누르고계시는걸 보니 생각이 별스러워지더구나.

50년전에는 나라가 칠성관에 올라있을 때이니 장군님께 강냉이 한줌 대접 못했지만 오늘에야 왜 이런 일이 생기겠니? 그것도 어느 다른곳이 아니라 바로 네가 당사업을 책임지고있다는고장에서?》

어머니는 못내 섭섭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렇게 묻는것 같았다.

(이건 그분을 잘 받들지 못해서... 면바로 말해 네가 체구실을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냐? 이고장 일이 잘 펴인다면 그분께서 한두시간 길도 아닌 멀고먼 길을 그처럼 바쁘게 오실까닭이 있겠니? 그런데 넌 그분께서 오신것도모르고 있구나...)

최형률은 어머니앞에 자세를 곧바로 하고 선채 몸이 굳어져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2

최형률이 탄 자동차는 제철소지구를 향해 질주하고있었다.

속도계의 바늘이 100을 넘어서는것을 보면서 그는 운전수에게 더 빨리 차를 몰라고 재촉하였다.

가로수들이 덮친듯이 모로 누우면서 눈앞으로 쏜살같이 다가들었다가는 위태롭게 좌우로 갈라지며 지나갔다. 자동차는 마치 밀집한 가로수의 총림속으로 돌진해들어가는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제철소에 계시였다.

최형률이 제철소당위원회에 왜 알리지 않았는

가고 전화로 물으니 방을 지키고있던 부비서의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멀리에서 들려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쁜 사람인데 소란스레 알려지마오. 방금 어제 만나지 않았소. 그래서 나도 그냥 지나왔소.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하고 가면 되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형률은 목이 짝 잠기는것을 의식하며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오?》

《6호직장에 계십니다.》

《6호직장? 6호직장이면 바로 어제 돌아보신 그 직장이 아니요?!》

최형률은 무엇인가 혼란되는듯한 감을 의식하였으나 더 캐묻고있을 경황이 아니었다.

《알겠소. 내 곧 가겠소.》

형률은 급히 송수화기를 놓고 차에 올랐다.

6호직장이면 바로 어제 그분께서 몸소 다녀가신 곳이다. 왜 다시 그 직장에 오셨을까?

현지기술집단의 설계에 의해 새로 건설된 6호로는 우리 식 야금법에 의한 대형로로서 그 기술상태가 매우 좋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척 흡족해하시었고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에게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으며 용해공들과 오랜 시간 담화하시다가 쇠물을 뽑는것까지 몸소 보시었는데 지심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쇠물이 백광을 뿜으며 사뭇치자 환희에 넘쳐있는 용해공들을 둘러보시며 《야금전선이 전진합니다!》하고 못내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런데 왜 다시 오셨을까?

그처럼 급히 오신것을 보면 6호직장에 무엇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시당에도 통보가 왔을것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다 가신 다음 제철소에서 새로운 문제가 보고되었던것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러면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철소에 계실 때 미흡한것으로 논의된 문제가 있었던가? 그런것도 없었다.

하기는... 미흡한 점이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한가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논의된것도 아니고 또 어제저녁으로 락착이 되지 않았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제 6호로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떠나시기 직전에 문득 혼자 말씀처럼 《현장에 먼지가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그자리에 있던 기사장에게 물으시었다.

《기사장동무는 그런 감촉이 없습니까?》

오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야금전문가인 기사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씀올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녀려 마십시오.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잘 측정해보고 제진시설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어제저녁 최형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려하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철소에 전화를 걸었었다.

기사장이 대답했다.

《책임비서동지, 안심하십시오. 여러차례 반복측정해보았지만 로체현장의 공기오염도는 특별히 우려할것이 없습니다. 다른 로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위생학적허용한계를 넘을 때가 없습니다. 방금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전화가 왔기때문에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다른 로들과 같은 수준이란말이지요... 그래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것처럼 심려하셨는데 제진기를 더 설치합시다.》

최형률이 이렇게 말하니 기사장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로보수를 할 때 제진기를 더 증설해서 제진체계를 4단으로 만들자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기사장은 지금 로체현장에 조성되어있는 자연배풍능력과 기계적배풍능력 그리고 4단으로 완성될 제진체계의 내용과 그 능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4단이면 먼지를 다 잡습니까? 장담할수 있단말이지요? 제진장치를 보장한 다음에 다시 알리시오. 내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빈틈없는 기사장의 대답이 울려오자 최형률은 저으기 안도감을 느끼며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러나 저녁에 식탁에 마주앉았을 때 그는 안해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의료일군이니 잘 알겠는데 좀 설명해보우. 공해에 대해서...》

《당신도 제 도움을 청할 때가 있군요?》

웃음을 띤 안해는 자기 서가에 가서 참고서적까지 빼들고 왔다.

안해는 오랜 시간 설명하였다.

《세상에 알려진 첫 공해는 1930년에 벨지끄의 뮤즈계곡에서 있었어요. 그때 계곡은 공장굴뚝에서 나온 연기로 짙 차 3일동안에 수천명의 노동자와 주민이 병에 걸렸고 63명이 죽었지요. 이것을<뮤즈계곡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공

해라는 술어가 생겨났어요. .

미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일시에 무려 5,910명이 병에 걸린 <도노라참변>이 유명하네 이때부터 미국은 세계 제 1 위의 공해국으로 되었고 해마다 공해로 인한 사망자가 10만이 넘는답니다.

영국의 공해는 4,000명이 한꺼번에 쓰러진...》
《됐소, 됐소, 그만하우. 그따위것은 우리와 아무 인연도 없소.》

최형률은 안해의 말을 끊어버리었다.

3

제철소가 바라보이는 고개마루에 차가 올라섰을 때 최형률의 시선은 먼저 6호직장이 있는쪽으로 향해졌다.

언제보나 우람스러운 제철소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마치 항구에 정박해있는 함선들의 대집단인양 그 장엄한 위용을 자랑하고있었다.

하지만 6호 3장을 더듬던 최형률은 갑자기 시선이 얼어붙는듯한 충격을 의식하였다. 로체현장으로 전에 없이 많은 용해공들이 긴장하여 바빠들어가고 나오고 하는것이 눈에 띄였기때문이었다.. 웬일인가?! 사고가 생겼는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

차가 제철소정문에 들어서자 묻는 운전수에게 형률은 저도 모르게 《물을게 있소? 6호직장으로!》하고 거칠게 대답했다.

로체현장으로 들어선 최형률이 제일 처음으로 만난것은 안경을 낀 경충한 몸매의 나이지숙한 기사장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행해온 젊은 부관이였다.

부관은 초조한 안색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있었고 기사장은 마치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학자와도 같은 자세로 꼼짝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는데 최형률이 들어서자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같은 눈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디에 계시오? 로에 무슨 일이 생겼소? 아니, 이게 웬일이요?! 로가 서지 않았소?!》

형률은 문득 로가 불을 켜다는것을 깨달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대한 로체는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사고가 났소? 왜 로를 세웠소?!》

로를 세운다는것 이 비상사고라는것은 야금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었다. 로의 불을 끄는 일이란 대보수때외에는 있을수 없으며 일요일이건 명절날이건 로는 켜어야하는것이다.

기사장은 대답없이 천천히 안경을 벗더니 손수

건을 꺼내 알을 닦는것이였다.

그의 조그마한 눈은 어찌선지 빨갧게 피기가 어리고 물기도 느껴지는것 같았다.

《로를 왜 세웠소?!》

거듭 물어서야 기사장은 나직이 대답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씀하셨단말이요?》

이때 《아, 시당책임비서동무가 왔습니까?》 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활달하신 걸음으로 지령실쪽으로부터 걸어오시는것이 보였다.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

최형률은 미처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다.

《비지구로 가는길에 들렀습니다.

밤에 이 동무들에게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로체현장의 공기가 특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다른 로들과 같은 수준이니 생산을 계속하다가 로보수를 할 때 제진장치를 더 설치하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들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주의깊은 안광으로 무엇인가 가늠하시듯 우람스러운 로체를 이윽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로는 신설로이고 더우기 우리 식 야금법으로 건설된 로가 아닙니까. 우리 식 야금로가 오래된 다른 로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식 야금로는 말그대로 우리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첫출발부터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우리 식이라는 긍지높은 이름을 붙일수 없습니다. 제진장치를 완비하고 로를 돌려야 합니다.》

그이를 뒤따라오던 지배인이 수첩을 펼쳐들며 민망스레 말씀올렸다.

《저희들도 제진기는 꼭 더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이달 계획을 끝낸 다음... 여기에 제진체계를 4단으로 구성할 안이 세워져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반문하시였다.

《이달 생산을 우선 끝내고 보겠단말이지요? 동무들이 바로 그럴것 같아서 내가 왔습니다. 동무들은 다른 로들과 같은 수준이라는데서 안심하는것 같은데 나는 그 같은 수준이라는 말에 잠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 야금로가 다른 로들과 같은 수준이라니 말이 됩니까?》

고압전류와도 같은 흐름이 온몸을 지나가는것을 의식하였다. 아, 그래서 다시 걸음을 하셨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의 지향이 구현되지 않고는 우리식 로라고 부를수 없고 우리 식 야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식이라는 존엄높은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의 지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시급히 제진시설을 완비하여 모든 야금로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만듦에 우리 식 야금로의 탄생에 선포합니다.》

최형률은 불현듯 강직이 온 사람처럼 몸이 굳어졌다. 아, 그래서 다시 걸음을 하셨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배인이 손에 들고있는 수첩을 바라보시었다.

《동무의 그 수첩에 기록되어있는 공기오염도에 대한 시간별 측정자료는 어느 한 수자도 허용한계를 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슨 허용한계가 아니라 0이라는 수자가 기록될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머니들과 안해들은 아마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일하는 현장의 공기오염도가 허용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마음을 놓지 못할것입니다. 그들은 공기오염도가 0이기를 간절히 소원할것입니다. 0이라는 수자가 기록되기전에는 우리는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것입니다. 사회주의의 명예를 걸고… 그것이 우리 당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로동계급, 우리 인민앞에 우리 당이 지닌 임무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이께서는 타이르시는듯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형률은 그이의 음성이 로체현장안에 지령지령 울리는듯했고 사회주의위업의 모든 원수들, 모든 배신자들, 모든 패배주의자들을 향해 하시는 선언처럼 들리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준수치에 구애될 필요가 없고 남을 쳐다보거나 남과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것은 오직 하나, 우리 인민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려고 하는것이 우리 당의 지향입니다. 그러자면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로력도 자금도 남보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어이 달성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 할수 있는것은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

그이의 안팎에는 불타는듯한 빛발이 번쩍었다.

최형률은 깊이 고개를 숙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것이 아니며 이 땅에 이룩될 주체위업의 본성적요구, 그 인류사적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것을 그는 깨달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하는 뜻의 높이는 인간의 힘이 도달할수 있는 최상의 높이에 있었다. 그것이 우리 나라… 조선

이 올라서야 할 높이였다.

최형률은 심장이 멎는것 같은 충격과 온 육신을 불태우는것 같은 자책감으로 몸둘바를 몰랐다.

모든것이, 로체현장안의 모든것이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의미를 띠고 나타나는것 같았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것처럼 낯선 눈으로 웅건하게 서있는 로체와 저쪽에서 일손을 놀리고있는 용해공들을 바라보았다.

방금전에 기사장을 만났을 때 그가 왜 꿈에서 깨어나는것 같은 표정이였는가가 리해되는것 같았으면 그의 눈이 충혈되고 눈물에 젖어있는 리유도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왜 나는 다른 로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에 안도감을 느꼈는가? 왜 불만을 느낄줄 몰랐는가? 그이의 뜻을 받든다고하면서 오랜 기간 책임적인 직무에서 일해온 내가 왜 아직 그이의 뜻을 모르고있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겠니? 그것도 어느 다른곳이 아니라 바로 네가 당사업을 하고있다는 고장에서?》

탄식하듯 책망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 울리는듯하였다.

부관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조용히 다가와 8지구로 떠나서야 할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갈길이 바빠서 나는 떠나야 하겠습니다.》

최송스러움을 감추지 못해하는 일꾼들을 다정한 눈매로 둘러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력에 넘치시는 어조로 용기를 북돋아주듯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우리의 재능있는 기술집단과 영웅적로동계급이 새로 건설한 이 위력한 야금로에 우리 식이라는 자랑높은 이름이 빛날수 있도록 시간이 더 걸리고 로력과 자금이 더 들더라도 해결해야 할것은 다 해결합니다.》

우리 식…

우리 식이라는 말에는 우리 혁명의 존엄이 어려있고 우리 혁명의 자부심이 어려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식이란 곧 우리 당의 결심을 의미하고 우리 당의 권위, 우리 인민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우리 식》이라는 말에 겁을 먹는것입니다. 적들이 질겁하고 전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들에게는 아마 《우리 식》이라는 말이 풀수 없는 수수께끼일것입니다. 《우리 식》이라는 말이 놈들에게 영원한 공포를 안겨주도록해야 합니다.》

운전사가 발동을 걸었다.

가슴에 겨움도룩 후더운것을 안으며 최형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한걸음 다가서 사죄하듯 조심히 말씀올렸다.

《저희들이 일을 바로 못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많은 시간을 잃으셨습니다.》

차에 오르시려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겨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었다.

《동무들은 내가 다시 찾아온데 대해서 무척 송구해하는것 같은데... 日지구로 가는길에 잠간들렸을뿐이니 달리 생각할것이 없습니다. 마침 그곳으로 가는길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 들려가려고 좀 일찌기 떠났습니다.》

그러나 日지구로 가는길이 여기서 수백리나 상거해있다는것을 그자리에 있던 일꾼들은 누구도 모르지 않았으며 우리 식 로에 대해서, 우리 식 야금법에 대해서, 우리 식이라는 존엄높은 말이지는 참뜻에 대해서 손잡고 가르쳐주시기 위해 그이께서 멀고먼 새벽길을 떠나오셨음을 한결같이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면서 깨달았다...

저녁이었다.

집에 돌아온 최형률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분께서 왜 오셨더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죄다 말씀드리리라.

그런데 방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할머니 어데 가셨니?》

그가 묻자 딸아이가 대답했다.

《회관에 가셨어요. 검덕으로 떠나는 사로청돌격대원들의 모임에 초대되었어요.》

《...》

우두커니 서있던 최형률은 어머니가 즐겨 앉아서 신문을 읽으시는 소파에 회상기책이 펼쳐진채 놓여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들여다보니 바로 어머니가 회상하여 쓰신 제목이었다.

《...》

부대가 압록강상류에서 활동하던 해 초여름이었다. 어느날 저녁 숙영지에서였다.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한 밀림속에는 짙은 훈향이 넘치고있었는데 대원들의 천막을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었다.

<수리날이 멀지 않았군...>

뒤에 서있던 어린 전령병은 손가락으로 날자를 짚아보고나서 말씀올렸다.

<꼭 옛새 있으면 단오날입니다. 사령관동지!>

장군님께서서는 전령병을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는데 더 다른 말씀은 없이 걸음을 내디디시

였다.

이날 밤이 깊어 나는 1중대장과 정치지도원사이에 오고가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정치지도원동무는 사령관동지께서 왜 여늬때없이 수리날을 생각하셨다고 보우?때없이 수리날을 생각하셨다고 보우?》

《우려하시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옛새후가 단오라는것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사람은 오래동안 더 말이 없었다. 아마도 장군님께서 무엇을 심려하실가 하고 생각하는듯 했다. 이윽하여 1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정치지도원동무, 혹시... 장군님께서 신대원들이 수리날을 생각하리라고... 요사이 신대원들이 많이 입대하지 않았소. 그들이 수리날이면 집을 생각하리라고... 그런데 식량이 떨어져 끼니도 어렵게 된것을 걱정하지 않았을가?>

정치지도원이 긍정했다.

<웁습니다. 중대장동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몇동무 데리고 현성쪽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얼 좀 마련해오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지금 놈들이 산관을 덮고있어 적은 인원으로는 어려울거요. 우리 중대가 다 갔다옵시다>...》

최형률은 책을 든채 고개를 깊이 수그렸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 글을 꺼내여 읽어보셨는지 그 심정이 이해되었기때문이었다. 1중대장은 바로 형률의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가 장군님을 모신것처럼... 바로 그 자세로 친애하는 그이를 모셨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품고 이 글을 읽으신것이였다.

아아, 아버지...

최형률은 아버지의 얼굴을 몰랐다.

아버지는 사진한장 남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것이 얼마나 크고 값높은것인지,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있었음을,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가슴이 넘치게 받아안았음을,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또 자식들에게 책임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것을 형률은 심장이 저리도록 의식하였다.

때로 어머니가 섬섬한 안색을 지으시고 시름겨운 표정을 지으신것도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있는듯한 서운한 감촉을 받으셨기때문이 아니겠는가. ...

그이는 조선의 영원한 상징

도밍고 라카오 로차

조선의 영원한 상징 **김일성**

그이는

만방에 조선을 빛내이시는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설계가
결출한 사상리론가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와 평화를 위하여
빛나는 한평생을 바쳐오시여라

조선인민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불멸의 주체사상 창시하시여
고난의 가시덤불 헤치시며
혁명위업 승리에로 이끄시였네

그이의 탁월한 령도
빛나는 승리 가져왔어라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에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그이 영광 떨치시며
조선의 앞길 열어주시였어라

간악한 미제와 일제 때려부시여
영웅적승리 이룩하시였어라
자유와 기치 높이 드시고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 이끄시여
원췌 쳐부시였어라

그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드시고
대건설투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새겨오시여라
이름없던 조선을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를

고도로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어라

당과 인민이 받아안은 영예와 긍지
조선이 걸어온 영광과 승리의 년대기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령도의 결실이어라

조선의 독립과 자유 존엄
이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그이의 로고의 열매
그이의 불멸의 사상 현명한 령도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활동의 빛나는 산물

그이
탁월한 사상과 혁명리론 창시하시여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여라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보내주시나니

그이 세계평화위업과
3세계혁명 위업의 상징으로
혁명적인민들의 끝없는 힘모와 사랑
받고계시여라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
삼가 바라노라
그이께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필자는 니까라과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임)

영광을 드리노라

신지락

세월을 두고
바라고 바라온 념원으로
인민은 높이 받들어모시였어라
김정일 동지-그이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령장의 슬기와 예지로 빛나는
우러러 숭엄한 그 모습
세기를 통솔할
위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풍운에 찬 세상을 둘러보면
그이만이 그이만이
우리의 운명을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살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여주시려니

우러러 우러러
친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인민은 영광을 드리노라
우러러 우러러
인민은 만세를 부르노라

그이를 모시여
존엄높은 우리의 삶 빛나고
그이가 계시여
우리 조선이 튼튼하고
우리 혁명이 끄떡없거늘

아, 군사의 영재
우리의 최고사령관께서

천리혜안의 지략을 펼치시면
이 땅의 그 어떤 침략자들도
봄눈처럼 녹아버리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그이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비렬한 음모와 모략으로
사회주의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아성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리

오, **김정일** 동지-

그이께 력사가 세기를 내맡기었나니
이제 그이 정의와 진리의 보검으로
격변하는 혼돈속에 해매이는
이 세상에 질서를 세워주리라

그이 방향타를 틀어잡은
주체의 한길을 따라 지구는 돌고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공산주의 붉은 노을
우리의 행성을 덮으리라

위인을 기다려 갈망하던
세기의 하늘가에
향도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우러러 세계가
만세, 만세를 부르노라
우러러 만민이
영광, 영광을 드리노라

경례를 받으시라!

인훈

삼가
손을 들어
경례를 드리오니
받으시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시여!

이날을 기다려
흘러온 반세기
쌓이고쌓인
인민의 소망, 민족의 념원이
뜨겁게 담겨진 이 경례

받으시라
우리 운명,
우리 자손들의 미래,
우리 사회주의번영을
당신께 다 맡기고올리는
엄숙한 이 거수

오로지 **김정일**동지만이
사회주의를 승리로 향도할수 있음을
인민을 이끌고 미래에로 갈수 있음을
따라온 반세기
진리로 체험한 인민이기에

인민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모두 맡겼나니
불어오는 회오리광풍도
다 막아주시며
인민을 품안아주시는분

발광하는 제국주의
그 숨통을 짓누르고
영원한 승리의 한길로
우리를 향도하시는 **김정일**동지

하기에 인민은
받들어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누구도 감히 못다칠
강철의 성새를 이루었나니

예지로 빛나는 그 안광
담력으로 넘치는 그 기상을 우러러
엄숙히 올리는 우리의 경례는
그 어떤 시련의 폭풍에도 흔들림없이
당신의 명령만을 받들어갈
신념의 표시!

오, 삼가
손을 들어
경례를 드리오니
받으시라
우리 혁명의 최고령수
김정일장군이시여!

가사

너무 기뻐 하도 기뻐

한정규

그 소식 너무 기뻐 하도 기뻐
옛군복 다시 입고 경례하였소
친애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영상 우러르니 장수힘 솟네
아 그 어떤 원썬도 두렵지 않네

그 소식 너무 기뻐 하도 기뻐
초소의 아들에게 편지도 했소
친애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대를 이어 충성다해 모시여가자
아 영원히 충성다해 모시여가자

그 소식 너무 기뻐 하도 기뻐
내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았소
친애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모신 내 나라는 끄떡없다네
아 사회주의 내 나라는 철벽이라네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세기 넘게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정일

위대한 업적

첫 총서작품 《1932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창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장편소설 《1932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때로부터 남만원정을 거쳐 그해 겨울 로후산에 이르는 간고한 로정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었다.

이 소설은 앞으로 거목으로 자라게 될 항일유격대가 어떻게 첫 시련을 이겨내고 한돌기의 첫 년륜을 감아올렸는가 하는것을 종자로 하였다.

작품의 종자도 뚜렷하고 줄거리도 선명하였지만 창작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하였으니 이제는 초판을 찍어서 관계부문 일군들의 의견이라도 받아보자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작가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과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는데로 소설에 제대로 옮겨놓았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가슴을 조이게 하였다.

작가들은 초판이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돌리며 읽히우는동안 내내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던 1971년 8월 31일 저녁이었다.

자정도 훨씬 지난 밤 2시 갑자기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의 창작실로 달려왔다.

그 일군은 방안에 들어서자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장편소설 《1932년》 심의본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고 하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여서 작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과 국가 사업전반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머나먼 조국의 북단 량강도 삼지연을 찾으시고 현지도의 나날을 보내고계시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근 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작품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읽으시고 자정도 넘은 깊은 밤 몸소 장거리전화를 거시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니 작가들이 어찌 놀라움과 감격을 금할수 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로 하신 말씀은 작가들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이께서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 초본을 읽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소설을 잘 썼다고, 사상적대가 서고 형상수준이 높으며 생활들이 진실하여 소사하집장면 같은 것은 눈물이 난다고, 이 소설을 읽으면 수령님께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이 그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디디였으며 간고한 무장투쟁로정과 가정에서 제기되는 겹쌓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시였는가를 알수 있다고, 앞으로 거목으로 자라게 될 항일무장투쟁이 어떻게 첫 년륜을 감아올렸는가하는 작품의 창작적의도가 선명하게 안겨온다시며 수령님께서 이 작품을 보시면 기뻐하시리라라고 생각한다고 하시었다.

작가들은 그이의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에 북받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꿈을 꾸는것 같았다. 감격에 목메여 눈곱을 훔치는 작가들이 많았다.

그이께서는 이 작품을 출판하기전에 좀 고쳐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실데 대한 문제, 대사를 더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적으로 잘 다듬을데 대한 문제를 실례를 들어가시며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강반석녀사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하시는 대사도 사실대로 진실하게 써야 하겠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3장 소사하집장면에서 강반석녀사가 아드님에게 《내가 만든 군복이네. 맞는가 입어보게.》라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모자간의 친근감도 안겨오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반석어머님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마지막상봉의 친근하고도 애절한 안도 소사하의집이 이곳 조용한 창작실안에 방불하게 펼쳐지는듯싶었다.

사실이 그러하나 작가는 이 장면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이니만큼 정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앞세우던 나머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벗어나 격식화된 필치로 그리였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령도자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이 문학적으로 감명깊게 안겨오지 않았고 혈육의 정이 뜨겁게 넘쳐나는 모자간의 관계로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존대하여 쓴 작가의 의도는 리해되나 사실이 그렇지 않고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에 비추어보아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문학작품에서는 한마디의 대사를 잘못 써도 작품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때문에 이것은 대사에서 하나의 단순한 제청문제이거나 표현문제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에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일부 장면들을 고쳐야 하겠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 몇가지 개

별적표현문제들에 대하여 더 말씀하신 다음 빨리 수정하여 출판에 넘기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일을 맞으며 이 작품을 수령님께 올리면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처음으로 나가는 총서작품이기때문에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전달이 끝났으나 작가들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현지지도를 하시는 그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피 큰 장편소설의 초본을 친히 읽으시고 자정도 넘은 깊은 밤 소설의 대목대목을 번지시며 언어와 문장, 대사를 더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하여,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키며 당대의 생활을 진실하게 재현할데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에 목이 메여 울랐다.

창작실 정권의 잔디밭에 나서서 북두칠성 빛나는 북방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그려보는 작가들의 두볼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위대한 사랑에 의하여 장편소설 《1932년》은 짧은기간에 수정완성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4.15문학창작단에서는 1972년 4월15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첫 총서작품인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견하신대로 첫 총서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그날은 바로 1974년 2월 16일이였다.

이날 새벽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당중앙위원회청사로 급히 달려갔다.

그들을 맞이한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에게 직접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시였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과 관련하여 그전날 주신 그이의 말씀을 전달하여주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오늘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을 록음으로 들으시고 아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수령님께서 작가들이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는데 어머님과 헤어지기전 소사하집장면 같은것은 사실그대로 잘 그렸다고 교시하시였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창작가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페이지도 아닌 수백페이지가되는 장편소설을 록음으로 들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까지 주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완성한 그대목, 소사하집장면 같은것은 사실그대로 잘 그렸다고 치하하시였다는것이 아닌가.

소사하집장면 같은것을 사실그대로 잘 그릴수 있는것은 작가들이 비록 그때의 현실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에 감동되어 형상적환상을 펼치고 현실을 그렸기때문일것이라고 그 모든 성과를 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겸허한 말씀을 받으며 작가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적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진수를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며 그에 감동된 녀과 심장으로 예술적환상을 꽃피울 때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옹게 형상할수 있으며 수령님을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으로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비단 총서 《불멸의 력사》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 모든 작품창작에서 반드시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설을 잘 쓴 4.15문학창작단 작가들

을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작가들에게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하시었는데 이것은 작가들에 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배려의 표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작가들의 가슴은 감격으로 설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4.15문학창작단에서 당면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고나서 4.15문학창작단은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는 충성의 대오답게 소문없이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 자신께서는 4.15문학창작단 성원들이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분에 넘치는 높은 신임과 배려를 받아안고 작가들은 한없는 감격과 행복한 마음을 눈물로밖에 달리는 표현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첫 총서작품《932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신임,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였다.

장편소설 《1932년》의 완성은 1932년의 거대한 역사적사변을 담은것으로만 아니라 총서 《불멸의 력사》의 탄생에 고하는것으로 하여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장편소설이 완성됨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제기되는 많은 이론적문제들이 실천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반영하는 혁명문학의 력사적단계에 확고히 들어서게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장편소설 《1932년》의 탄생으로 우리 소설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문학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광장으로 가는 길에

신경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습시다.》

4월의 무르녹은 봄빛속에 활짝 피어난 진달래와 새싹이 파릇이 움트고 물기오른 나무들이 조화를이룬 수도의 거리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여기저기 나뭇기는 람홍색공화국기발과 당기발, 군데군데 써붙인 《1932-1992》, 《경축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이라는 글발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인 평양의 아침을 더욱 눈부시게 하는듯싶다.

가슴마다 빛나는 훈장을 주련이 단 로병들과 시민들로 거리거리는 마치도 꽃바다를 방불케 한다. 사람들의 얼굴마다 뜻깊은 조선인민군창건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행복, 궁지가 넘쳐흐른다. 그 속에서도 나에게는 군복자락이 안보일정도로 훈장을 내려단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였다. 나의 딸 은혜 역시 그런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가는것이 《소원》이었던지 《나 할아버지와 같이 갈래요.》하고는 내 손을 뿌리치고 그결으로 갔다. 누구보다 많은 훈장을 단 할아버지와 함께 가는것이 장한듯 우쭐거리며 걸음을 늦잡는 손녀의 손목을 끄당기면서 할아버지는 말했다.

《자, 어서 가자…》

너앞서고 나앞서고 말없는 승부속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곳으로, 얼마후에 우리의 혁명무력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첫사열을 받게 될 열병식장으로 물밀듯이 가고있다.

하늘에 닿을듯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 빛뿌리는 주체사상탑이 마주보이는 **김일성** 광장으로 가는 나는 불현듯 어제밤에 있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무릇 사람들은 명절전야가 더 흥겹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 창가에선 그날따라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방금 식사를 끝낸 우리 가정은 4월 25일경축열병식에 초청을 받은 어제날의 전승로병인 아버지를 축하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이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선율을 듣고 귀염둥이 은혜가 어디서 나무총을 찾아들고 노래선율에 맞춰 씩씩하게 방안을 《행진》하기 시작했

다.

…

걸음걸음 따르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되뚝거리며 《행진》하는 은혜의 모든 동작은 온 집안의 시선을 끌며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였다. 《용쿠나…》 은혜가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딸애는 더 성수가 난 듯했다.

이때 문밖에서 딸랑딸랑하는 초인종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이밤중에 누가 찾아왔을까?

문을 여는 동시에 군대에 입대한지 몇달밖에 안되는 내 동생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래일 가족들과 함께 열병식장에 나와 주십시오.》

《그럼 너도 참가한단말이나… 그러니 온 가족이 열병대오에 서게 되었구나. 이런 경사라구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 활보할 영광을 생각하니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초소에서 만나뵈던 일이 새롭게 안겨오는구나.》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어느 한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을 때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푸에블로》 호사건과 《이씨-121》 호사건을 전후한 시기여서 미제의 북침야망과 도발이 수시로 감행되군하던 엄혹한 시련의 나날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아버지가 지휘관으로 일하던 전연초소에 찾아오시였다. 정말 뜻밖이였다. 중대는 초소에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함께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지만 불충분한 전투정치준비로 하여 죄책감과 송구함을 어쩔수 없었다.

조국의 허리를 동강낸 분계선너머 남녘하늘가를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도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수령님대에 기어이 완수할 임무가 우리들의 어깨에 지어져있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군인들의 심장속에 일당백의 불씨를 지펴주시었다.

일당백! 하나가 백을 당하는 정신, 하나가 백을

당하도록 만능병사로 준비하는것-그것이였다. 한순간에 벌써 부대내 실태를 료해하시고 그누구도 생각지 못한 중대의 전투력강화의 방도를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경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백두의 슬기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의 미래를 부탁하는 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만민의 축복속에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늑한 요람에서가 아니라 준엄한 반제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령장의 슬기, 필승불패의 의지, 백발백중의 명사술을 익히시며 미래의 령장으로 자라신 지도자동지, 10대의 어린신 소년기에 벌써 아버지장군님은 우리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이끄시는 명성이 높으신 장군님이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조선의 미래를 빛내여나가실 굳은 맹세를 다시시였다.

전화의 날 미제의 평양시폭격만행을 직접 목격하시며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을 키우시였고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먼 북변의 수수한 작은 방에서 라디오로 최고사령부보도를 들으시며 조선지도우에 남긴하는 아군에 의해 해방된 지점을 붉은 오각별과 화살표를 그으시며 미래의 령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키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20대에 벌써 주체적인 군사전법을 내놓으시여 청년장군으로서의 풍모를 갖추신 지도자동지. 원쑤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이 감행될 때마다 조성된 정세를 미리 간파하시고 구체적인 군사활동방향과 방도를 밝히시여 미제를 수세에 몰아넣음으로써 온 천하에 백전백승의 령장으로서의 명성을 떨치신 군사의 영재 **김정일**장군!

90년대에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장병들이 올린 충성의 편지를 보시고 《우리 당께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여 령도자와 전사간의 동지적 및 혈연적 뉴대를 꽃피워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이처럼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지략과 슬기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아오신 지략과 슬기이며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 전략전술을 그대로 체현하신 령장의 지략과 담력이다.

하기에 투사들과 인민들은 미래의 령장으로 성장하실 그이의 탄생을 축복하여 《조선미래의 광휘백두광명성 만세》, 《백두산에 새 장수 왔다》고 감격의 오열을 터치였고 수많은 전설들을 창조하지 않았던가. 그이의 위대한 인간적풍모와 군사의 영재,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군사적지략에 매혹된 우리 인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도, 조국

통일위업을 완수하실분은 오직 한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심을 력사와 실생활체험을 통해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이기에 그이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지 않았던가. 그이께 우리의 운명과 미래, 조국의 미래를 다 맡기지 않았던가.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탁월한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에 혁명의 대가 끊어져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있으며 이미 자기 존재를 끝마친 나라도 있다. 특히 얼마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오가잡탕의 먼지와 회오리 광풍에 그들의 정치적인념은 하루아침에 뿌리뽑히고 청년들이 사회의 골치거리로, 정신적착란속에 허덕인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었다. 과연 이들의 운명과 미래는 얼마나 암담한가.

허나 우리는 세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고 궁지와 랑만에 넘쳐 그이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예지로운 빛발로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는 언제나 곧바른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책동은 걸음걸음 짓부셔지는것이다.

크나큰 궁지와 자부들은 폐부로 느끼며 열병의 래일을 그려보는데 아버지의 석심한 소리가 나를 불러주었다.

《애들아, 세월이 빠르구나. 내 17살나이에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싸웠는데 세월이 흘러 너의 세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었구나. ...

승철아, 너나 나나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군인들이냐. 세대가 바뀐다해도 너희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마음을 놓는다. 축복한다. 너희들과 이나라의 미래를 ...》

우리의 미래가 마음놓인다. 이 얼마나 소박하고 꾸밈을 모르는 심장의 고백인가.

아버지의 진정어린 축복의 이 고백은 가장 준엄하고 시련에 찬 날 스스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혁명의 수위에,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변함없이 충성다한 혁명의 1세, 2세대처럼 우리새 세대들도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대를 이어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심장의 호소로, 혁명의 로세대가 우리 새 세대들에게 하는 부탁으로 들려왔다.

내 동생의 얼굴에도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신 조선인민군 군인이 된 끝없는 궁지와 시대앞에지닌 임무에 대한 자각, 충성과 효성의 마음

이 불타고있었다.

《할아버지, 나도 어서 커서 삼촌들처럼 인민군대가 될래.》

누가 시키지도, 배워주지도 않았건만 철부지소녀까지도 할아버지의 이야기의 진미를 가늠한듯 제법 작은 어깨우에 고사리같은 손을 척 엮고 경례까지 해보였다. 허지만 5살난 딸애의 천진란만성은 어쩔수 없었다.

...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야참 빨리요...》

언제 사람들 틈을 비집고나갔던지 멀리서 울려오는 딸애의 다급한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벌써 광장입구에 들어섰다.

이제 장중한 《애국가》의 선율속에 수십발의 축포가 오르고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를 광장,

인민군대가 걸어온 60년의 역사를 펼쳐보일 우리 식의 열병대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승로병

들의 뒤에 혁명의 대를 이어갈 새 세대 군인들의 각병종대오가 영광의 시각을 기다린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첫사열을 받을 주체의 혁명무력, 그들에게 답례를 보내실 최고사령관동지!

나는 이제 조선인민군대를 사열하실 젊으신령장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면서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 영원한 미래를 보고있다.

나는 말하고싶다.

나의 운명, 나의 미래는 언제나 락관적이고 미래의 조국은 더더욱 젊어 튼성할것이라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수호하시는 령장중의 가장 결출한 령장, 우리모두의 찬란한 미래이신 지도자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기에 그 어떤 침략자도 덤벼들지 못할것이라고!

영광의 단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창건 열병식광장에서-

리일섭

대오는 흐르고
만세는 울리고
손들이 답례하시는 최고사령관
우리의 **김정일**동지 우러러
천만가슴 행복에 젖어 감격에 젖어

아 젖어드는 마음속에
몽클 솟구치는 후더운 생각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우리과 함께 이날을 보실수 있다면
이날을 함께 기뻐하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안도의 화창한 봄날
혁명군대오 사열하시던 장군님과 함께
기뻐 웃으시던 강반석어머님처럼
저 대오 사열하시는 령장을 보시며
세상 큰 기쁨 안으신다면...

감회도 깊으시리
어깨에 보총 한자루 둘러메고
풀뿌리 씹으며
생 눈을 삼키며
장군님 따라 헤쳐온 그 혈전만리

한평생 누리신 행복보따

겪으신 고생이 더 많아
이런 날 이런 때엔
우리만이 안기엔 너무도 아픈찬 기쁨
더더욱 어머님과 함께 나누고싶은 마음

하늘땅에 넘치는 저 환호는
백두광명성 탄생을 만방에 알리며
어머님 부여잡고 눈물짓던 투사들
밀림속에 터치던 감격의 환희
그대로 여기에 이어진것 아니냐

추녀낮은 귀틀집 구름노전우에
한자루 나무권총 놓아드리며
어머님과 투사들 간절히 바라던
그날의 그 념원 어린것 아니냐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주체의 혁명무력 영원히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실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영광의 단상을 우러르니

아 한생을 바쳐
오늘의 영광을 반들어오신 김정숙어머님
그 빛나는 생애를 돌이켜보며
인민은 다함없는 경모에 젖어라

명제해설

《인테리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변함없는 자세로 관철해나가는 당정책의 열렬한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이며 문학예술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가들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전선의 영예로운 초병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하려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인것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당의 문예 사상과 로선을 신념화하고 그것을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의 철저한 관철자로 준비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되는것이다.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되어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어느한 정책도 력사발전의 객관적법칙과 혁명투쟁의 원리,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방침을 보아도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고 창작방향과 실천적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철저히 준비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깊이 학습하고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모든문학예술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우리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생명선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사상과 리론,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를 견결히 옹호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문예로선과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사상요소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수정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여야 하며 우리 문학예술에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경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오직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대로만 창작하고 생활하는 혁명의 작가, 당의 작가로 되어야 한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 주체적문예사상의 견결한 옹호자가 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리성덕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쓸 생각을 해본적은 물론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터를 떠나 공로 보장자들속에서 한적하게 지내다보니 가끔 추억에 잠기는 때도 있고 지나간 일들을 가슴뜨거이 회상해보는 때도 있게 되는구나.

얼마전 5.1절 100돐기념행사가 평양과 지방에서 다채롭게 벌어지는것을 텔레비존으로 보고난 다음부터 웬일인지 나는 더욱 자주 감회깊은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인 5.1절!

지금은 물론 그 누구에게나 너무도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다. 지금은 노동자들의 말이 더없이 자랑스럽게 들리고 노동자의 상징인 마치는 우리 당기발과 주체사상탑에서도 빛나고있다. 천리마 동상위에 높이 앉은 기수가 바로 다름아닌 노동자의 모습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않는다.

노동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랑스럽게 울리였는가고 묻는다면 너뿐아니라 그 누구나 조국이 해방된 다음부터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었다고 대답할것이다.

물론 옳은 대답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못된다.

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었다. 노동자를 천시해오던, 세기를 두고 굳어진 얼음장같은 낡은 관념을 말끔히 가셔내는 일은 결코 해방이라는 정치적사변의 충격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싹을 움트게 하는 파사로운 봄날의 해빛과도 같은 그 무엇이 있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오랜 세월 얼고 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낼수 있었으며 그자리에 살아생동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간적인 자부심을 싹트게 해줄수 있었던것이다.

아마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이상하게 들을지도 모른다. 한다하는 공훈옹해공인 너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본다.

너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대를 이어 일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싶었다.

×

그것은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봄에 있는 일이었다.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전인 그해 첫 봄에 또다시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어 사람들을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농민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한치도 묵이지 말자고 농사차비에 떨쳐나섰고 노동자들은 일제놈들이 파괴한 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생산돌격대 운동을 벌리고있었다.

나는 그날도 하루종일 용광로밑 재먼지속에서 얼어붙은 쇠물을 꺼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사택마을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아이들이 떠들 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무리의 사내아이들이 누구네 집에선가 쓰려고 길옆에 부려놓은 모래무지우에서 장난을 하고있었다. 모래를 성처럼 빙 둘러쌓아놓고 그안에 들어서서 놀고있는 너의 모습도 보이였다. 그때 너의 나이가 일곱살이였다.

나는 담배를 붙여물고 너희들이 노는 모양을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야무지게 생긴 사내아이 하나가 모래무지우에 올라서더니 《우리 아버지는 별을 달았어. 두개나...》하고 우쭐거리였다. 그러자 다른 한 아이가 팔을뽀고 나섰다.

《우리 아버지는 별이 세개야.》

장난끝에 아버지자랑이 시작된 모양이였다.

《흥, 그까짓 별. 별이면 단줄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입술을 비쭉거리며 한마디 하자 야무지게 생긴 사내아이가 대들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너의 아버지는 뭐냐? 흥, 노동자지, 노동자...너의 아버지는 요거야, 요거!》

그 아이는 너의 코앞에 까맣게 때묻은 새끼손가락을 내들고 까불까불 흔들었다. 그러자 너는 말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빨개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래무지를 발로 와락와락 짓밟개버리면서 두덜거리였다.

《에- 난 안놀겠다. 시시하다.》

원래 별이 세고 기운도 세서 동네아이들의 《대장》노릇을 하는 네가 이러한바람에 놀음은 아주 깨지고말았다.

(원, 저런 녀석을 봤나. 제 기분에 맞지 않는다구 놀음을 망쳐놓다니?)

나는 담배꽂초를 집어던진후 집쪽으로 발길을 돌리고말았다.

그날저녁에 온 식구가 저녁상들레에 모여앉았다.

그때 갓 보안서에 들어가서 군복을 타입고 어깨가 한발씩 솟아서 우쭐거리는 동생 호철이가

너를 무릎에 앉혀가지고 나와 마주앉고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래목에 작은 두리반을 놓고 마주앉았다.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국물을 퍼먹던 호철이가 웬일인지 저혼자 픽 웃었다.

《참, 말이라는 짐승이 령물은 령물이지. 이젠 곁에만 척 가도 알아본단말이야.》

또 무슨 자랑을 늘어놓을 잡도리였다. 아침에도 자랑, 저녁에도 자랑, 잠꼬대도 자랑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 끌려주었다.

《아침에는 총을 쏘아보았다고 자랑하더니 어썤새 또 말자랑이야?》

《체, 형님은 모르면 좀 가만있소. 이제 5.1절날 그 말들이 시위대렬에 나간단말이요. 내 이제 그 놈들을 번들번들하게 살찌워서 시위대렬에 내세우지 않나보우. 얼마나 멋지겠소.》

《원, 무슨 소리지 모르겠구나.》

너의 할머니가 호철이쪽을 건너다보며 물었다.

《시위대렬에야 사람들이 나가겠지 말은 왜 나간단말이야?》

《차,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해방이 되어 처음 맞이하는 5.1절인데 그래 이만저만하겠어요? 간부들이 말을 타구 제일먼저 쪽-나간단말이에요. 원래 식이 그렇대요. 그것두 몰라요?》

《호호호... 그런 식이야 이 늙은게 어떻게 알겠니?》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밥을 먹다말고 웃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무룩해서 밥도 잘 먹지 않고있던 네가 불이 부어서 두덜거리었다.

《체, 삼촌은 그저 제 자랑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게 없어요.》

홀금 나의 얼굴을 훑쳐보더니 너는 투정을 하듯이 종알거렸다.

《아버지는 왜 별이랑 많이 달지 않구 노동자가 됐나? 노동자가 요거래. 요거. 아버지도 요거지 뭐...》

고사리같은 새끼손가락을 내흔들며 너는 아직도 분을 삭일수 없어서 씹씹거리었다. 그때는 물론 식구들이 모두들 웃고말았다. 그러나 어쩐지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나니 저도 모르게 모두의 얼굴에 서글픈 기색이 떠돌았다.

참말 노동자야 무슨 사람축에나 들었든가! 한평생을 먼지구덩이속에서 마소와 같이 일하다가 아무 보람도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고역과 천대를 팔자처럼 등에 지고 아이적부터 제철소에서 일해오던 너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한 많은 노동자로 세상을 마쳐있었다. 그러니 식구들모두가 철없는것이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에서 무서운 숙명을 느끼고 서글픔에 잠기는것을 무리하다고 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난후 어느 쉬는 날이었다.

나는 송남리에서 머슴을 살던 아이적동무인 지춘선이네 밭갈이를 도울 생각으로 동생 호철이를 데리고갔다.

토지 5,000평을 분여받고 나를 찾아와서 아이들처럼 온밤을 울던 춘선이의 얼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마침 그날 춘선이네는 온 식구가 떨쳐나서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부림소를 빌려다가 밭을 갈고있었다. 이마에 팔알같은 땀방울이 맺혔으나 힘든줄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으며 소를 몰아가던 춘선이가 우리를 보고 발머리로 달려나왔다.

발머리에 앉은 춘선이는 담배쌈지를 꺼내서 파랗게 내똥은 봄잔디우에 퍼놓고 담배 한대를 굵직하게 말아 맛스레 피워물었다.

그는 금방 갈아엎은 기름기가 철철 도는 밭이랑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올해농사를 잘 지어서 소나 한짝 사매구 이젠 보란듯이 농사를 지어보겠네.》

늘 입고다니던 누데기같은 검정저고리까지 훌 벗어던지고 땀이 번들거리는 얼굴에 행복에 겨운 웃음을 담고 아지랑이가 떠도는 먼 들판 한끝을 희망에 넘쳐 바라보는 춘선이를 나는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확실히 그는 해방과 함께 몰라보게 변하였던것이다.

춘선이가 문득 나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석철이, 자네는 해방이 되어두 그저 그모양 그골루 살텐가? 제철소를 그만두게. 나라에서 땅두 거저 주는데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 소 한짝이라두 사매놓아야 살맛이 있지 그저 뻔건 두주먹만 가지구야 어떻게 살아가겠나?》

나는 웬일인지 노동자를 그만두라는 그의 말에 비위가 상하여 툭명스럽게 대꾸하였다.

《격정말라구. 이 석철이가 굶어죽을가보아 그러냐?》

나는 힘줄이 울퉁불퉁한 두주먹을 내흔들었다.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노동자는 이 두주먹밖에 가진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두주먹으로 이제 온 세계를 얻는단말일세. 알겠나?》

《뭐? 온 세계를?》

춘선이는 놀라서 입을 헉 벌리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내가 그때 왜 것처럼 희떠운 소리를 했던지 알수 없다. 남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은연중에 변호해보려는 마음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된다.

《온 세계를 얻구말구. <전세계 무산자는 단결하라. 당신들이 잃을것은 철썰요 얻을것은 온 세계이다.>이런 말을 못들었나?》

《허허...자네 참, 대단하네. 그럼 무산자 어른이어서 온 세계를 얻게나. 나는 농사를 잘 지어서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네.》

나는 그날 하루종일 춘선이네 발갸이를 도와주고 저녁밥까지 먹은후 어두울무렵에 집으로 향하였다.

밤하늘에 별빛이 총총하였다.

햇물을 배부르게 뜯어먹은 말을 끌고 몇걸음 앞서서 흔들흔들 걸어가던 호철이가 그즈음에 새로배운 노래를 흥얼거리었다.

...

아세아 무산자 구라파 로동자

전세계 로동자 총동원하여라

호철의 노래소리를 듣는 나의 머리속에서는 오날낮에 춘선이와 나는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남에게서 얻어들은 희떠운 소리를 마구 내던진 자신이 어리석게만 생각되었다.

(은 세계를 얻는다고? 무엇으로 어떻게 얻는단 말인가. 아들녀석한테서 떳떳한 아버지라는 인정도 못얻고있는 주제에 은 세계를 얻기는 어떻게 얻는단말인가.)

나의 눈앞에는 문득 아들이가 내흔들던 새끼손가락이 떠올랐다. 까맣게 때묻은 그 새끼손가락이 아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었고 로동자의 모습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부끄러웠다.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웠다.

물론 나도 해방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었으며 자기앞에 펼쳐진 새 삶의 길을 감촉하였다. 등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던 놈들도 없어지고 총칼로 가슴을 겨누던 왜순경도 없어졌으며 몸도 마음도 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로동자들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나 자신의 머리속에서도 그 생각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있었다.

(로동자를 그만두고 소를 사매라구?)

나는 멀리 바다쪽으로 거뭇거뭇하게 내다보이는 제철소의 모습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푸르스름한 달빛속에서 숨을 죽이고 서있는 용광로의 모습이 그땀따라 류달리 가슴에 찌릿하게 마쳐왔다. 거의 반생이 흘러간곳이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남긴것이 있다면 이러나저러나 그것은 저곳에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로동자가 없다면 제철소가 무슨 소용이라. 용광로는 어떻게 숨을 쉬며 나라에서 쓸 쇠물은 누가 녹이라.

그날밤에 나는 시오리밖에 안되는 길을 깊은 생각에 잠겨 무척 먼길처럼 힘들게 걸어왔다.

4월중순경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송풍기를 조립하느라고 바빠 보냈다. 어서빨리 쇠물을 뽑자면 송풍기부터 살려내야 하였다. 송풍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용광로는 숨을 쉬지 못하는것이였다.

《첫 쇠물을 뽑는 날이면 평양에 계신 김일성장

군님께서 꼭 오실거네.》

《암, 오시구말구. 이게 어떤 용광로인가. 게다가 우리 손으로 첫 쇠물을 뽑는게 좀 큰 경사인가.》

《아니, 미리 장군님께 편지라도 올려서 꼭 보아달라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도 그럴듯하네. 장군님께서 건국사업에 오죽바쁘시겠나? 미리 청원서를 올리지 않구서야 어디 잠시인들 잠을 내실수 있겠나?》

《그렇긴 하네.》

쉴참이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을 주고받곤하였다. 그리고는 모두 장군님을 만나뵈을 그날을 그려보며 말없이 일손을 다그치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들의 일터로 시당 선전부장 정명학이가 찾아왔다.

그는 해방전 건공공시절부터 나와 함께 일한 로동친구였다. 불면지에 목이 타면 녹슨 양철국자로 물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퍼마시며 그와 나는 한일터에서 잔뼈가 굳어진 사람이였다.

그는 무척 책임기를 즐겨하였고 시도 잘 옳었다. 전세계 로동자는 단결하라는 맑스의 말도 그에게서 얻어들은것이였다.

로동자들이 무슨 《생의》 같은것을 일으킨후에는 언제나 정명학이가 경찰에 끌려갔다가 반주검이되어 돌아오곤하였다. 그러다가 해방되기 두해전에 왜놈에게 잡혀간후 다시 소식이 없었는데 해방될 때 나는 형무소에서 풀려나오는 그를 만났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평양에서 개선연설을 하시였다는 소식도 우리는 그에게서 처음 들었다. 그는 몇달전에 단기 정치강습소에 갔다가 돌아와서 시당 선전부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정명학은 《모두다 생산돌격대운동에로!》라고 쓴 붉은 프랑카드를 가져다 작업장 한가운데 걸어놓더니 5.1절을 앞두고 모두가 떨쳐나서 용광로조업을 앞당기자는 내용으로 열기띤 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마친 정명학은 깨진 콘크리트기초우에 나와 마주앉았다.

우리는 그 옛날처럼 굵직하게 만 담배를 피워물었다. 두사람이 내뿜는 첫 모금의 담배연기가 공중에서 정답게 엉켜돌아갔다.

우리는 별스레 기분이 좋아져서 껄껄 웃으며 마주보았다.

《자네 멋들어진 연설도 척척하는걸 보니 정말 대단한 간부가 되였네그려.》

나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얼굴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도수높은 근시안경을 낀 여윈 얼굴을 돌려 나를 마주보는 그의 눈에는 피발이 벌겍게 서있었다.

《잠이 그리워 죽을지경이야. 할일이 산더미같으니까...》

그러던 정명학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른듯 나의 잔등을 톡 건드리며 빙글빙글 웃었다.

《석철이, 자네가 왜놈들이 폭파해버리려던 송풍기를 지켜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일세. 그대 상처는 다 나았나?》

해방될 때 송풍기밀에 폭약을 묻고 도망치는 왜놈을 쳐엎다가 내가 왼쪽팔을 상한 일이 있었는데 정명학이가 그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었다.

《왜놈의 칼에 조금 할퀴었을뿐인데 이젠 다 나았네.》

나는 심드렁하게 대답하였다.

《장하네. 장해. 자네야말로 해방된 새 조선의 주인답게 훌륭한 일을 했네.》

정명학은 나의 잔등을 두드리주며 거듭 칭찬하였다.

《로동자의 본분이 무엇이겠나? 로력과 실천으로 나라를 받들구 빛내여가는데 아닌가. 자네는 로동자의 본분을 훌륭히 지켜냈네. 새 조선의 로동자다워, 로동자답단말일세.》

이 순간 나는 웬일인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에서 말 못할 울분 비슷한것이 꿈틀거리는것을 느꼈다.

세상사람이 다 로동자를 업수이 여기고 아이들까지 새끼손가락을 내흔드는데 그만이 유독 씨름에 진 사람의 잔등을 두드리주듯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왜놈이 미운 생각으로 그랬지 무슨 말라빠진 로동자의 본분때문에 그랬나? 그런 객적은 소리는 하지도 말게.》

나는 비뚤어진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정명학은 껄껄 웃었다. 그는 하찮은 일에도 율척하기를 잘하는 나의 성미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혼자 빙그레 웃더니 중뿔보듯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 자넨 로동자가 뭘지 아나?》

《로동자야 로동자지 뭘겠나?》

나는 여전히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시뻔건 두주먹밖에 가진것 없이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로동자지 뭘겠나? 자네가 그걸 몰라서 묻나?》

《그걸 왜 모르겠나. 하지만 자넨 아직 다 모르고있네. 이젠 로동자가 나라의 주인이구 혁명의 령도계급이란말일세.》

정명학은 나를 깨우쳐주느라고 애썼지만 나의 귀에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자신을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성미가 뒤틀어진 나는 정명학에게 등을 돌려대고 앉아서 격한 말을 마구 쏟아놓았다.

《그만하라구. 령도계급은 자네나 되란말이야. 자네야 간부가 되었으니 5.1절시위같은데도 말을 타구 제일 앞장에 서게 된다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밀바닥 로동자야.》

《아무 소리나 탕탕… 참, 사람두 그 성미는 여전하군.》

정명학은 어이없다는듯 입맛만 찻찻 다시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성미가 뒤틀린 김에 할말을 마저 하지 않고서는 못견딜 지경이 되었다.

《글쎄, 내 말이 틀리나? 자네가 말하는 령도계급이라는게 대체 뭘가. 남들을 이끌어나간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어땠가. 코빠는 아이들까지 로동자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있지 흙몬은 배짱뽕이를 입고다니던 지춘선이 같은 친구들까지 로동자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래 로동자가 누구를 이끌어나간단말인가. 누가 로동자를 따라오구 로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나말이야.》

내가 이렇게 경우를 따지고들자 정명학은 아무 말 없이 불이 꺼진지 오랜 담배꽂초만 자꾸 빨고 있었다.

그가 묵묵히 생각에 잠기자 나는 갑자기 무분별했던 자신을 발견하였다. 지나친 말을 막 쏟아놓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정명학이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을가싶기도 하였다. 해방전이라면 그에게조차 이런 말을 할수 없었을것이 아닌가. 아이들도 역성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때도 쓰고 투정도 부린다는데 정말 내가 어린아이가 된것이 아닌가. 제 나라를 찾고 우리 세상을 찾았으니 이런 분에 넘치는 《투정》까지 해보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정명학에게 저으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뒤틀어졌던 마음도 점차 진정되어갔다.

우리 두사람은 다 싸우고난 사람들처럼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서 제생각에 잠겨있었다.

멀리서 힘찬 메질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귀에 익고 몸에 밴 그 소리를 들으니 웬일인지 가슴이 후련해졌다.

정명학은 그제야 불꺼진 담배꽂초를 쥐고있다는것을 깨닫고 그것을 멀리 내던졌다.

나는 그에게로 돌아앉으며 화해조로 말하였다.

《여보게, 선전부장, 자네 아무리 바빠두 편지 한장 좀 써주게.》

《무슨 편진데?》

나는 **김일성**장군님께 첫 쇠물을 꼭 보아주시기를 바란다는 우리들의 소원을 써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명학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정치강습소에서 듣고온 새 소식을 알려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제 머지 않아 로동계급이 집중되어있는 공업도시들과 공장, 농촌들을 찾아주실것 같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지금 로동계급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키고 공장과 광산, 철도를 인민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로동법령과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데 로동자들의 의사를 법령에 그대로 담으

시려고 현지에 오실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는 무엇이
가 밝은 섬광같은것 이 번뜩하는것을 느끼였다.

《그 노동법령이라는게 뭔가? 어떤 법인가말이
네.》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다급히 물었다.

《글쎄, 아직 딱히는 알수 없네만 온 세상 로동
자들이 그것을 위해 100여년간이나 싸워온 8시
간로동제같은 시책들을 말하는것일거네. 그리고
산업국유화법령이라는것도 왜놈들과 자본가놈들
이 독차지했던 공장이나 광산 같은걸 다 로동자
들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법일거네.》

《다 우리 로동자들을 위한 법이란말인가?》

《그렇게.》

나는 그때에야 세상이 모두 로동자를 하찮게
여기지만 바로 그 로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
켜주기 위해 큰 사업을 설계해나가는분이 계신다
는 생각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을 느끼였다.

그날 정명학이가 들려준 밝은 소식은 먼 지평
선너머에서 웅근소리를 내며 천천히 구울러오는
봄우뢰소리처럼 시간이 갈수록 나의 가슴을 점점
더세차게 울려주었다.

마음을 의지할데가 있다는것을 느끼자 온몸에
서는 무어라 말할수 없는 힘과 용기가 솟아올랐
다. 까닭없이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지어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그 무엇인가 뽐내보고싶어지
기까지 하였다.

그무렵에 있는 한가지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매일 제철소로 오가는 큰길옆에는 간판도
없는 자그마한 《철공소》 하나가 있었다. 지나다
니면서 살펴보니 코안경을 건 대머리령감이 촌
에서 온듯한 어리숙해보이는 젊은이 하나를 데리고
현양철조각들을 두드려쳐서 바깥쪽 바깥쪽 소
래기따위들을 만들고있었다.

지금은 물론 볼수 없지만 해방직후에는 곳곳에
이런것들이 있었다.

그날도 나는 무심히 그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부지런히 양철조각을 두드려대던 대머리령감이
창문밖으로 머리를 불쑥 내밀고 나를 찾았다.

《여보게 젊은이. 나 좀 보세.》

나는 말없이 문앞으로 다가갔다.

《잠깐 들어와 한대 피우구 가게.》

나는 들어갔다. 대머리령감은 깊숙한 옆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오래도록 부시럭거리더니 후들후
들 떨리는 손으로 눈덩이처럼 하얀 권연 한대를
꺼내주었다. 담배 한가치를 집어들고 후들후들
떨리는 그 손이 웬일인지 역겨워보였다.

《난 싱거워서 그런 담배는 안피우오.》

《허허... 그런가? 그러면 물이라두 한고뿌 마시
겠나?》

《팬찮소. 그런데 웬일이시우?》

령감은 코안경너머로 나의 눈치를 한번 훑음
살피고나서 곰살궂게 말을 걸었다.

《여보게, 해방이 되었는데 입자는 언제까지나
그모양 그꼴루 살텐가. 내가 언제부터 말을 건네
볼가 하면서 기다렸네만...》

《내가 사는 꼴이 어쨌단말이우?》

《하, 이 사람이 아직두 동서남북을 모르구 사
네그려. 글쎄 맨주먹만 가지구야 어떻게 사나?
손에 전게 있어야 살지. 두말말구 나와 함께 일
을 하세.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밑천 단단히 잡
게 되데. 저 총각두 조금 있으면 장가밑천을 벌
구 달덩이같은 색시를 맞아들이게 된다네.》

나의 가슴속에서는 말 못할 격분이 부각부각
피여올랐다. 로동자를 어제날처럼 기니걱정이나
하는 품팔이군으로 본다는 노여운 생각까지 들었
다.

나는 양철조각이며 바깥쪽바위들이 가득 쌓여
있는 작업대를 후들후들 떨려오는 주먹으로 짹
누르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그래, 령감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이우?》

《헤헤... 그저 이러루한것들을 만들어 먹고사네.
입자나 다같은 로동자야.》

《로동자라구?》

나는 령감을 노려보았다.

《그래, 령감이 로동자가 뭇지 아우?》

《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제손으로 벌어들
어먹는 사람이 로동자지 별것인가.》

《제손으로 벌어들먹으면 다 로동잔줄 아우? 그래,
령감은 무엇때문에 일하우?》

《먹고살자구 일하지. 새끼들을 먹여살리구 입
히구... 그야 누군들 그렇지 않겠나. 입자두 공연
히 흰목을 뽐내만 돈을 아니주면 일을 하겠나?》

(이 령감이 사람을 어떻게 보구... 벌어들먹!)

나는 쇠덩이같은 주먹으로 작업대를 쿵! 내리
쳤다. 웅강덩강 요란한 소리가 터지며 바깥쪽바
위같은 양철등속들이 땅바닥에 와르르 굴러떨
어졌다. 주먹을 맞은 바깥쪽 하나를 아주 납작하
게 쥐그러들고말았다.

나는 령감을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령감, 로동자를 다시한번 그런 식으로 대했
가는 무사치 못할줄 아우.》

《아니, 내가 어쨌단말인가? 이게 무슨 행패야.
영?》

《그리고 다시는 다같은 로동자라는 말은 하지
도 마우. 우리는 돈을 바라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알겠소? 돈은 령감혼자나 벌란말이요. 장
군님께서 온 나라의 공장, 광산 같은걸 다 로동
자들에게 돌려주신다는데 우리가 그래 령감의 그
때묻은 부스럭돈에 군침을 흘릴줄 아우?》

나는 문을 쿵 닫고 나와버렸다.

대머리령감이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쥐그러

든 바깥을 집어들고 급히 뒤쫓아나왔다.

《여보게, 가두 바깥을 몰고 가게. 변상하구 가란말이야!》

나는 확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부끄럽지도 않소? 평감이 더럽혀놓은 노동자의 명예는 뭘로 갚을테요? 뭘로?》

나는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평감이 두덜거리는 소리가 등뒤에서 들렸다.

《아니?! 노동자의 명예란건 또 뭐구? 빌어먹을... 듣다듣다 별소리 다 들었지...》

이무렵, 송풍기조립은 마감고비에 이르고있었다. 그런데 이 마감고비에서 중요한 전기부속품 몇가지가 부족되어 일이 거의 중단될 형편이 되었다.

나는 지체없이 배낭을 둘러메고 50리밖에 있는 동천변전소를 찾아떠났다. 이틀이나 사흘이면 돌아설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이레만에야 겨우 전기부속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와보니 온 제철소가 들끓고 사람들은 모두 별스레 활기에 넘쳐 일하는것이 눈에 띄었다. 온 제철소구내와 송풍기조립장 곳곳에서 오색기가 기세 좋게 나뭇기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며칠전에 제철소에 다녀가시었다는 것이었다.

(아, 장군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듣는 순간 나는 그만 그자리에 주저앉을듯싶었다. 쇠물을 하루빨리 뽑아내려고 애쓰던 그 나날에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최대의 희망으로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일터에 살아오신 그이를 만나뵙지 못하니...

장군님을 뵈옵지 못한 그때의 아쉬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온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뜻밖에도 시당에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제철소를 떠났다. 5.1절행사와 관련하여 각 공장, 기업소와 농촌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시당청사가 바라보이는 네거리길목에서 송남리 농민대표로 뽑혀 시당으로 가는 지춘선을 만났다.

지춘선은 통넓은 조선바지우에 흰 토목천으로 지은 양복저고리를 받쳐입고 넉직한 검정고무신을 신었는데 발에 날개라도 달린듯 신바람나게 걷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첫마디부터 통담이었다.

《허허... 해방이라는게 좋긴 좋구나. 감독놈들의 방에도 못들어가던 사람이 시당엘 다 드나들구... 그래, 무산자어른이 온 세계를 얻으려 가나?》

《허허... 이제 얻지 않나 두고보게.》

우리 두사람은 마주보며 찰찰 웃었다. 우리가

시당정문에 이르렀을 때 정문보초막에는 총을 멘 짧은 보안서원이 입을 꼭 다물고 엄하게 서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는 뜻밖에도 동생 호철이었다. 호철이가 우리를 보더니 병글거리며 웃었다.

《왜들 왔수?》

《불러서 왔다.》

《불러서요?》

호철이는 못미덥다는듯이 큰 눈을 디룩디룩 굴리며 나와 춘선을 의아쩍은 눈길로 살펴보았다.

《시당에서 형님을 무엇때문에 부르겠소?》

《회의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고왔다.》

《회의예요? 거기야 대표들이 참가하지 아무나 막 참가하는줄 아우?》

《허허허...》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찰찰 웃고말았다.

이때 보초막안에서 전화소리가 따르릉- 울렸다.

호철이는 나와 춘선을 그냥 보초막앞에 세워둔채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후에 알고보니 그것은 선전부장 정명학이가 걸어난 전화였다. 오기로 된 우리 두사람이 도착하지 않아서 정문에 알아본 것이었다.

호철이는 우리들앞에서 좀 우쭐거리볼 생각인지 귀청이 떨어질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시오. 글썽 안왔수다. 대표들만 들여놓으라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생뚱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어가겠다구... 예. 제철소 노동자지요. 이름말입니까? 김석철입니다. 한사람은 지춘선이구...》

《...》

《예?! 아니,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호철이는 송수화기를 급히 내려놓더니 어리둥절해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니, 형님이 제철소 노동자대표요? 춘선형님은 송남리 농민대표구?》

《그래 너만 번들거리는 총을 멘줄 아니? 우리도 <대표>를 땄다!》

춘선은 이렇게 통질을 하며 찰찰 웃었다.

《차, 그럼 진작 그렇다구 말해야 알지요?》

호철이는 점직한지 망작같은 손바닥으로 뒤덜미를 썩썩 어루만졌다.

《어서 들어들가시라요.》

호철이는 총부력을 바로 쥐고 병글 웃으며 군대식으로 우리에게 인사까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긴 복도를 지나 선전부에 들어갔다. 정명학이가 안경을 번쩍거리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합시다.》

정명학이가 종이 몇장을 집어 들고 일어섰다.

...회의는 한시간후에 끝났다.

사람들과 함께 묵묵히 시당청사를 나서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소리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장군님!)

나는 마음속으로 자꾸만 부르짖었다. 길옆에 줄지어선 가로수를 부여잡고 그 우듬지를 바라보았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그 가지마다에서 파랗파랗 웃어난 새싹들, 그 새싹을 아낌없이 비쳐주고있는 끝없이 따사로운 햇빛!

머지 않아 가지가 무성해지고 줄기도 억세어질 그 가로수를 쳐다보는 나의 눈에서는 비로소 참고참았던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었다.

꿈속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난 사람처럼 시당에서 불은 그 감격적인 소식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어서 나는 그날저녁 정명학의 집을 찾아갔다.

그날저녁에도 우리는 담배를 손가락같이 굵게 말아서 마주 붙여물었다.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정명학은 흐트해진 안경을 벗어 닦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자네가 동천변전소로 떠나간지 사흘째되는 바로 그날이었네. 그날아침 나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네. 그런데 아침일찍 시당을 찾아오신 장군님께서 우리 사무실로 들어서시지 않겠나. 정말 뜻밖이었지. 걸레로 책상을 닦고있는데 장군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서실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장군님께서선 선전부사업을 친절히 료해하시고 나서 책상우에 놓여있던 5.1절시위행사계획서를 손수 집어드시는것이였네. 우리들이 모여앉아 머리를 짜내어 만든 계획서였지.

계획서를 한장한장 번지시며 다 보고나신 장군님께서선 해방후 첫 5.1절을 뜻깊게 맞이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단결된 힘을 시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해방된 오늘 노동자, 농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새 시대의 주인이고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시위대렬의 맨 앞장에는 말을 탄 간부들이 설것이 아니라 마땅히 노동자, 농민을 세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네.》

회의때 이미 들은 이야기였으나 나는 또다시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참을수가 없었다.

노동자들을 시위대렬의 맨 앞장에 세울것을 이 세상 그 누가 생각할수 있었는가. 오직 장군님께서 우리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려 하시는것이다.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늘 말을 하던 정명학도 그것은 생각지 못하였고 나 자신도 노동자가 시위대렬에 참가하는것만도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멍들고 얼어붙은 노동자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고 어루만져주는 이 봄빛같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 그 빛발아래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가슴들이 드디어 녹아내리게 되었으니 아,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꾸만 부르짖었다. 그래도 도저히 녹잡힐수 없는 감격이 계속 들끓어오르고 있었다. 마주앉은 정명학의 마음도 나와 마찬가지로 지인것 같았다. 그는 자기를 꾸짖듯이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석철이, 나는 책도 헛읽고 일도 헛했네. 장군님께서 깨우쳐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일을 저지를뻔했나. 장군님께서선 혁명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해야 할 위치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네. 이것은 력사적사변일세. 우리 나라 수천년 력사에서 언제 노동하는 사람을 앞장에 내세워 모든 일을 이끌어나가게 한적이 있었나. 그런 일은 력사에 없던 일이란말일세.》

그는 닦은 안경을 끼어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벗어서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오래오래 닦고있었다. 마치나 다시는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것만 같았다.

《책도 많이 읽고 연설도 잘하던 자네가 그러했으니 나야 말해 무엇하겠나.》

나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나부터두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였네. 철없는 자식들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주먹질로 울분을 풀어보려 하구... 하지만 지금은 웬일인지 열었던 이 가슴이 후련히 녹아내리는것 같네.》

정명학이가 갑자기 눈빛을 번쩍거리며 머리를 쳐들었다. 시를 읊을 때처럼 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은 활활 타오르는듯하였다.

《여보게, 우리 조선노동계급은 정말 위대한분을 수위에 모시였네. 장군님께서선 모래속에 섞인 옥을 찾아내듯이 근로인민이 새 시대의 주인이라는 그 누구도 볼수 없었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였네. 우리들은 이 진리가 구현된 위대한 인간중심의 새 세계, 노동계급의 세상에서 살게된 첫사람들일세. 알겠나?》

정명학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번쩍이였다.

그날 저녁에 나는 더없이 흥분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후부터 나의 가슴속에서는 봄우뢰가 계속 울었다. 해를 두고 쌓이고쌓인 두터운 얼음장을 말끔히 실어내는듯한 마음의 눈석이 마침내 시작되고있었던것이다.

드디어 1946년 5월초하루. 해방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명절이 왔다.

장엄한 시위가 벌어졌다. 만세의 환호성이 광장을 뒤흔들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만세!》
수천수만의 시위군중이 우뢰와 같은 만세의 환
호소리를 터뜨리며 흘러지나가고있었다.

숨을 이룬 기발, 또 기발, 휘날리는 프랑카드들,
시위자들이 들고나온 번쩍거리는 가장물 마치와
낫, 하늘땅을 진감하는 우렁찬 노래소리, 만세소
리...

끝없이 장엄한 시위대렬이었다.

이 장엄한 시위대렬의 맨 앞장에 민족의 태양
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어깨에 높이 받들
어모신 나와 지춘선이가 힘차게 발을 맞추며 걸
어갔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씩씩한 대렬
이 우리 뒤로 끝없이 굽이치며 따라서고있었다.

이때 나의 머리속에서는 시위대렬의 앞장에만
이아닌 혁명의 앞장에 이렇듯 장군님을 높이 받
들어모시고 나아간다는 생각이 새벽빛처럼 우렷
이 떠올랐다.

온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부러워하는것 같
았다. 나는 첫날색시처럼 조심조심 걸어가는 지
춘선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가슴을 꼭 꺾고 발을 맞추자구. 한번
은 세상이 보란듯이 발을 굴러보세.》

《그래, 맞추세나. 현대 젠장... 가슴이 왜 이 모
양일가? 마구 활랑거리네. 마구...》

지춘선은 축축해진 눈시울을 스며버거려었다.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네. 온 세상
도 지금 우리를...》

나는 그만 목이 메어 말끝을 맺지 못하고말았
다. 참고 참아오던 감격이 그만 동독을 터뜨리고
쏟아져내리려는 물처럼 가슴속에서 무섭게 사품
치기 시작한것이였다.

《자네가 온 세상을 얻는다더니 정말 얻었네그
려. 이제 바로 그 세상이 아닌가?》

《글쎄, 말은 그렇게 했네만 나도 이런 세상이
차례질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꿈에도...》

나는 두눈을 꼭 감았다. 그러자 나의 뇌리에
너무도 깊이 आरो새겨진 잊지 못할 화폭들이 주
마등처럼 흘러지나가는데것이였다.

불면지속에서 뒹굴며 고역에 시달리던 그 암흑
같은 나날, 감독놈의 채찍...

해빛이 흘러넘치고 기쁨에 들끓던 해방된 거리,
소를 사매라고 하던 지춘선의 말에 젖은 얼굴,
굵다란 담배를 피워물고 정명학이와 주고받은 울
분에 찬 말들, 해빛밝은 시당회의실, 새싹이 움터
난 가로수...

마구 엉켜돌아가던 이 모든것들이 이 순간 끝
없이 밝고 행복한 하나의 화폭속에 용해되고있었
다.

어두운 세월이 가슴속에 남겨놓은 마지막 그들
까지 말끔히 쓸어내리는 이 마음의 눈석이! 그
거세차고도 고마운 흐름이 나를 이렇듯 크나큰
행복의 바다에로 실어다준것이였다.

(아, 장군님, 장군님!)

나는 불을 타고 더운 눈물이 이랑지어 흘러내
리는것도 감촉하지 못하였다.

나는 두눈을 번쩍 떴다.

시위대렬은 주석단앞으로 들어서고있었다. 만
세의 환호성은 더욱 우렁차게 울렸다.

말을 탄 보안서원들이 총을 메고 주석단앞에
서서 시위대렬을 보위하고있는데 그들속에서 동
생 호철의 모습도 보이였다. 간부들이 탄다던 그
말을 제가 타고 서서 나를 보자 병긋 웃으며 총
부력을 부쩍 힘주어 거머쥐는것이였다.

주석단 한옆에 자리잡고있던 정명학이가 나와
지춘선을 보더니 병긋병긋 웃으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길옆에서 손을 흔들며 시위대렬을 환영하고있
는 아이들을 데린 녀인들과 로인들 속에는 너의
할머니도 있었다.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때 너의 할머니옆에
는 철공소 대머리령감이 서있었는데 그 령감이
너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허참, 세상에 별일두 많지. 아주머니, 저기 저
사람을 좀 보시우. 저기 장군님초상화를 모시기
맨 앞에 선 사람말이우. 눈섭이 시꺼멓구 코날이
우뚝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을 아시우?》

너의 할머니는 놀란 눈길로 그 령감을 돌아다
보며 물었다는것이였다.

《알다뿐이겠소. 알아두 잘 알지요. 언젠가 저사
람이 우리 철공소에 왔길래 나하고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더니 노동자의 명예가 어떻다구
하면서 대뜸 성을 내지 않겠수. 참, 그때야 그저
나와 같이 밥벌이나 하는 사람이거니 했지요. 그
런데 이제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였거든요. 장
군님 초상화를 받들구 이 큰 시위대렬을 이끌어
가는것이 좀 대단한 일이우? 정말 대단해요.》

대머리령감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어린
눈길로 시위대렬을 바라보고있더라는것이였다.

《만세, 만세!》

만세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때 나는 할머니 가슴에 안겨있는 너의 모습
도 가끔 바라보곤하였다. 할머니품에서 기쁨에
겨워 널뛰듯 푹푹푹 킁킁쳐오르며 만세를 웨치
던 네가 한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듯이 나
를 바라보고있었다.

장군님의 초상화를 받들어모시고 수많은 사람
들의 맨 앞장에 서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이
아버지라는것을 너는 그때에야 알아본 모양이었
다.

《야-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목청껏 웨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
지가 노동자라는것이 뻗뻗치 못하여 아이들과 다
투고 불이 부어 돌아왔던 그날저녁의 일은 어느

새 다 잊어버렸는지 너는 온 세상이 들으라는듯이 자랑스럽게 웨치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야, 제일이야!》

나의 뺨으로는 굵은 눈물이 드르르 굴러내리었다. 정명학이가 말한것처럼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참다운 로동계급의 세상과 함께 잃었던 모든것, 인간의 존엄과 떳떳한 아버지로서의 자격까지도 다 찾았다는것을 나는 이때 가슴이 거리도록 느끼었다.

그리고 이 존엄높은 자리야말로 우리 로동계급이 영원히 지켜야 할 자리라는것을 심장으로, 넋으로 느끼었다.

×

그때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40여년이나 흘렀다. 이 기나긴 세월속에서 사람도 변하고 사회도 변모되었다. 잊혀진것도 많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을 시위대렬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었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우리는 자기의 계급적사명과 령도계급으로서의 위치를 그렇게 가슴뜨거이 자각할수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앞장에 서서 진군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위치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이라는 말보다 더 영예롭고 더 존엄높고 더 빛나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한평생을 쇠물앞에서 일해온 로동자로서 로동자들모두에게 이 말을 하고싶어서 이런 편지를 썼으니 그리 알아다오.

몸성히 잘 있거라.

아버지로부터

나를 불러주렴 너의 전우라고 외 1 편

배민욱

새벽노을 안고 산기슭을 에돌아
초소에서 돌아오는 어린 병사야
머리엔 흰 성에 다복이 이고
눈가에는 피발이 어렸건만
너는 정녕 웃고있구나

어찌보면 내 아들의 모습이런듯
어찌보면 내 동생의 모습이런듯
아, 어깨위의 붉은 령장이여
어찌면 네 심장 그토록 억세게 뛰느냐
어찌면 네 가슴 그토록 기쁨에 들먹이느냐

내 보았노라 그네들의 모습에서
어제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모신 청년전위들
내 들었노라 그네들의 숨결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통일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목청껏 웨칠 그날의 만세소리를

아 병사야 나어린 초병아
나의 심장 언제나 너와 힘께 뛰고
나의 마음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일당백의 고향 조국의 전초선에서
나를 불러주렴 너의 전우라고

탄전의 봄

대지엔 아직 흰눈이 덮였어도
여기 흑령엔 봄이 왔구나
또 한차례 발파소리 봄우뢰마냥 울리며
싱그러운 미소짓는 탄부들의 가슴에
봄은 벌써 왔구나

오늘도 계획량 넘쳐했다고
기쁜 소식 전해주는 젊은 당일군의 모습에서

새 탄맥을 찾았다고
채탄장을 그러가는 설계가의 붓끝에서
봄은 무르녹누나

민족최대의 봄명절을 충성의 꽃으로 피워가는
흑령탄부들의 뜨거운 숨결에 안겨
승리의 새봄, 기쁨의 새봄, 영광의 새봄은
탄전마다에 넘쳐나고있구나

사랑하는 고향아

정덕철

고향아
인생의 황혼기에 너를 찾은 몸이건만
철없던 그 시절처럼
변함없이 정답게 맞아주누나

푸른산 기슭을 감도는 시내물아
고역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기다려
내 비맞은 참새마냥 서럽게 울 때
너는 조약돌 달아오른 내가에 불러내어
눈물얼룩진 내 얼굴
반짝이는 물구슬로 씻어주었고

해저무는 저녁 노을밑으로
기러기떼 정서없이 날아갈 때면
못오는줄 알면서도
《징용》나간 아버지 기다리며
동구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내 마음
어둠의 구름만을 덮어주었지

마을아이들
학교길 갈 때면
굴뚝뒤에서 한숨짓던 이 신세
꼴다리연필 하나 못얻어
나무가지 연필인양 꺾어쥐고
구슬픈 눈물짓던 수난의 그 세월
나와 함께 버림받던 고향아

고향아, 네가 나에게 안겨준 사랑이란
살길 찾아
떠나는 이 어린 몸을 두고
긴긴밤 잠못들던 어머니의 한숨
어진 누나의 마음씨뿐이었지만

이역땅을 헤매노라니
너의 모든것이 보고싶더라
내 눈물 뿌리던 처마밑마저

한숨짓던 굴뚝모퉁이마저
눈에 삼삼 밟혀오더라
그리움에 가슴이 미여지고
그리움에 눈곱이 주저앉아
내 백발을 이고서도
보고싶어 안기고싶어
끝내 목메여 부르며 찾아온 이몸

이 어인 일이나
가난과 원한은 추억으로만 남고
층층 새집들이 줄을 섰구나
창문마다 쏟아지는 웃음에
저 푸른 하늘이 높이도 들리었구나

어느 위인이
고향아 너에게 은혜를 입혀
내 꿈에도 보지 못한
락원으로 꾸려주었느냐

내 걸어온 저 마을길도
수령님 다녀가신 길
내 열바퀴도 더 돌아본 저 문화주택도
수령님 들려주신 집
울렁이는 이 마음 실어보는 저 풍요한 들도
봄내 가으내
수령님 오시여 가꿔주신 땅

수모로 고달픈 인생살이
눈을 감아야 끝난다고 생각했더니
고향아, 지상천국으로 솟아난 네가
내 불우한 생애 종지부를 찍고
새삶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구나!
아, 사랑하는 나의 고향
수령님품아!

벼루이야기

이 이야기는 전설이라고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설은 사실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을 창조한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일정하게 환상과 과장의 수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에는 당시 인민들의 념원과 함께 슬기와 재능도 깃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백두산전설이나 백두광명성전설이 거의 모두 그러한 것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이지만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과장도 허구도 없다.

실지 있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도 전설적이어서 아무리 이야기가 전해져도 더 보태지거나 덜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경대고향집은 본래는 산당집이었다고 한다.

평안남도 대동군 남곶면에서 사시다가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대에 생활고에 못이겨 평양성안의 중성리에 이사하시였던 일가분들은 1860년대에 지주놈의 묘를 봐주기로 하고 산당집 한채를 얻어가지고 만경대로 나오시게 되었다.

당시 사회에서 산당지기란 가장 천한 일이었으며 갖은 멸시와 천대가 뒤따랐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산당지기를 면해보려고 애쓰시였으나 종내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아드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 8살 나시던 해인 1878년 10월에 31살을 일기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나시었다.

이무렵 평양지주놈은 산당집을 팔아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을 내놓으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어리신 김보현선생님은 일가분들과 함께 한데 나갔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시었다.

지주놈의 속심을 뻔히 들여다보신 증조할머님께서 돈 내고 산당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요긴한데 쓰려고 무명날이로 한푼두푼 모아 깊이 간수해두었던 돈을 꺼내 세여보시였으나 지주놈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어방없이 모자랐다.

증조할머님께서서는 하는수없이 그 시기 녀성들에게서 소중한 물건이던 자신의 달비를 눈물을 머금고 팔아 지주놈이 요구하는 엽전 열일곱냥을 내고 산당집을 사시었다.

이리하여 일가분들은 오막살이같은 산당집이나 마 제집으로 쓰고 살수 있게 되시었다.

이런 력사가 깃든 고향집의 아래방에는 색날은 앓은뱅이책상이 있고 그우에는 벼루가 놓여있다.

이 벼루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김보현선생님께서 가난한 살림에도 남들처럼 공부하고싶으시여 장마당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판 돈으로 사오셨다는 말도 있고 동네에서 그 누군가가 주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벼루가 후에 큰 신통력을 가진 신기한 벼루라는 것이 확정되자 사람들은 그 기원에 신비성을 부여했다.

말인즉 어리신 김보현선생님께서 어느날 순화강가에 고기잡이를 나가시다 큰 금잉어 한마리를 잡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잉어가 눈물을 푹뚝 떨어지며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통왕의 아들인데 살려주면 소원을 다 풀어주겠노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어리신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남들이 벼루에 먹을 갈아 붓으로 글을 쓰는 것이 몹시 부러웠던지라 벼루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금잉어가 어떤 조화를 부렸는지 김보현선생님의 손우에 난데없이 벼루가 놓여있더라는 것이다.

《소원대로 그 벼루를 드리겠습니다. 그 벼루는 신기한 벼루여서 거기에다 먹을 갈아 글을 쓰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소원이 다 풀립니다.》

금잉어는 이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금잉어가 준 벼루는 그 시기 흔히 보게 되는 너무도 소박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벼루가 신기한 벼루라는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여간 벼루와 관련한 유래에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 벼루는 그후 만경대일가에 대를 두고 내려

왔다.

평양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혁명사상을 무르익히시며 모든 반일애국력량의 결속과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전념하고계시었다.

이런무렵인 1913년 봄,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죽자를 걸어놓으시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라는 두 글자가 힘있게 씌여있었다.

선생님께서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된 바로 이 벼루에 먹을 갈아 활달한 필치로 불멸의 사상이 집약된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쓰시었던것이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교와 고향집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아버지께서 크게 써붙이신데 대하여 여러번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지원》의 사상은 선생님께서 험난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전행정애 변함없이 견지하신 생활의 신조였으며 좌우명이었다.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을 《지원》의 애국사상으로 교육교양하시는 한편 경애하는 수령님을 반일애국의 사상으로 교양하시었다. 선생님께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용감한 고향사람들을 이끄시고 대동강에 침입한 미제침략선 《샤만》호를 불태워버리신 이야기며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 등 애국명장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숨결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으며 그것은 위대한 사상으로 자라났다.

일찌기 남다른 총명을 지니신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글을 익히시였으며 붓글씨도 자주 쓰곤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섯살나시던 해 어느날이였다.

바느질하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결에서 학습하시던 수령님께서 어머님께서 바로 이 벼루에 갈아주신 먹물을 붓에다 듬뿍 찍으시고 흰종이우에 큼직큼직하게 글발을 써나가시었다.

종이우에는 《조선독립》이라는 뜻깊은 글발이 뚜렷이 새겨졌다. 바느질을 하시며 아드님께서 힘있고 담차게 쓰신 《조선독립》 네글자를 들여다보시는 강반석녀사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함뿔 어리시였다.

수령님께서 쓰신 네 글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리신 아드님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애국사상이 커다란 싹으로 자라난것이였다.

만경대에서 혁명의 웅지를 키우신 그이께서는 20성상의 항일혈전을 벌리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개선하시었다.

그 이듬해인 1946년 정초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처음으로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이때 기쁨에 넘쳐계시던 김보현선생님께서 고향집의 유물들을 소개하시면서 고이 간직하시였던 벼루를 꺼내시었다. 그러시고는 어리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이 벼루에 먹을 갈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나라를 찾을 큰뜻이 담긴 《지원》이라는 글을 쓰시였고 그뜻대로 싸우시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벼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고 글을 쓰시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러더니 정말 나라를 찾고 돌아오지 않았니. 너의 할아버지의 뜻을 너의 아버지가 이었지. 그 래 우리 증손이는 이것으로 무슨 글을 쓰겠니?》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사랑어린 웃음을 담으시고 그이를 지켜보시였다.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큰목소리로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쓰겠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김보현선생님께서는 기쁨에 넘치시여 무릎을 치시며 웨치듯 말씀하시었다.

《옳다. 네가 만경대의 혈통을 타고났구나. 암, 그렇게 써야 하구말구. 네가 아버지를 받들어 우리 나라를 훌륭히 빛내어나가야 한다.》

너무나도 소박한 책상과 작은 벼루이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대대로 애국의 뜻을 이어온 혁명가정의 이야기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이 벼루에 먹을 갈아 《지원》이라고 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이 벼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고 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리고 이 벼루에 먹을 갈아 **《김일성**장군 만

세!》라고 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 데 대한 사상을 밝히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그러고보면 이 벼루는 얼마나 큰 신통력을 가지고있는가.

참으로 신기한 벼루이다. 이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신분들은 모두 큰뜻을 품으시였고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언젠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어느 한 정부대표단 단장이 이 벼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게 해달라고 하였다.

강사는 그에게 사적물이어서 정히 보관하고 견학만 시키기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는 되어있지 않다고 차근히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그 손님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니 꼭 그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게 해달라고 떼를 쓰다싶이하였다.

할수 없이 관례에는 어긋나지만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였다.

손님은 그 벼루에 먹을 갈아 붓으로 큼직하게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썼다.

우렁찬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그는 몹시 기뻐하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후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는 새힘과 용기가 솟고 앞이 환히 내다보여 나라의 정사를 보는데서 눈에 띄게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한다.

그가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면 폭풍처럼 일어나 호응하여 언제나 나라일이 잘되었다는것이다.

어느해엔가는 그가 농업을 담당하였었는데 그해 그 나라가 선이래 제일 큰 대풍을 거두었었고 수산부문을 맡았을 때는 그해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다고 한다.

하여간 그가 무슨 일이든지 말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꼭 성공하군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이룩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고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완성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고있다.

이 소문을 듣고 만경대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어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벼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신비해지고있다고 한다.

김우경 (정리)

진달래야 버들개지야

리근지

음달엔 흰눈 점점인데

연분홍저고리 방실

남먼저 봄을 안고왔다고

애기진달래야 뽀내지 말어라

랭상모판 처녀들

하얀 박막속에 파란 하늘 담아

애기모 두세대 아지치우며

들가득 봄을 꽃피웠는데야

찬바람 오가는 방천에

해빛 방실 물고

남먼저 봄을 꽃피웠다고

버들개지야 뽀내지 말어라

흙갈이로 살진 논벌엔

뜨락또르들 잠든 땅 깨우고

잔디깎 파란 언덕 양수장에선

관리공처녀의 노래 수로타고 흐르는데야

진달래야 버들개지야

뽀내지랑 말어라

대논의 해 첫 돌을 맞은 농장원들

가슴가슴이 온통으로 봄인데야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품모에 대한 빛나는 형상

백영철

우리 작가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구현하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리고 사색과 탐구,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근본요인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다.

여기에서 기본은 문학작품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고 감동적으로 형상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반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공산주의적품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유일사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백남룡의 단편소설 《옛정》(《조선문학》 1991년 4호)과 김정길의 단편소설 《은정》(《조선문학》 1991년 7호)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형상과정에 이룩된 성과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 《은정》은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하시고 인민을 친혈육으로 여기시며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진정 령수중에 령수이시고 위인중에 위인이시며 따라서 그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한마음한뜻으로 희망에 넘쳐 살아가는 조선인민은 정녕 행복하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

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그 어떤 세상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승승장구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부러워하고있으며 위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정녕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단편소설 《은정》에 등장하는 아미르병원 원장이싸꼬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명함으로 입원을 의뢰해온 사람이 바로 조선소에서 책임기사로 일하고있는 최준식이라는것과 그에게 베푸신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정과 사랑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끌어넘치는 걱정을 이겨내지못하여 부르짖는 속대사는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집약적으로 담고있다.

(아, 세상에는 나라마다 수령이 있지만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인민을 친혈육으로 여기시는 **김일성** 동지같은신분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중심의 사회를 세운 그이는 진정 령수중에 령수이시고 위인중에 위인이시다. 그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이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한마음한뜻으로 희망에 넘쳐 살아가는 조선인민은 정녕 그 얼마나 행복할가.)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선박부문사업을 료해하시다 조선소 책임기사 최준식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신다.

최준식은 천톤급, 만톤급의 배를 무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1년만에 기어이 대형선박을 무어 바다에 띄운 평범한 기술자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최준식의 이러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는 우리 당이 키워낸 인테리로서 기술과 정열이 겸비된 훌륭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최준식이기에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말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보건성 국장인 박현무에게 남포시병원에서 혹시 진단을 잘못내릴수도 있으니 평양병원에 데려다 다시 검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다.

그런데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의 검진결과도 다름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해안지구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열차에 오르신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열차집무실에서 검진결과를 알아보고 최준식의 병이 일단 확진되었으면 그런 병치료에 경험이 있는 외국병원에 입원시키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최준식이와 같은 특이한 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데는 세계적으로 오직 아미르병원뿐이며 그 병원은 국가수령급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사며 교수들을 입원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입원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박현무는 최준식을 거기에 입원시키자는 제의를 선뜻 드리지 못한다.

박현무의 심정을 환히 꿰뚫어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며 혁명동지를 위한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의 병만 고칠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금을 다 준대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동해안지구들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박현무를 급히 부르시고 아미르병원의 입원실침대가 다 차고 병원 원장의 외국출장이 제기된다 해도 최준식을 꼭 살려내야 한다시며 자신의 명함으로 입원을 의뢰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박현무가 최준식이와 같이 아미르병원으로 가야 마음이 좀 풀릴것 같다시며 조선전쟁때 의료단성원으로 참가하여 수고한 이싸꼬브원장에게 자신의 인사도 전하고 수술립회도 하며 기술실무도 높이되 갈 때에는 특별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신다.

그리고 이싸꼬브의 극진한 정성과 높은 의학기술에 의하여 최준식의 병이 완쾌되어 퇴원을 하루앞둔 날에는 친히 조선대사관에 전화를 거시여 원장선생이 최준식을 구원하느라고 국제의학과학토론회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다는것과 지난 전쟁때에는 물론 이번에도 조선인민을 위해 수고가 많았는데 서로 만나 회포도 나누고 또 경치수려한 금강산에서 휴식하며 피로도 풀겸 조선에 꼭 한번 오라고 당부함을 전해달라고 하신다.

실로 최준식의 병치료과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뜨겁게 미치고있다.

하기에 이싸꼬브는 대사관일꾼들과 박현무, 최준식을 번갈아보며 갈린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들이 부럽소.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겨사는 당신들이 정말 부럽소. 내 이미 70고령을 넘긴 몸이지만 인생의 첫걸음을 이제부터 땀려오.

국장선생, 최선생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좋소. 오히려 인간생명의 참된 기사로 여생을 빛나게 살도록 해주신 **김일성** 동지께 내가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겠소.》

그러면서 이싸꼬브는 조선에 돌아가거든 의술로 한생을 걸어온 자신의 마음도 합쳐 세계가 우러르고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를 부디 잘 모셔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한다.

단편소설 《은정》의 감화력은 작가가 형상수단과 수법을 특색있게 활용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근본요인을 예술적으로 잘 부각한것과도 관련된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대조의 수법인 능란하게 적용되고있다.

작품에서 맑은 자연에 어둡고 웅심깊은 이싸꼬브의 심리세계를 대조시킨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한여름의 중낮이었다.

아미르병원 원장 끈스판진 이싸꼬브는 칠순이 지난 로인답지 않게 안절부절하며 방안을 거닐다가 창가에 가 섰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장미와 정향나무꽃향기가 진하게 풍겨오고 울 넘어 둔덕밑으로 아득히 펼쳐진 풍요한 들판은 해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고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지금 개운하지 않았다.

이싸꼬브는 사흘전까지만 하여도 더없는 기쁨과 무한한 행복의 세계에 잠겨있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국제전화로 원사이며 교수이며 박사인 이싸꼬브원장이 한생을 바쳐 연구한 불치의 병 조기치료법이 세계의학계의 공인을 받아 국제과학토론회에 출연하게 되었음을 알려왔기때문이다.

그 연단은 이싸꼬브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최대의 영예를 안겨줄 절정의 자리로 될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함으로 입원을 의뢰해왔던것이다.

의뢰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싸꼬브의 마음은 의욕과 위구, 불안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소설에서는 이런 정황에 부닥친 이싸꼬브의 심리상태를 뚜렷이 보여주기 위하여 맑은 자연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싸꼬브가 비행장에서 박현무와 같이 까만 《벤즈》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차안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전경묘사 또한 그러하다.

비행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번에 치료받게 될 최준식이기도 수령님의 친척이거나 당과 국가의 요직에 있는 일군이라고 짐작했던 이싸꼬브는 박현무를 통하여 자기가 치료해야 할 환자가 어느 한 조선소의 책임기사이며 수령님께서 아끼시는 일군임을 알고 한시바삐 손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리는 이싸꼬브의 마음은 한결 무거웠다.

소설은 이싸꼬브의 이러한 심리세계를 부각하기 위하여 차창밖으로 무연하게 펼쳐진 황금빛 벌판과 생기발랄한 처녀들의 멋들어진 노래소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구급차는… 무연하게 펼쳐진 밀밭을 옆에 끼고 곧게 뻗은 도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결을 타고 생기발랄한 처녀들의 멋들어진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황금빛 전야만 끝이 없나요
우리네 사랑도 끝이 없나요
아 일터에서 정든 나의 파랑논
…

차안의 분위기와는 대조를 이루는 전경이다.

일반적으로 밝은 자연속에 밝은 심리를 비껴주지만 《은정》에서와 같이 밝은 자연속에 어둡고 웅심깊은 심리를 대조시키면 인물들의 심리가 더욱 깊이있고 뚜렷이 부각된다.

단편소설 《은정》의 작가는 속대사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작품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이고있다.

속대사로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면 그들의 성격을 직접 공개하므로 심리묘사가 박력이 있고 선명하게 될뿐아니라 그것을 보다 예리하게 분석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속대사는 이런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있다.

속대사로 심리묘사를 많이 주는 경우엔 대화가 길어져 묘사력을 잃고 지루해지며 형상수준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은정》의 작가는 이런 후과를 피하기 위하여 적중한 계기에서 객관적묘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속대사를 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명함으로 입원을 의

뢰해왔을 때와 비행장에서 최준식을 태운 특별비행기를 기다릴 때는 물론 박현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싸꼬브의 속대사를 주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싸꼬브원장에 대하여 하는 전화말씀을 전해들었을 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남포시군중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이싸꼬브의 심리상태를 그의 속대사로 보여준 것은 그 형상적효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명함으로 입원을 의뢰해오신 그 순간부터 커다란 의혹과 불안에 휩싸여있던 이싸꼬브가 특별비행기를 맞으려 비행장으로 나갔을 때에는 (환자란 어떤 사람일가?... 혹시 그이께서... 아니, 아니다... 그럴리 없나...)고 번거로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수령님께서 건강하시다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그럴것지. 아무려면...)하며 두눈을 빛내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의 심리세계는 독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는가.

이것은 지난 조선전쟁때 의료단성원으로 참가하여 박현무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 깊이 간직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지니고있는 이싸꼬브만이 체험할수 있는 내면독백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소의 평범한 책임 기사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했을 때 이싸꼬브는 미음속에 차넘치는 크나큰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고 부르짖는것이다.

실로 단편소설 《은정》에서 활용된 속대사는 주인공의 극적체험세계를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힘있게 지향되고있다.

단편소설 《은정》의 작가는 이야기줄거리도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의 요구에 맞게 잘 조직하고있다.

작가는 특히 소설의 마지막부분에서 후일담을 효과있게 주고있다.

작가는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한 이싸꼬브가 우리 나라에서 보낸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과 그가 치료해준 최준식인가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로 조선소 지배인으로 성장한 사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 남포시군중대회장면과 이싸꼬브의 극적 체험 세계를 펼치고있다.

소설에서 후일담은 비교적 간결하게 주어졌으나 이싸꼬브의 속대사를 통하여 작가의 사상미학

적의도가 다시 한번 강조된것으로 하여 그것이 주는 여운이 크다.

남포시군중대회 초대석에 자리를 잡은 이싸꼬브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주석단에 서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손에손에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들고 발을 구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아,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와 그이의 두리에 혈연적으로 련결된 저 사람들! 주체철학이 참된 삶으로 활짝 꽃핀 이 땅에 태를 묻고 태어난 이 나라 사람들은 정녕 얼마나 행복한가!)

실로 이것은 우리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따 뜻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과 그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참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이다.

백남룡의 단편소설 《옛정》(《조선문학》 1991년 4호)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예술적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정력과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육친의 정으로 따 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항일혁명투쟁의 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오늘에도 우리 일군들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기울이고계신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은 군인민위원장이 마련한 쿡장맛을 보시면서도 군내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시기에 군대 간부들과 주민들이 먹는 장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인간적,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람중심의 사회를 건설했는데 일군들속에 비사회주의적현상이 나타나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라고 심려하시는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민들이 먹는 된장에 대해서도 일군인 군인민위원장은 그것을 실무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관점에서 대해야한다시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

다운 총복이 되자면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위원장동무는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이라는걸 모르는것 같소. 동무가 책임지고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이백분의 일의 땅에서 사는 보통 주민들이라고 실무적으로 생각지 마시오. 그들은 수천년세월 봉건통치배들과 착취계급한테 짓밟히고 인간차별을 당해온 인민의 후손들이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피눈물나는 고생살이를 해왔소. 해방돼서 인간답게 평화로이 사는가 했는데 또 전쟁을 강요당했소. 미국놈들한테 부모처자와 형제자매들을 잃어버렸소. 인민은 조국강산을 지켜 자기의 피와 목숨을 바쳤소,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지었소. 정신과 육체의 모진 상처를 입으며 불속을 헤쳐나온 우리 인민의 마음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오... 온 나라 인민이 당을 믿고 한집안식구처럼 뭉쳐서 살려는 지향밖에 없소. 이렇게 좋은 인민의 마음에 누가 감히 그들을 지을수 있단말이요? 누가 신성한 그들의 인격을 홀시할수 있단말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시여 군내 주민들이 군인민위원장의 사업에 대하여 불만을 내놓고 말하지 않는것은 그래도 아직 자기들의 위원장의 진정을 믿기때문이라고 하신다.

《옛정》에서는 또한 강진삼이와 같이 일부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행동하지 않아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것을 뵈면서도 할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주장하고있다.

단편소설 《옛정》은 이처럼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 되자면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잘 알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뿐아니라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밝히고있다.

그리하여 현시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형상적으로 구현하고있다.

단편소설 《옛정》의 작가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성이 발현되는 의의깊은 생활세부를 골라잡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기쁨진 화폭을 창조하였다.

단편소설 《옛정》에 주어진 세부들, 다시말하여 어린 수령님께서 아버님을 따라 림강으로 떠나시던 날 진삼에게 주신 나무권총과 진삼이가 수령님께 드린 호떡보자기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구수하고 향긋한 맛이 나는 보시기된장과 증떡천

의 묵은땅에 대한 세부형상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어리신 수령님께서 진삼에게 주신 나무권총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실로 수령님의 예리한 통찰력과 깊은 뜻이 비껴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진삼은 일본순사님의 아들 《말벌》이 생트집을 걸며 사꾸라나무지팡이를 휘둘러 때릴 때 어깨와 잔등이 바스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에 울면서도 《말벌》의 세력과 큰 몸집에 기가 눌러 굴욕적인 매를 맞는다.

이 광경을 친히 목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리신 나이에 벌써 강진삼의 위축된 성격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견결히 투쟁하는 굳센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무권총을 주시고 떠나시었던 것이다.

《옛정》에 주어진 세부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처럼 독자적의의를 가지면서도 서로 련관되어 형상적으로 심화된다.

나무권총과 공장의 련관을 보더라도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에게 나무권총을 주시며 곳곳이 살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진삼은 철이 들어가지고도 객주집 울타리안에서 화로불을 끼고앉아 먹고 사는데만 급급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유격대를 거느리고 만주벌판에서 싸우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을에서 아무런 반일운동도 벌리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해방이 되었을 때 읍거리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럽고 죄스러워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 전에 진삼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며 비록 싸우지는 못했지만 왜놈들한테 등을 돌려대고 조선사람의 뼚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너그럽게 말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강진삼은 어린 시절의 친구라고 하시며 그의 아버님인 강선생이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성심껏 도와주었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력을 바치고 돈을 많이 쓰신분이라고 하시며 그의 가족의 공적을 발굴하여 고향사람들앞에서 높이 평가해주신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음과 힘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진삼은 어릴적의 위축된 성격이 되살아나 수령님께서 농장에서 맛 좋고 향긋한 맛이 나는 콩장을 먹는가고 물으셨을 때 군인민위원장이 두려워 사실대로 대답

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신 원수님께서 압록강을 건느실 때 진삼이가 준 호떡꾸레미 역시 콩장과 관련한 세부와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호떡을 단순히 호떡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 마음에도 그 호떡을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이 싸준 정성으로 여기시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려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왔던 것이다.

이러한 수령님이시기에 콩장문제를 두고 진실을 터놓지 않는 진삼이를 매우 섭섭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섭섭하오. 그래도 진삼동무가 나한테는…옛친구한테는 진실을 터놓으리라 생각했소…

친구의 정은 서로 진심을 나누는데 있는게 아니겠소. 난 어린 시절에 압록강을 건느는데 내게 호떡을 먹으라고 주던 동무의 그 소박한 심정을 잊지않고있소. 그 맘을 가지고 동무를 찾았고, 이렇게 술상도 마주한게 아니요. 동무는 내게 허물없이 도토리술을 부어주면서도 간격을 두는구만… 군내인민들이 어떤 상을 먹는다는것을 알아야 내가 정치를 바로할게 아니요.》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을 듣는 순간 진삼은 그 어떤 말 못할, 인생에 체험해보지 못한 후더운 진정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어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단편소설 《옛정》에 주어진 세부들은 이와 같이 밀접한 련관속에서 호상 작용하면서 많은것을 시사해줄뿐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작용하여 성격발전을 계기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으로하여 더더욱 의의깊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중덕천 기슭의 묵은 땅과 관련한 세부와 그 심화과정을 보기로 하자.

이 세부는 낮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45년전에 낫시질을 하시던 중덕천 기슭에 그때에는 없던 묵은 잡초밭이 생겨났다는것을 간파하시는 경에하는 수령님의 비상한 기억력과 예리한 통찰력, 군내주민들에게도 맛있는 콩장을 먹이도록 하기 위하여 밤잠도 잊고 새벽비를 맞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함께 강진삼의 나약한 성격과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군인민위원장의 성격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내 주민들에게도 맛있는 콩장을 공급하도록 하자면 콩을 심을수 있는 땅을 찾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품으시고 낮에 차를 타고 오면서 보신 중덕

천기습의 묵은 잡초밭에 관심을 돌리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이와 회포를 나누시는 과정에 중덕천이 옛날의 흐름과는 달라져 그 기슭에 묵은 잡초밭이 생겨났다는것을 확인하신다.

다음날 아침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온이 차고 비까지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진삼을 데리고 중덕천에 나가보시고 중덕천이 물굽을 바꾸었음을 재삼 확인하신다.

그러시고는 진삼이더러 강변의 묵은땅을 일구는 발기를 하여 고향사람들을 위한 보람찬 일을 해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진삼이가 수십년간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강변의 묵은 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잠을 깨워주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제것으로 하겠는가고 말씀을 올리자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의 대답에서 그가 어렸을 때 가지고있던 나약한 성격이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있는것 같다고 하시며 섭섭함을 금치 못하신다.

《진삼동무, 난 어제 퍼그나 걸놓고 죄진 사람처럼 얼굴에 그늘이 진 동무를 보고 피로왔댔소. ...내가 친구한테서 불만스레 느낀건... 나약한 성격이요. 어렸을 때 가지고있던 그 위축된 성격이 오늘도 흔적으로 남아있는것 같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이가 고향을 위해 모범이 되는 일을 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굳센 정신과 의지를 가지는것이라고 하시며 군인민위원장이 두여워 할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서는 안된다는것,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 누가 당의 의도대로 일하지 않을 때에는 주저없이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을 따라 압록강을 건느실 때 호떡을 주던 그 진정을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잊지 않고 진삼이를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 남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이 깃든 이 말씀은 그로 하여금 새 인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강진삼은 폭풍을 안은듯 설레는 가슴을 부여안고 수령님을 우려했다.

그는 자기의 지든 성격, 의식 속에 풀썩처럼 나약히 박혀있던 의지가 구름을 뚫고 산발처럼 거연한 기상으로 솟아오름을 느꼈다. 새 인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것만 같았다. 진삼은 정신도 인격도 다른 자신을 창조하고싶은 욕망에 불타올랐다.

중덕천 기슭의 묵은땅과 관련한 세부는 이처럼 강진삼의 성격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될뿐아니라 군인민위원장으로 하여금 우리 인민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되려는 결의를 굳게 다지도록 하는 계기로도 된다.

단편소설 《옛정》은 이와 같이 우리 일군들을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도록 뜨겁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부각하기 위하여 세부형상을 생동하게 하고있을뿐아니라 작품의 형상적요구에 맞게 구성도 특색있게 하고있다.

단편소설 《은정》의 작가가 이야기줄거리 조직에서 전도의 수법을 리용하여 사건발전의 중간쯤에서 이야기줄거리를 시작하고 최상의 수법으로 환경전개와 사건의 말단을 간결하게 보여주면서 구성요소들을 분석적으로 다루어나갔다면 《옛정》의 작가는 끝은 이야기줄거리에서 진삼이가 수십년간 마음속깊이 소중히 간직했던 아홉살때의 일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진삼이한테는 기억에 회미하거나 세월의 갈피속에 묻혀버려 망각된 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작가는 회상형식을 통하여 진삼이가 어린 수령님과 마을의 송아지동무처럼 놀던 일, 일본놈의 순사 아들이 진삼이를 때릴 때 그놈의 사꾸라나무지팡이를 힘껏 나꿔채신 수령님의 손바닥이 껌질이 벗겨져 뿔궤게 피가 배어나왔던 사실, 수령님께서 압록강을 건느실 때 바래주려 나온 진삼의 걸으로 다가오시어 류랑민들이 떠나는것은 다 왜놈들때문이며 진삼이가 울면 왜놈들이 좋아하니 눈물을 닦으라는것, 조선사람들이 서로 만나 잘살날이 반드시 온다는것과 힘보다 굳센것은 마음이니 《말벌》이한테 맞서 다시는 매를 맞지 말라시며 나무견총을 배허벅에 찔러주시던 일들을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진삼이와 함께 널찍한 려관방에서 주무시던 날 위대한 수령님의 깊어진 추억은 우리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는가.

진삼이한테는 기억에 회미하거나 망각된 일들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생히 추억하시였다.

중덕천에서 털낙시로 큰 산천어를 잡은 일이며 다락방에 올라가 아버지한테서 애국명장들의 이야기를 듣던 일, 마을아이들과 같이 독립운동자들을 지도하시는 아버님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시던 일까지 회고하시였다.

강산이 피로, 불길로 타번지던 독립 만세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겨레의 원한과 분노의 눈물이 굶은비로 내리는 력사의 그날들이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침통히 흐르는 압록강의 물, 노호하며 사름치는 중덕천의 여울물, 기운 쪽박과 피나리보짐을 지고 가랑잎같은 배에 기구한 운명을 싣고 떠나던 류랑민들… 반세기전의 그 고난에 찬 머나먼 력사의 흔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세계속에 뚜렷이 간직되어있었다.

작가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강진삼의 추억세계에서의 깊이와 폭에서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보다 뚜렷이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진삼의 추억세계는 생동한 화폭으로, 수령님의 추억은 정론적이며 정서적이며 속도감있는 서술로 간결하게 보여주었다.

《옛정》의 작가는 자문자답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색도 실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적품도를 생동하고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간만에 만난 뜻깊은 자리에서 처녀애처럼 눈매가 곱고 불이 복숭아빛이던 진삼이가 허리구부러진 늙은이, 손은 마른나무뿌리처럼 되고 얼굴피부엔 거뭇한 로인반점이 내뿜은 늙은이가 된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다.

《동무가 이제 선네티이지? … 걸 늙었구만… 고생을 했겠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삼이가 수령님의 의도대로 곳곳이 살지 못했다고 대답을 올렸을 때와 군인민위원장이 진삼이가 마련한 도토리술을 어떻게 드시겠는가고 하셨을 때 하신 말씀, 군인민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는 말씀 등도 자문자답의 수법으로 하여 더욱 의의깊다.

《내 어제저녁에… 어찌다 수십년만에 친구를 만난 자리여서 동무한테 더 말을 못했소. 가슴이 아프고 분이 솟구쳐 밤에 잠을 이룰수 없었소. 위원장동무, 두가지 장을 만드는 리유가 뭐요? 장의 가지수를 늘이자는 좋은 생각에서였소? … 동문 참외막지기를 하는 저 동무나 군내 인민들이 먹는 장맛을 알고있소?… 맛을 보지도 않았겠지.》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참답게 일하는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세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에 그의 음성은 새벽대기속에 퍼그나 낮으나 준렬히 울리

였던것이다.

《옛정》의 작가는 침묵의 수법도 유효적절하게 리용하여 진삼과 군인민위원장의 심리세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이를 만난 그 순간에 벌써 진삼의 턱에 붙은 기미까지 알아보시고 동무들이 《팔기미》라고 놀려대던 일이 생각나는가고 물으신다.

진삼이도 잊어버린 기미였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손으로 기미를 만져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속에 소년시절의 모습이 간직되어있었다는것만으로도 그는 무등 행복하여 대답을 올리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에 강진삼이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을 한줄 아는가고 물으셨을 때에도 작가는 동일한 수법을 쓰고있다.

《진삼동무, 그동안 어데 있었소? 응… 내가 사방 얼마나 찾은줄 아요? 강진삼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명은 되는데… 나이가 비슷하구 여기 중덕마을이 고향인 사람은 없더라말이요. 해방돼서 인차 여기를 떠났더구만…》

《…》

진삼은 가슴헉가득 차오르는 감사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를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콩작문제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말하지 않는 진삼을 두고 섭섭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셨을 때에도 작가는 진삼이가 받아안은 커다란 충격을 이러한 수법으로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은정》과 《옛정》은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실 뿐아니라 우리 일군들을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도를 참신하고 특색있게 형상한것으로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공고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가들은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이고 창작적사색과 탐구를 거듭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하나

오재신

1

날마다 웃음넘치는 집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더라
참다운 자식들이 있더라

내리는 사랑이 파사롭고
오르는 효성이 지극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하나의 가정

다름없어라 나의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여
인민의 가슴마다에 삶의 보람 차넘치는
하나의 대가정

돌러보라
이 세상 그 어디에
피를 나눈 자식처럼
수령은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은 수령을 육친의 정으로 따르며
하나로 굳게 뭉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있는가

천만의 가슴을 들여다보아도
하나의 뜻
하나의 생각
천만이 길을 가는 모습을 보아도
하나의 길
하나의 걸음

아, 그것이
모이고 합치면
언제나 하나라는 답만이 나오는
우리의 진리
우리만이 찾아내고
우리만이 이룩한
일심단결의 법칙

진리로 빛나고
사랑과 믿음으로 뜨거운

위대한 태양의 인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며
인민이 큰 하나로 뭉칠수 있었으랴

그렇더라
정녕 우리 수령님은
한생을 바쳐가시며
이 단결로
인민대중을 력사의 한복판에 세워주시고
무궁무진한 그 힘을 이끄시여
조선을 누리에 자랑높이 펼쳐주시었으니

소중하여라
우리가 이룩한 모든 전취물들
세기적변혁을 부르며
이 땅에 솟아오른 창조의 대기념비들
그것은 수령님을 받드는
천만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놓은것

아, 그 언제나 어디서나
수령님을 위해 뛰는 심장들
그 맥박 그 숨결도 하나
온 나라를 꿰이는
그 열정 그 맹세도 하나
그렇다 나의 조국엔
추켜든 혁명의 기발도 하나

이 하나를 떠나
다른것을 우리는 모르나니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에 모신
일심단결의 생명체
그것은 백여년의 공산주의운동이 넘원해온
단결의 완성
혁명주체의 승리

그것은
세상에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 땅에 빛나게 이룩해놓으신
위대한 하나이여라

2

나라마다
민족마다
저마끔 자기가 지닌
남다른 모습이 있어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 모습도 있고
굴욕으로 어두운
그 모습도 있고
수치로 얼굴 붉히는
그런 모습도 있어라

훌륭한 아버지
그 슬하에 있는
참된 자식들은
아버이를 닮거니

그 누가 준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본을 딴것도 아니여라
우리의 모습은
아버이수령님 주시고
위대한 당이 빛내가는 모습
일심단결의 모습

이 땅의 그 어디를 가나
수령님을 아버이로 높이 모시고
오직 수령님만 믿고 따르는
그 한모습을 보나니

그 모습은
가슴에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4월의 아침
입단선서의 구절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도 있고

그 모습은
제대배낭을 멘채
저 먼 개발지로 떠나간
새 세대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
열세남매를 안아키워
수령님께 기쁨드린
이 나라 수수한 어머니의
그 인정깊은 손길에도 어려있어라

그 모습은
꽃나이 청춘을 전우들을 위해 바친

90년대 첫 영웅의 심장에 있고
서해바다가 조국의 한기슭에 꽃피난
열네명 프락프라운전수
그 가정에도 깃들어있어라

그렇다 그 모습은
살을 어이는 얼음물속에서
그대로 간석지의 제방이 되어
밀려오는 조수를 몸으로 막으며
어깨걸고 웃음짓는 얼굴들이다

아, 수령님의 사상이 불멸하기에
수령님의 신념
수령님의 의지가 변함없기에
영원히 변할줄 모르는
조선의 모습이여

가렬한 전화의 그날에도
채더미로 강토가 뒤덮였을 때도
한모습
모진 눈보라
사나운 역풍이 휘몰아쳐와도
오직 한모습
유족한 날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날이나
변함없는 한모습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그 빛깔을 바꿀수 없고
그 뜨거움을 식힐수 없는
변색을 모르고
끓어번지는 용암처럼 불타는
조선의 일심단결

혁명하는 벗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원썬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조선의 그 모습은
주체의 한길만을 가는
위대한 하나의 모습이여라

3

평범한 날들이 없어라
우리의 나날은
전쟁의 화약내를 몰아오며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
원썬들은 미쳐날뛰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우리에게는 있노라
총칼로도 대포로도 흔들수 없고
놀래울수 없는
위력한 하나의 무기
일심단결의 무기가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는것
세월의 비바람에
녹슬지도 낡아지지도 않는 무기
그 어떤 원썩도 앓아갈수 없는것

백두의 밀림속에서
우리 수령님 항일전을 선포하시며
인민들에게 들려준 무기
그 무기가 있었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행군길 걸어
일제를 타승하고 조선을 구원하시였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도
그 무기의 힘앞에 무릎꿇고
멸망의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지 않았던가

강철의 무기
일당백의 무기
백전백승의 무기
일심단결의 무기여

수령님 안겨주신 그 무기로
재더미를 헤쳐
조선의 천리마를 하늘높이 날렸고
2천리 물길도
그것으로 열었노라
그것으로 천만산을 옮겨 바다를 밀어냈노라

불어오는 서풍도
그것으로 막고
몰아치는 남풍도
그것으로 막았거니

돌이켜보라
인류력사 백만년
바로 그 무기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한 인민의 숙원이
그 얼마였던지

물어보라
이 세상
그 무기를 잃어
찢겨지고 흩어지고
추켜들었던 혁명의 기발마저 빼앗긴
쓰라린 교훈이
어떤것인지

자랑하노라
우리의 일심단결
지구를 휩쓰는 모진 광풍도
한가슴에 막아낸 불패의 성새

제국주의 원썩들은
피눈이 되어 날뛰여도
력사의 법칙을 한손에 틀어쥐고
놈들을 발밑에 굽어보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위력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여도
생명의 젖줄기
주체의 혈통으로 순결한
우리의 일심단결
무궁한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된
위대한 일심단결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수령님 우리 당이 안겨준
가장 값높고 소중한 일심단결

되리라
인민은 더 큰 하나가
영원하리라
조선은 그 하나의 모습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잡으리라
오직 하나 그 혁명의 무기를

아, 일심단결의 위대한 생명체여
우리는 그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땅을 따르며
그 위업 만대에 펼쳐가리라
승리의 만세높이
사회주의한길로 억세게 가리라

목란꽃, 목란꽃은

리광근

꽃입니다
볼수록 보고싶은
환한 너인의 얼굴과도 같은
순결한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청신한 그 향기에 마음도 취하는
목란꽃 목란꽃입니다

정든 님
그리운 님 만나
잠시도 결을 떠나고싶지 않은
그 심정 일으키는 꽃이랍니다
가슴에 꼭 껴안고도싶은...

꽃입니다
목란꽃
이 꽃이 피는
이 강산을 짓밟혔던 설움에
향기없고 열매없는 무궁화를 붙들고
어제날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토록 얼얼하던 가슴들에
잃었던 님을 찾아안은듯
품에 안고 놓지 못할 꽃송입니다
반겨주는 정든 님의 웃음과 같이
활짝 피어난 목란입니다

그 뉘 이 꽃을 피웠습니까
그 뉘 이 꽃을 주었습니까
하늘인가요
계절인가요
장장 흐르는 세월인가요

하늘입니다
계절입니다
세월입니다
어버이수령님 내 나라 찾아주시여
우리 하늘, 우리 계절, 우리 세월에
이 꽃을 피워 이 꽃을 주셨으니

목란꽃
목란꽃은
우리 수령님 제일 사랑하시는 꽃이 아닙니까
내 나라의 국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 이 삼천리 기상을 담아
우리 마음, 우리의 넋을 담아
정갈하고 청정한 이 꽃

뉘인들 안그렇겠나요
그때문에 꽃중의 꽃인 이 꽃을 붙들고
기쁨에 눈물짓는 마음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을 이 땅에서
다시 찾은 님과 같은 이 꽃을 안고
아, 사는것이 복돼서, 눈물겨워서!

봄명절날밤에

손철남

우리 가족이 압록강가에 나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15명절을 마음껏 즐기고 집으로 돌아온날 저녁이었다.

하얀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 푸른 물결우에서 싱그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고향도시를 유쾌하게 바라보던 즐거움이 아직도 눈앞에 삼삼하다.

눈앞에 펼쳐진 고향도시는 얼마나 황홀했던가.

1954년도 가을, 덜컹거리는 달구지의 뒤를 따라 100리길을 걸어온 내가 폭탄자리를 다 메우지 못해 빈굴뚝들만이 앙상하게 들성들성 서있던 폐허우로 서먹한 눈길을 주며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로부터 몰라보게 변모된 고향도시였다.

끝없는 명상속에 추억과 회고는 행복의 물결을 헤가르며 파도처럼 밀려가고 밀려오는데 옷방에서는 아이들이 전축을 틀어놓고 무도회에 나갈 준비로 새로 보급된 춤가락을 익히느라 흥이 나서 왔다갔다 한다.

피곤도 모르는것 같다. 하긴 한창나이이니 모는것이 즐겁기만 할것이다.

근심걱정이 없는 그들에게 어찌 생이 즐겁지 않으랴.

나 역시 생이 즐겁다. 이런 명절날에는 마음껏 휴식하고 또 로동일에는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 출근하여 힘껏 일한다.

단란한 가정과 소박한 안해, 싱싱하게 자라는 아들과 딸... 집도 좋고 일하기도 성수나니 이게 바로 생의 락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하고는 말할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로동자, 농민과 사무원, 도시주민과 농촌주민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오늘만봐도 그렇다. 아침부터 어이딸이 부산을 피워가며 마련한 음식을 듬뿍이 싸들고 나는 딸과 함께, 안해는 아들과 함께 꽃피는 거리에 나섰다.

끝 끝한 아들딸과 행복한 우리 가정이 들놀이

나가는 모습을 그 누가 보아주길 바라는 흐뭇한 심정으로 나는 발걸음도 유유히 내짚으며 압록강가로 나갔다.

신록이 물드는 압록강가에는 벌써 명절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춤과 노래는 명절기분에 들뜬 사람들의 가슴을 더한껏 부풀게 했다.

흥겨운 음악과 춤, 유쾌한 오락, 즐거운 이야기, 초점을 맞춘 렌즈앞에 나서기를 그 몇번...

압록강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는 유람선우에서 나도 웃고 안해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신동무 어머니의 춤추는 모습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단옷을 펼쳐입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덩실덩실 돌아가다가 예루화 좋다, 손뼉을 철썩철썩 쳐대는 그의 춤은 어찌나 흥을 돋구는지 젊은이건 늙은이건 오가는 사람들을 다 춤판에 뛰어들게 했다.

일찌기 남편을 잃고 아들딸 6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끝까지 키워냈다는 자랑도 높이 신동무의 어머니는 땀이 흠뻑 흐르도록 춤을 추고나서는 《정말 우리 세상이 좋다.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 시지.》 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 담았다.

압록강변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민족의 대축전으로 기념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였으며 당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상을 그대로 펼쳐놓은 꽃바다였다.

드디어 조선옷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딸과 제견 옷에 눈부시게 흰 와이샤쓰에 넥타이를 받쳐입은 아들과 딸이 무도회에 나갈 차림으로 나섰다.

《너희들은 피곤하지도 않니? 텔레비죤에서 좋은 영화를 한하는데 영화나 보려무나.》

저녁설것이를 끝낸 안해가 행주치마에 손을 훔치며 방안으로 들어서다 아이들을 만류했다.

안해는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으리라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제는 어른들이 다 잡힌 림름한 아들딸의 모습이 하 대견하여 부러 하는 말같았다.

《피곤이야 뭘, 우리 인차 갔다와요. 먼저들 쉬세요.》

제 어머니보다 키가 더 큰 딸은 어머니앞에 다가서며 어깨를 다정히 부여안는다.

안해는 그러는 딸을 살뜰히 애무하고는 웃고리며 동정기를 다시 바로잡아준다. 안해의 손길이 딸의 목에 닿았는지 딸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가 방안가득 공명되는 듯싶었다. 의젓한 아들은 제 누이를 재촉한다.

《저게 왜 저렇게 싱겁스리 번져가는지 원...》

안해의 입에서는 푸념이 나오는데 그의 얼굴에는 잔주름을 타고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어쩐지 우스웠다. 아니 흐뭇한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여보, 우리도 나가볼가, 응?》

《아니, 당신 정신나가지 않았수? 호호.》

《허허허.》

나는 허거프게 웃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즐거움만이 샘처럼 솟아오른다.

나이 오십이 된 사람같지 않게 이십대의 마음이 되살아올랐다.

《여보, 아이들이 이젠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더 늙지 않고 그저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야 되겠소, 허허》

내가 웃자 안해도 어이가 없는지 따라웃었다.

(지금처럼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안해의 말을 되뇌이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에 나가 일잘하는 딸과 대학에 다니는 아들, 언제나 기쁨속에 사는 안해와 나, 역시 단란한 가정이며 특별히 부러운것이 없는 우리 집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라나고 늙는것은 불가항력적인 자연법칙이다. 이 법칙에 도전할수는 없다. 그렇지만 안해의 그 소박한 념원은 행복한 사람에게는만 찾아볼수 있는 꿈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고 래일의 생활에서 크나큰 희망을 안은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행복한 소원이다.

나는 그날 저녁에 나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해 많은것을 생각해보았다.

다섯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슬하에서 내가 어떻게 대학까지 졸업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또 우리 가정에 부러운것이 무엇이며 두려운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이런 행복이 굴러들겠는가.

《우리 세상이 제일이고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다.》

나에게 성수가 나서 긍지높이 말하던 신동무 어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나도 이 말을 입버릇처럼 늘썩 해왔다.

또 그것 이 응당한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래서 명절날아침에도 누구보다 선참 어버이수령님 동상에 찾아가 꽃다발도 드리었다.

그러나 나는 이날저녁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고마움에 대해서, 대해같은 은덕에 대해서 생활적으로 깊이 체험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행복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꽃피 열매 맺는것이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긍지높은것 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생활이 즐겁고 그래서 더 오래살기를 바라고 래일의 즐거움을 성실하게 마중해가는 이 행복이야말로 오로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 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로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어찌 잊으랴.

나는 충성의 마음을 더 굳게 다지며 로대로 나가 불야경을 이룬 경축무도회장을 보고 또 보았다.

아!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라.

나는 더욱 절정으로 치달아오르는 무도회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뇌이고 또 뇌이었다.

봄명절의 밤은 바닥을 모르고 깊어가고있었다.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총련) 손지원

날더러 조국이
어디메나 물으면
내 이렇게 대답하리

해와 별 빛나는 주체의 조국
바다너머 수천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맘속에 솟아있다고

날더러 조국을
보았느냐 물으면
내 이렇게 대답하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 조국
푸르른 하늘은 두눈에 삼삼코
구룡연 폭포소리 귀에 쟁쟁해
간밤에도 꿈속에 걸어왔다고

그러나
조국을 위해
해놓은게 무엇이나 물으면
내 선뜻 대답을 할수 있을가

양키미제 조국을 삼키려던 그날
고지는 불타고 포성은 울부짖어도
소스라쳐 울음 한번 터뜨리지 않고 자란 이몸

재더미우에서 일떠선 내 조국
사람마다 복구의 삽과 마치 들었을 때
민족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선 이 손에
연필보다 무거운것 쥐여졌던가

조국인민들이 천리마 타고
불철주야 혁신의 불꽃 일으킬 때
어찌하여
내 배운 해외의 대학에서
낮에는 청춘의 노래소리 울리고
밤이면 기숙사에서 꿈을 키울수 있었는지

대답할수 없으리
80년대 조국의 이름없는 영웅들이

20리 날바다에 빗장을 가로질러
서해갑문을 세운 위훈 세상에 자랑할 때

이역의 교단에 선 이 가슴에도
아, 어찌하여
금빛훈장 달아주시였는가를

사람마다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는데
어머니의 그 품을 다 알기엔
나는 아직 철없는 아이

그러나, 그러나
이국에서 나서 자란 이몸이기에
더더욱 그리워 불러본 그 이름

그 이름 부르면
어찌하여
수령님 걸어오신 험난한 길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당중앙창가에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자꾸만 어려오는지...

그 길과 길
그 불빛이 있어
나의 눈앞에 해빛은 비치고
조선의 아들로 태어난 자랑으로
마음은 마냥 설레이는것 아니냐

나의 삶
나의 희망 꽃피워준
따사로운 어머니 그 품

아, 날더러
조국이 무엇이나 물으면
위대한 그 품을 한마디로 노래할수 있을가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보는 조국은
영원한 나의 노래의 샘이기에...

(필자는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임)